



존 A. 다니엘 저서 목록

1. 제출 (하나님의 권위 채널이자 유일한 채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2. 기독교인의 마지막 경주 (왕위 계승 자격).
3. 성막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4. 말세에 필요한 영적인 기도 방법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언약 기도).
5.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작권은 2003년 5월 John A. Daniel에게 있습니다.

본문에 인용한 성경 구절은 권위역 킹 제임스 성경(Authorized King James Version)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무료로 배포되는 선물이며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소개

기독교인 중 90% 이상이 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큰 사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통해 세우신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름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그 색깔을 보고 감탄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51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교회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조상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셋, 므두셀라, 노아 같은 사람들은 언급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는 죽기 직전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며, 모든 일에 형통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지파의 대장들과 장로들과 장교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어린아이들과 아내들, 그리고 진영에 있는 나그네, 나무를 베는 자들과 물을 길는 자들까지 모두 오늘 주 너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어떻게 진영에 있는 나그네, 즉 나무를 베고 물을 길는 자들을 언급할 영감을 얻었을까요?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는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결혼이 하나님과 남자, 여자가 맺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로만 생각하고, 어느 한쪽이 더 이상 원하지 않으면 쉽게 파기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이혼은 사탄이 사람을 이용해 만든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무지, 혹은 이처럼 존경받는 언약 제도를 경멸하는 행위는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수많은 아이들을 한부모 가정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자, 호객꾼, 범죄자, 매춘부 등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언약 형제자매들과 그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러한 신비들을 풀어내고 글로 써서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과 세상 사람들에게 언약이라는 여덟 글자로 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삶을 소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책을 읽고 놀라운 비밀들을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무지한 인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될 것입니다.

존 A. 다니엘

감사의 말씀

이 책을 쓰고 출판하는 데 도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역과 성경 훈련 대학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의 사랑하는 아내 메리 블레스스 다니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저의 소중한 보석과도 같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목적, 즉 저의 동역자이자 언약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뜻을 진정으로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스럽고 순종적인 제 자녀들인 티모시 존 다니엘, 벤자민 사무엘 다니엘, 데이비드 조셉 다니엘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어둠의 왕국에 맞서는 그들의 기도와 도덕적 지지는 언제나 저에게 큰 영감의 원천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저의 독생자 조슈아 N. 사무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성경 속 여호수아처럼 모세 아래에서 주님을 충실히 섬겼던 그는 저의 지도 아래에서도 주님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해주신 모든 목사님들과 형제자매들, 특히 모세 P. 아모스 목사님과 그의 가족, 이스라엘 아론 목사님과 그의 가족, 제임스 다니엘, 조셉 아구 자매님, 그리고 미국 뉴저지에 계신 루스 은디디아마카 필립스 자매님의 변함없는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 오 콜리 왕자님과 부인, 응고지 제인 오콜리 여사님 가족, 로타나 오콜리 변호사님 가족, 오케지 다니엘 아소무가 씨 가족, 그리고 (퇴직) 변호사님을 비롯한 모든 가족분들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도덕적 지지와 관심,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존 오콘크워와 그의 가족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들의 모든 노력에 복을 주시고,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영생을 상속받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용물

1. 언약은 하나님이 사시는 삶이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언어입니다.
2. 인간적이거나 수평적인 몇몇 신성한 언약들 연결되었습니다.
3. 언약의 아담과 그의 아들들 사이의 관계
세겜 사람들과 함께 만든 것,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만든 것.
4. 신의 보호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인간 또는 수평적 언약들.
5. 비밀스러운 계약을 맺는 것의 결과
이단이나 단체, 또는 하나님의 뜻과 해결책의 밖에 있는 것들.
6.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다윗을 그들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왕으로 삼으신 언약.
7.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혼 서약
하나님은 증인입니다.
8. 결혼 언약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저야 할 의무.
9. 언약은 지식의 문을 열어줍니다.
1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사이의 언약.
1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 관계를 맺은 제자들, 즉 성도들이 서로에게 저야 할 책임.
12. 코이노니아, 언약 동역자들 가운데 빛 가운데서 일할 때 얻는 유익.

제1장

언약은 하나님이 사시는 생명이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언어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겠으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으며, 전도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으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얼마나 아름다우나! (롬 10:13-15)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한 말씀 또는 가르침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예로 들었을까요? 당시 세계 다른 지역의 교회들, 즉 이방인 교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백성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자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영적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사용하신 사람으로서, 이방인 교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바울은 요한복음 1-3절에서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은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완고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 전 세계 신자들의 빈약한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너라."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이 옳다. 나는 남편이 없다. 너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네게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맞다." (요한복음 4:16-18)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으로 기독교 세계의 거짓 숭배자들을 상징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의 수도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 솔로몬 왕의 신하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에게 이 지역을 다스리도록 맡기셨습니다.

예로보암 왕은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를 들여왔을 뿐 아니라,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신도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예루살렘을 참된 예배 장소로 삼고 있던 당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던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에 두 개의 거짓 예배소를 세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벰엘에, 다른 하나는 단에 세워졌고, 레위 자손이 아닌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그곳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와 같은 행태를 보입니다. 신도들을 잃지 않거나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 수많은 지교회를 세우고 경험 없는 목사들을 세워 운영하게 합니다. 이러한 무지한 목사들은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지 못했기에 계속해서 영혼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이름은 '파수꾼의 산'을 의미하며, 여인은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위해 파수꾼으로 지켜야 할 산이었음을 시사하지만, 지금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산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그만둘 때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현재 여섯 번째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 여자가 큰 간음자이며 언약을 어긴 자임을 보여줍니다. 열두 지파 중 열 지파가 사탄이나 거짓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계에 만연한 속임수나 사탄의 영향력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이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약 83.3%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16.7%는 참된 예배를 드린다고 볼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사야 6장 11-13절과 아모스 5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 십분의 일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에 마음을 둔 사람은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7%는 거짓과 속임수에 빠져들 것입니다. 이들은 83.3%와 마찬가지로, 총 90%에 달하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지 않았거나, 맺었다 하더라도 어겼거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여섯 번째 남자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으로 인해 부부 관계에 존재하는 참된 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전 세계 대다수의 신자들이 교파를 옮겨 다니면서도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2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뿐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는 대다수의 사역자들이 회심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나 사역에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이들 중 많은 사역자나 설교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한 자들에게 새 언약의 진리를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새 언약이란 성전 예배, 즉 조직적인 의식 예배는 우리 주 예수님의 오심뿐 아니라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온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할 진리를 전파할 기록하지 못합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십시오. 그 때가 오면 너희는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21-23)

바울의 말씀, "그들이 듣지 못한 이를 어떻게 믿겠느냐?" 를 다시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주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구원의 말씀,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이지, 모세의 율법, 예를 들어 육체의 할례 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를 이끌어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길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한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과 언약의 동반자로서 그분의 영에 쓰임 받아 세상과 특히 기독교 세계에 언약이라는 한 단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밀한 생명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세계의 대다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며,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성도들의 휴거 때 그들이 주님께로 모이게 되는 원인입니다.

내 성도들을 내게로 모으라. 곧 희생 제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을 모으라.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친히 심판자 이심이라 (시편 50:5-6).

하나님께서서는 아삽의 시편을 통해 그의 성도들이 그에게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모여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피나 살을 가까이 희생 제물로 바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며, 이들을 통해 육신의 몸을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통해 이 백성, 곧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beriyth)'이며, 발음은 '베리트'로, 계약, 연합, 동맹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어로는 '디아트크(diathk)'이며, 발음은 '디아트케이(dee-ath-ay-kay)'로, 계약, 유언, 약속을 의미합니다. 챔버스 사전(Chambers Dictionary)에 따르면, 언약은 상호 합의(교환, 호혜, 주고받음, 공통, 공동, 둘 이상 간의 공유), 합의 내용을 담은 문서, 하나님과 개인 또는 민족 간의 계약, 경륜, 유언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계약(compact)'은 밀접하게 배치되거나 결합된, 촘촘하게 묶인, 흩어져 있지 않은, 동맹, 조약 또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Confederacy) 또한 동맹이나 연합, 동맹으로 통합된 민족이나 국가를 의미합니다. 넬슨 신판 성경 사전(Nelson's New Illustrated Bible Dictionary)에 따르면, 언약은 두 사람 또는 두 집단 간의 합의로서, 각자가 상대방에게 약속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샌디에이고 베델 신학교의 구약 및 히브리어 교수이자 이 성경 사전의 총괄 편집자인 로널드 F. 영블러드의 견해에 따르면, 언약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마도 '중간성'을 의미하며, 모든 언약의 기초가 되는 첫 번째 원칙으로서 관계의 본질을 강조하는 것일 수 있다. 생명이란 그 자체로 살아 있는 상태, 의식적인 존재, 생물 또는 식물의 존재, 식물과 동물의 활동의 총합, 그러한 상태의 지속 또는 진행, 계속되는 존재, 활동, 어떤 것의 활력 또는 유효성, 영혼과 육체의 결합, 출생과 사망 사이의 기간, 경력, 현재의 존재 상태, 생활 방식, 사회적 상태, 사회적 활력, 인간사, 삶의 이야기, 전기, 영원한 행복, 생명을 주는 원리, 계속되는 존재가 의존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챔버스 사전은 언어를 인간의 말, 다양한 언어 또는 단어와 관용구의 집합체, 특히 한 국가의 언어, 표현 방식, 어휘 선택,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방식, 이해 가능한 의사소통을 형성하기 위한 규칙을 가진 인공적인 기호 및 상징 체계라고 정의합니다.

이 장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언약이란 하나님이 사시는 삶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언어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상호 합의를 의미합니다. 이 백성은 동일한 삶의 방식과 표현 방식을 공유하며, 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이러한 방식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합의에는 특정 표징과 상징이 존재하여 이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사시는 삶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언어는 언약이라는 유대를 통해 동일한 삶을 살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백성에게만 계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관련된 언약 중에는 이 책에서 수평적 언약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은 동등한 사람들 사이 또는 상하 관계 사이에서 맺어집니다. 그러나 신적인 언약도 있는데, 이를 수직적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은 항상 상하 관계 사이에서 맺어집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만드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성경적으로 언약은 단순한 계약이나 합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항상 만료일이 있지만, 언약은 죽음 외에는 끝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죽음은 언약을 끝내지 못합니다. 언약은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입니다.

"이것들은 비유입니다. 이것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 산에서 나온 언약으로, 종살이를 낳는 아갈 산입니다. 이 아갈 산은 아라비아의 시내 산이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그곳의 백성들과 함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이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갈라디아서 4:24-26).

바울은 이 두 언약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나는 시내산에서,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시내산에서 세워진 언약, 즉 율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언약은 속박으로 이끌고 죽음과 정죄를 가져오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고린도후서 3:7-9). 더 나아가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이 언약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12에 언급된 "약속의 언약들"은

13번이 말했다.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외된 이방인이었으며, 약속의 언약에서 제외된 나그네였고, 소망이 없었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의 예루살렘"에 세워졌으며, 죄로 인해 사람들이 언약을 지킬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제공하시겠다는 확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선택받은 백성을 마련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약속이며, 이 두 성경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창세기 3:15)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자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눅 1:31-33)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중 처음으로 사탄의 머리를 부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창세기 9:11-12).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는 그의 믿음 때문에 그의 후손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창세기 17:6-8). 이 모든 약속의 언약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성취된 하나의 은혜 언약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언약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언약 아래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이 새롭고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맺으시는 모든 언약에는 세 가지 상징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1.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창세기 9:9-10, 예레미야 31:22).
2. 그것들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16, 창세기 17:13, 19, 민수기 25:11-13).
3. 그들 모두는 기념물로서 눈에 보이는 표징이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창세기 9:12-15).

이것이 말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당신과 언약을 맺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죄와 언약함 등으로 인해 인간은 스스로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주님께 서원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언약을 직접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도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수호자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백하신 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분의 뜻을 완수하시며, 인간에게 언약의 인간적인 뜻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은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언약들에는 기억할 수 있는 물리적인 상징이나 표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이나 표징은 하나님의 삶과 그분의 언어, 즉 언약 백성이 살아가고 말하는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장의 제목을 "하나님이 사시는 삶과 말씀으로서의 언약"이라고 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만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안으로 인도하시거나 언약을 맺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삶과 언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공격할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내가 민족들을 모으고 왕국들을 모아 내 진노, 곧 내 모든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붓기로 작정하였으니, 내 질투의 불로 온 땅이 삼켜질 것이다. 그때에 내가 백성에게 깨닫힌 언어를 주어 그들이 다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한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게 하리라." (스바냐 3:8-9)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계속해서 그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은 세상 모든 나라와 왕국을 모아 진노를 쏟아붓으신 후에, 그분의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계시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 아니라 한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언어는 단순히 천상의 언어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언어와 섞일 수 없는 순수한 예배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진노가 그치기를 인내하며 기다린 자들에게만 계시될 수 있습니다. 오벧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시온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 언약궤 앞에서 심벌즈를 불었던 성전 음악가 아삽의 시편에 따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나 악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어찌 내 울레를 선포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담느냐 하셨도다 네가 혼계를 미워하고 내 말을 던져 버렸도다 도둑을 보고도 그와 한패가 되었고 간음하는 자들과 어울렸도다 네 입으로 악을 행하고 네 혀로 거짓을 꾸며내며 앉아서 네 형제를 비방하고 네 어머니의 아들을 핏뜯는도다"(시편 50:16-20)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그분께 희생하여 언약을 지키는 자들의 부르심에 주저 없이 응답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언급하거나 그분의 언약에 대해 말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도둑, 사기꾼 등과 어울릴 뿐 아니라 간음에도 가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단순히 죄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악행에 빠지는 자들을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악인으로 간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믿지 않는 세상을 속이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제2장

인간적으로 또는 수평적으로 연결된 몇 가지 신성한 언약

히브리어로 '신성한'은 '이것'을 뜻하며, '티/-오스'로 발음됩니다. 이는 신과 같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챔버스 사전에 따르면, '신성한'은 신에게 속하거나 신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최고의 탁월함을 지닌, 경이로운, 훌륭한, 예지력이 있는, 불길한 예감을 가진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수평적인'은 지평선과 관련된, 지평선과 평행한, 수평적인, 지평선 근처의, 지평선 평면에서 측정되는,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활동의 여러 측면, 동등한 지위나 발전 단계에 있는 여러 집단 간의 관계 등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제가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또는 특정 집단과 맺으신 언약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서 몇몇 개인을 다른 집단의 대표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약은 인류 또는 해당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게, 그리고 그들의 대표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

로 삼아 맺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에는 아담과 온 인류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장 28-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풀과 씨 맺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이 약속들은 (a) 생육하고 (b) 번성하여 (c) 땅을 채우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d)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림으로써 그것을 정복하라. (e) 또한 사람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풀과 씨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 (c) 땅을 다시 채우라는 말씀에 밑줄을 그은 이유는 '다 채우다'라는 단어의 신비를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 채우다'는 것은 다시 채우다, 완전히 채우다, 풍족하게 비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다시 채운다는 것은 이전에 그 땅에 살았던 존재들(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멸망한 후 비어버린 땅을 사람이 다시 채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존재들은 아마도 영들이었을 것이며, 타락하여 무저갱으로 추방되기 전에는 사탄의 지배를 받았고, 그곳에서 악령이나 악한 영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다시 땅을 채우도록 창조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언약"이라는 연결을 통해 인간은 온 땅을 정복하고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한 땅 위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저갱에 보내셨던 다른 영적 존재들처럼 인간을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시거나 관계를 끊으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이 아닌 인류 중에서 새로운 거주자를 계속해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수가 땅을 완전히 채울 만큼 많아지고 의로움으로 땅을 정복할 때까지는 언약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인류의 수많은 대표자들과 언약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언약 백성의 구원을 통해 온 땅을 덮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인간의 끊임없는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간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는 이유입니다. 다윗과 바울이 시편 8편 4-8절과 히브리서 2장 6-8절에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 에덴 동산 동쪽에 정원을 조성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이 정원은 아름다운 교회를 의미합니다(즉, 은혜로만 운영되어야 하므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라도록 허락하신 모든 나무는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즉, 아름답고 즐거운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얼마나 충실하게 그분의 원칙에 순종할지 알아보시기 위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심으셨습니다(창세기 2장 8-17절 참조).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흐르는 강(성령을 상징)으로 적시셔서 동산을 적시셨습니다(즉, 교회에 말씀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따르면, 인간은 언약의 자신의 몫을 다하기 위해 에덴동산을 가꾸고(즉, 중보기도와 거주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지켜야 했습니다(즉, 에덴동산과 거주자들을 보살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경고도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이 언약은 수직적이면서 동시에 수평적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구상하시고, 작정하시고, 실행하셨기 때문에 수직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언약은 아담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수평적입니다. 즉,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일 뿐이며,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분은 그들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26-27).

하나님의 확정된 계획, 즉 삼위일체는 어떻게 인간을, 특히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기로 결정했을까요? 그 답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거처, 즉 영원에서 내려오셔서 셋째 하늘과 땅(훗날 둘째 하늘이 됨)을 창조하셨습니다(창세기 1:1-2 참조). 그 후, 하나님은 루시퍼를 천사들과 그 당시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우두머리로 창조하셨습니다. 루시퍼는 또한 첫째 땅(지금은 둘째 하늘이라고 불림)을 다스리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하늘의 모든 아름다움을 지니고 창조되었으며, 신적인 또는 영적인 생식의 능력까지 포함한 큰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에스겔 28:12-19 참조). 이 신적인 생식을 통해 루시퍼는 첫째 땅에 거주하는 다른 영적 존재들을 창조하는데 참여했습니다. 마치 아담이 자연적인 생식을 통해 땅을 채우도록 인류를 창조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첫 번째 쿠데타를 계획할 때, 영적 존재들과 타락한 천사들의 마음에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창조할 능력은 없지만, 이러한 영적 생식의 능력을 통해 악한 영적 존재들을 인간으로 변모시켜, 자신에게 간구하는 신실한 자들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사야 14장 10-20절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삼위일체의 권능이 그를 하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번개처럼 첫째 땅(즉, 둘째 하늘)으로 내던졌고, 그의 추종자들(즉, 그 땅에 거하는 영적 존재들)은 모두 무저갱에 던져져 악한 영이 되었습니다.

악령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지구가 비어 있게 된 이유입니다.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이 어둠으로 뒤덮였는데, 아마도 당시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서 거두어지자 빛에서 어둠으로 돌아선 사탄의 존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첫 번째 지구의 통치자 직위를 잃고 그 지구가 파괴된 후, 삼위일체는 이제 인간을 자신들(즉, 삼위일체)과 같이 창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그들은 천사들과는 달리 평등합니다. 천사들은 평등하게 창조되지 않았기에 인간 또한 평등해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11절에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한 말을 참조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인류 구원을 위해 종이나 아들의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삼위일체에서 중요한 점은 그분들이 각기 다른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뿐이며, 인격적인 면에서는 한 분의 지극히 높으신 존재이십니다(고린도전서 12:4-12 참조).

6) 그래서 아담은 하나의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여성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브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두 번째 이유는 사탄을 대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 없었으며, 현재 어떤 천사도 사탄의 자리를 대신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탄은 최고위 천사이기 때문에, 그를 넘어하려는 천사는 권위의 통로를 정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천사와 사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보다 더 높은 권능과 권위를 갖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언약에는 남성 아담과 여성 아담이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스릴 권한을 주겠다. 또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 두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들은 땅을 채울 때까지 계속해서 번성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류의 머리인 남성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마치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인류를 땅에서 완전히 멸절시키시는 대신, 여성 아담을 통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기로 하셨습니다. 모든 언약의 근본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며, 그렇기에 모든 언약 관계에는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약 또는 유언은 희생이 드러진 후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가 없는 인간의 희생은 받지 않으십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인간의 희생이란 바로 우리의 의지를 의미합니다(즉,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행할 일이다.

(로마서 12:1)

산 제물이란 간단히 말해, 죽은 동물처럼 아무런 의지나 욕망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일 준비가 된, 제단 위에 올려진 생명이며, 절대적이고 무한한 순종의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환난과 비난, 기근, 박해 등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의지를 절대적이고 무한히 순종하는 마음가짐을 갖추지 못하면, 여러분의 제물은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봉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성경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이루는 데에는 오직 피만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제단 위에 피를 주어 너희 영혼을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는 피가 영혼을 속죄하는 것이니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도 먹지 말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는 자는 끊어질 것이라 하였느니라 (레위기 17:11, 14)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정결하게 되며,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22).

이 피는 인간의 의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육체의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것은 누구든지 자신의 영혼의 몸을 구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주 예수님 발 앞에 자신의 인간의 의지를 내려놓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는 그의 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피만이 인간의 죄를 속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분명한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도록 레마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합당한 심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마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약의 기초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자신이 가진 것과 삶의 즐거움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에게 들짐승과 공중의 새 등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을 잠들게 하신 후, 당신의 선한 뜻에 따라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여자를 창조하시고 주셨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즉, 조력자 또는 적합하고 자격을 갖춘 조력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창세기 2:18-25). 하나님은 날마다 내려오셔서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언약의 의무를 다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금단의 열매를 먹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뜻대로 행하거나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아비와 아들 사이의 언약을 깨뜨리고 벌거벗게 되었습니다(창세기 3:1-11). 이제 그들이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 무화과 잎을 엮어 앞치마를 만들었다(창세기 3:7).

성경에서든 꿈에서든, 자신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죄인임을 깨닫자마자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앞치마(즉, 몸 앞부분을 가리는 허리띠나 천)를 만들어 벌거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혹은 인간의 의로움, 혹은 자기 의로움을 상징하는 이 앞치마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님께서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것입니다.

누더기.

그러나 우리는 모두 더러운 것과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으며 우리는 모두 잎사귀처럼 시들어 버리고 우리의 죄악은 바람처럼 우리를 휩쓸어 가 버렸도다 (이사야 64:6).

아담과 하와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차치하고라도, 진정한 회개와 고백 없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스스로 의를 구하는 행위는 기독교 세계에서 매우 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대한 죄를 짓고, 자신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떤 이들은 회개만 하고 어떤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죄를 다시 짓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스스로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기준을 살펴보십시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행동하지 못할 것이요,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자비를 얻을 것이다 (잠언 28:13).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치유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효력이 있습니다(야고보서 5:16).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모든 불의로부터 (요일 1:9).

당신은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 당신의 치유와 구원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같은 기독교 형제자매들 에게도 회개하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들을 버리십시오(버린다는 것은 버리거나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고백하고 버린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심각한 죄에 빠졌을 때마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버리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악령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책망을 통해 겸손해지게 되므로 치유되거나 해방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성공하거나 번영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로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도살될 크리스마스 염소처럼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마귀가 당신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비참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잠언 28:14, 29:1 참조). 자신의 의를 구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아담과 하와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은 수직적인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아담이 그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셨을 뿐 아니라, 땅을 저주하시고 아담에게 그 땅을 경작하여 스스로 먹고 살도록 하시는 등의 다른 형벌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므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며 빵을 먹으리라. 너는 흠에서 나왔으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다. (창세기 3:17, 19)

아담의 가장 큰 문제는 아내의 악한 조언에 귀를 기울인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옹처럼 아내의 조언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인류는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경고가 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여인에게 가정을 지키고, 그녀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여보낸 원수를 영원히 집에서 쫓아내는 책임을 맡기셨으로써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큰 고통과 임신을 더하여 주리니, 네가 고통 중에 아이를 낳을 것이요, 네 소원은 네 남편에게 있을 것이며,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창세기 3:15-16).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자를 인류의 대표자로 삼아 인류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떻게 이 말씀이나 저주가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이 인류와 맺으신 언약이 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책 1장에서 "모든 수직적 또는 신적 언약에는 기쁨으로서 눈에 보이는 표징이나 상징이 있다"고 언급한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이 남자 아담과 맺으신 언약의 상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하시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그가 잠들었더라 하나님이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 자리를 살로 채우시매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을 통하여 여자를 만드시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부르리니 이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음이나라 (창세기 2:18, 22-2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외로움을 끝내기 위해 그에게 맞는 돕는 배필(즉, 여자)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그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17절에 따라 행동하셨습니다.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이 내용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리셔야 했습니다. 아담이 잠든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뼈와 살로 이루어진 완전한 사람, 즉 오늘날의 예수님으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와를 창조하여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하나님과 남자 사이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아담이 하와의 도움으로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인류 사이의 새 언약이 이제 너의 어깨에 대표자로서 놓였으니, 너는 슬픔 속에서 육신의 씨를 낳아 나와 너와 맺은 언약의 상징으로 삼을 것이며, 그 씨가 너를 도와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러므로 여자가 사탄의 머리를 부수거나, 사탄을 이기거나 굴복시키거나, 사탄을 다스리려면, 슬픔을 품고 자녀를 낳아야 하는데, 이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새 언약의 상징입니다. 또한 여자는 필요한 모든 것을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며, 남편은 여자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여자는 승리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새 언약이 인류의 대표자인 여자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훨씬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배교한 딸아,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돌아다닐 것이냐? 여호와께서 땅에 새 일을 행하셨으니, 여자가 남자를 에워쌀 것이라 (렘 31:22).

여기서 '여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벨(Cêbel)'이며, '케벨'은 짐, (비유적으로) 부담, 책임을 의미합니다. 챔버스 사전에 따르면 '나침반(compass)'은 '돌아가다', '돌리다', '포위하다', '붙잡다', '이해하다', '달려내다', '달려내다', '연다', '계속하다', '구부리다', '굽하다'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즉, 영적으로 여성은 단순히 아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여성적인 면, 남성의 약한 부분, 혹은 젊은 남성을 의미하며, 나이 든 남성이 타락한 후에 짐을 짊어지고 책임을 지는 존재, 영적으로 주도권을 잡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나이 든 남성을 둘러싸고, 붙잡고, 이해하며, 변화를 일으키도록 돕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통해 인류의 첫 번째 피조물인 나이 든 남성을 통해 이루셨을 일을 먼저 성취하고 언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와 언약을 맺으신 후, 히브리서 9장 15-1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언약을 매우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희생 제사와 피 흘림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아마도 두 마리 이상의 동물을 죽여 그 피를 사용하여 아담과 하와의 죄를 사하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창세기 3:21).

하나님께서 죽이신 이 동물들의 가죽은 아담과 하와를 위한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사한 이 동물들의 피 흘림은 그들이 주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해 주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에덴 동산 밖이었습니 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어떤 희생 제물도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영광 가운데서 피로 그 언약을 확증했습니다. 이것은 "연장자가 젊은이를 섬긴다"는 규정이 인간의 타락 이 후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젊은이가 연장자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 후 에 연장자를 원래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첫째가 될 것이다"(마태복음 19:30, 막상막하 10:31)라고 말씀하신 이유입 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는 사람은 오른손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항상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즉 자연적으로는 형이 이 자의 몫이어야 하지만, 형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과 그 언약에 뿌리를 둔 양자됨의 율법에 따라, 오른손 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동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통해 형의 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형을 하나님의 원래 계획으로 인도하십니다. 앞 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동생, 즉 여자와 맺으신 언약의 상징적인 원리는, 여자가 슬픔 속에서 육신의 씨(즉, 남자 아이)를 낳아 자신을 위 해 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녀 아담 모두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원수에게 힘과 권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

첫 번째 지구가 멸망한 후,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은 모든 생물과 함께 새 땅, 즉 현재의 땅으로 왔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 족에게 베푸신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주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를 가져다가 그 제단 위에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는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치지 않겠다.' (창세기 8:20-21)

창세기 6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께 죄를 짓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 슬퍼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자신의 말씀을 잠시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인간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멸절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의 지시에 따라 살면서 죄악된 인간과 그들의 피조물을 이 땅에서 번성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자비로 아담을 통해, 그리고 나중에는 하와를 통해 인류와 맺으신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그의 여덟 가족은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에 감사하여 노아는 제단을 쌓고 가장 좋은 짐승과 새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만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나는 그것이 합당한 제물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가 제물로 바친 모든 것은 정결했고, 그 제물에는 새 땅으로 인도하는 피가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법을 아는 사람과 그의 가족을 찾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대표자로 삼아 인류뿐 아니라 모든 살아 있는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셨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이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홍수가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과 맺은 언약의 표징이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리니 이는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내가 구름을 땅 위에 덮을 때에 그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홍수가 되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보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창세기 9:11-16).

인류를 대표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더 나아가 인류와 모든 생물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 하나님과 모든 생물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의 주된 목적은,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로 영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정복하며 온전한 사람(즉,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으로 모든 피조물, 심지어 사탄까지 다스리기로 결심한 인류의 구원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땅과 모든 생물의 멸망을 유보하는 신성한 명령입니다. 땅을 채우고 정복하며 사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이 무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구원하신 수만큼 번성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한번 땅에 쏟아져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주자들의 운명에 맡겨두셨다고 생각하거나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승리자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둘째 하늘로 올라가 사탄과 그의 무리를 이 땅으로 내쫓을 어린 아이들의 무리가 있을 것이며, 남겨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 모든 피조물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다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피조물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므로 정해진 때까지는 아무리 많은 비나 홍수도 땅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는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려 땅을 정복할 자들이 완전히 구원될 때까지는 땅이 다시는 파괴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맺으신 언약

시리아 사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아버지 테라, 그리고 다른 친척들과 함께 오늘날의 이라크에 해당하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며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1-3).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조상의 집과 친척과 고향을 떠나 알려지지 않은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와 그의 자손을 축복하시며 그의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에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조상의 집과 친척과 고향의 문화와 전통을 모두 버리고 알려지지 않은 땅, 곧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떠난 후, 겸손과 겸허, 순종, 복종 등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떠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께 충실해야 합니다.

당신이 뒤에 남겨둔 전통과 문화로 돌아가십시오. 이러한 기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며, 당신의 모든 대적의 적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사실일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습니다(창세기 15:1-7).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는 것이었음을 상기시켜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의심하며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알 수 있습니까?"(창세기 15:8).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굳건히 하자"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져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하셨습니다.

내게 삼 년 된 암소 한 마리와 삼 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삼 년 된 숫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다가라. 아브람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가운데를 나누어 서로 마주 보게 놓았으나 새들은 나누지 아니하였다. 새들 (악한 영들) 이 그 사체 위에 내려앉자 아브람이 그것들을 쫓아냈다. 해가 질 무렵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들었고, 보라, 큰 어둠의 공포가 그에게 덮쳤다. 그리고 그가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며 사백 년 동안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을 확실히 알라.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요,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보라, 연기가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등불이 그 사체들 사이를 지나갔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니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15:9-18).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최종적인 약속은 언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언약은 최종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일단 맺어진 언약은 파기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만약 파기한다면 언약을 어긴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 더 이상 미래 시제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대신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문제를 최종적이고 영원히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더 큰 분을 두고 맹세합니다. 확증하는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다툼을 끝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그분의 계획의 불변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확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굳건한 위로를 주시게 위함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닻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며,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6:16)

19).

분쟁, 의심, 불신, 불안, 불충실에 대한 두려움의 종식은 언약에 있습니다. 언약이 맺어지고 확증되면,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강력한 위로가 되고,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닻(즉, 안정, 힘, 안전을 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방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잡아 두 조각으로 나누라고 명하셨을 뿐 아니라, 창세기 15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제물을 먹으러 오는 새들(정사와 권세, 또는 다른 종류의 악령들)을 쫓아내는 것은 아브라함의 책임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칠 동물을 정하셨지만, 언약이 최종적으로 맺어질 때까지 그것들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아브라함의 몫이었습니다. 기독교 세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도구들을 선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어떤 이들과는 이미 언약을 맺으셨고, 또 어떤 이들과는 아직 언약을 맺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은 누구나 악마를 대적하고 세상과 그 체계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음으로써 악마가 자신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새들, 곧 악령에 사로잡힌 새들이 제물을 먹으러 와서 제사를 방해하고 아브라함이 추수하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언약의 유익을 누리십시오. 마찬가지로, 마귀가 보내어 여러분이 언약을 이행하거나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새나 권세와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몸을 먹으려 합니다(즉, 세상의 것들을 탐하게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를 희생하기를 거부하게 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여러분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주어진 유익을 빼앗기게 됩니다. 의심, 불신, 두려움에 얼마나 많이 시달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몸을 희생 제물로 온전히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성숙하고 헌신적인 신자로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영적 경험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의 후손인 우리 각자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 아브라람에게 깊은 잠이 들었고, 보라, 큰 어둠의 공포가 그에게 덮쳤다.

해가 지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어둠의 시기를 거치는 영적 성장의 과정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며, 우리를 겸손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17절에서 또 다른 신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진 아브라함이 극심한 고난을 상징하는 연기 나는 용광로를 경험하며 깊은 영적 잠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만 사라질 수 있는 완고한 악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것은 바로 타오르는 등불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등불은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시험하고 정련시키시므로써 우리를 귀한 금속이나 존귀한 그릇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귀한 금속이나 존귀한 그릇은 강렬한 열이나 연소 없이 결코 정련될 수 없는데, 시련, 박해, 환난 등은 바로 이러한 열과 연소를 상징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당신이 보이는 반응이 당신의 최종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고난의 용광로와 같은 곳에서 수치스러운 그릇들은 드러나는데, 그들은 대개 그곳을 떠나 도망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성공한 후에야 18절 말씀, 즉 "내가 이것저것을 네게 주었다"는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다시 말해, 언약 관계의 약속은 극심한 고난 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순종이 온전히 보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 안에 있던 쪽정이나 우상이 사라지고 귀한 장식품이나 그릇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모든 언약에는 상징적인 표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는 포경수술, 즉 할례가 그 표징입니다.

이것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맺은 나의 언약이니, 너희는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 아이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포경수술을 해야 한다.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다. 너희는 태어난 지 여덟 날 된 아이부터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모든 세대의 남자 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나 돈으로 사들인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닌 이방인에게서 산 자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자나 돈으로 사들인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나의 언약은 너희 살에 새겨져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아이는 포경수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영혼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는 나의 언약을 어긴 것이다. (창세기 9:10-14)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맺으신 언약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에 따라, 세상 어느 곳에 살든 포경수술을 하지 않았거나 몸에 이 상징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7장 23-27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상징들은 언약이 확정된 후에 생겨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장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과 맺은 언약과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 사이의 관계.

저는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도록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히위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도록 허락하셨는지에 대해 자주 읽고 궁금해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지 말라고 경고하신 민족 중 하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주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눈에 쉽게 띄지 않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더 깊은 이유가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밝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이 신비가 펼쳐지는 과정을 따라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열려 있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에서의 아들들과 파단아람에서 만나 화해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왕위를 찬탈한 사건으로 인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두 가문은 그곳에서 화해했습니다. 그 후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의 성읍인 살렘으로 가서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밭을 얻어 자신과 가족을 위한 천막을 치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파단아람에서 가나안 땅 세겜의 성읍 살렘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밭 한 조각을 사서 백 세겜에 장막을 쳤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창세기 33:18-20).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이 자신이 누구인지 매우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그리고 자신과 아들들이 할례라는 언약의 상징을 포경수술로 받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항상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성읍(진영 또는 체제)이 아닌 들판(구별 또는 시온의 상징)에 땅을 산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의 천막집과 여호와의 성전을 들판에 세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요구하신 구별을 계속 지키므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에서 나중에 밝혀질 또 다른 비밀은 야곱이 하몰의 자손에게서 백 세겜에 그 들판을 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수에서 100은 선택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땅을 상속받도록 신성하게 선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후에 행한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그 땅에 거주하도록 신성하게 선택되었음을 뜻하셨습니다. 땅을 매입했다는 것은 그들이 노예나 종으로 신성하게 사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의 자손이 세겜 사람들과 접촉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이는 당시 살렘이라고 불렀던 세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지상에서 그분의 (하나님의) 본부가 될 것이라고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분께서 계획하셨거나 의도하셨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강제로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세겜 자손을 하나로, 나아가 함께 연합시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땅을 상속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 그 땅의 왕 하몰의 아들 히위 족속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고 그녀를 데려다가 동침하여 더럽혔다. 그러나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에게 친절하게 말했다.

세겜이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이르되 이 아가씨를 내게 아내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야곱은 세겜이 그의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그의 아들들은 들판에서 가축들과 함께 있었다. 야곱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히 있었다 (창세기 34:1-5).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히위 족속이었으나, 세겜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세겜의 왕이자 하몰의 아들인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가 들판에 있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나와 그 땅의 여인들을 구경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데려가 동침하여 더럽혔습니다. 여기서 '데려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카흐'이며, '데려가다', '받아들이다', '가져오다', '사다', '끌어가다', '끌어내다', '가져오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데려가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겜과 디나 사이에 일어난 일은 강제가 아니라 양측의 정욕과 유혹에 의한 행위였으므로 강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들판에 살고 있었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 땅의 주민들은 성읍에 살고 있었습니다. 디나가 성읍의 삶과 사람들을 탐내지 않고 그들과의 분리된 삶을 지켰더라면, 세겜 왕은 그녀를 음욕으로 바라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더군다나 그녀를 더럽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시온에서 주님께 구별된 남은 자들에게 심각한 경고가 됩니다. 진영이나 체제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탐내거나, 그 체제로 돌아가고 싶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통치자와 그의 하수인들에 의해 다나처럼 더럽혀지고 순결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세겜은 디나와 결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3절과 4절에서 그의 마음이 디나에게 달라붙었고 세겜이 그녀를 사랑하고 친절하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의도는 단순히 그녀와 함께 있으면서 더럽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 이전에 두 사람 사이에 결혼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세겜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혔다고 믿었던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세겜이 당신들의 딸을 사모합니다. 부디 그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들도 우리와 존인하여 당신들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도 당신들의 딸들로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것이며, 그 땅이 당신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거주하며 장사하고 재산을 모으십시오." 하니,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당신들의 딸을 사모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살며 그 땅을 차지하여 그 땅에서 거주하며 장사하고 재산을 모으십시오." 하니,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당신들의 딸을 사모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살며 그 땅을 차지하여 당신들의 재산을 모으십시오." 하니,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당신들의 딸을 사모합니다. 부디 그 딸을 내게 주십시오 ...

(창세기 34:8-10)

이는 하몰과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다. 그들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 결혼을 받아들인다면 이스라엘과의 혼인 및 국제적 관계의 문이 열리고, 양국의 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무역 관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어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같은 땅에서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거짓으로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할례받지 않은 자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자)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우리처럼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딸들을 당신들에게 주고 당신들의 딸들도 우리에게 데려와서 당신들과 함께 살며 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딸을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하물과 하물의 아들 세겜은 그들의 말을 기뻐하였다 (창세기 34:13-18).

“너희가 우리와 같이 되려거든 너희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은, 세겜 사람들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할례를 상징으로 함)을 받아들이고, 서로 결혼하여 함께 살고 한 민족이 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그의 성문 밖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이 들었으며, 그의 성문 밖으로 나가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았다(24절).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하였으니, 그 성읍 성문을 나서서 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하였느니라"라는 이 문장은 모든 남자가 자기 땅의 법을 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자신들의 관습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비롯한 세겜 성읍의 지도자들과 모든 남자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제시한 조건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창세기 17장 9-13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로써 야곱과 그의 아들들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서로 결혼하며, 한 민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희망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제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들 (즉, 세겜 사람들)이 할례 때문에 괴로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 곧 디나의 오빠들이 각자 칼을 가지고 담대하게 성읍으로 들어가 모든 남자들을 죽였다. 그들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칼날로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성읍을 떠났다. 야곱의 아들들은 죽은 자들을 뒤쫓아 와서 성읍을 약탈했다.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양과 소와 가축들을 빼앗았다.

나귀와 들판에 있던 모든 것,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과 어린아이들과 아내까지 모두 사로잡아 갔고, 집 안에 있던 것까지도 모두 약탈하였다(25-29절).

시므온과 레위는 언약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큰 분노에 사로잡혀 칼을 들고 세겜 성에 들어가 할례를 받았지만 아직 피부에 종기가 남아 있던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세겜의 집에서 그의 누이 디나를 데리고 나온 후 성읍을 약탈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세겜 사람들의 양, 소, 나귀, 모든 재산, 어린아이들과 아내까지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녀들이 딸 디나와 하물의 아들 세겜 사이의 결혼 언약과 세겜 사람들과 맺은 연합 언약을 어긴 것에 격노했을 뿐 아니라, 이 일로 인해 세겜 주변에 살던 다른 민족들이 세겜과 전쟁을 벌일까 두려워했습니다. 다행히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베엘로 피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의 만행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노인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마지막 축복과 유언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야곱을 통해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의 언약과 형제애의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저주를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라 그들의 집에는 잔인한 도구들이 있다. 내 영혼아, 그들의 은밀한 곳에 가지 말라. 내 영광아, 그들의 모임에 함께하지 말라. 그들은 분노하여 사람을 죽였고, 자기 뜻대로 성벽을 허물었도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했기에 저주를 받을지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로 나누고 이스라엘 가운데로 흩어 버리리라 (창세기 49:5-7).

저는 "내가 그들을 야곱으로 나누고 이스라엘로 흩어지게 하리라"라는 구절에 밑줄을 그어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야곱은 '대신하는 자'라는 뜻인데, '대신하다'는 것은 내쫓다, 대체하다, 빼앗아 자리를 차지하다, 전복시키다, 굴복시키다, 뿌리 뽑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다',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과 함께 또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누시는 과정에서 그들의 몫이나 유산을 빼앗거나, 전복시키거나, 내쫓거나, 다른 지파가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에 흩어지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거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온 세상에 흩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식을 들었더라 (창세기 35:22)

르우벤은 라헬의 여종이자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함으로써 아버지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고, 이로 인해 장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두 배의 몫을 잃었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의 시작이요, 존귀함이 뛰어나며, 권능이 뛰어난 자니라. 그러나 너는 물처럼 불안정하여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는 내 침상에 올라갔다. (창세기 49:3-4)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죄로 인해 늙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왕권과 제사장직은 두 배의 몫이었는데, 원래는 르우벤이 그 직분을 잃었으므로 둘째 아들 시므온에게 자동으로 주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 역시 이스라엘 자손과 세겜 사람 사이의 연합 언약을 어긴 죄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 그 직분을 잃었습니다. 셋째 아들 레위는 제사장직을, 넷째 아들 유다는 왕권을 받았습니다. 만약 레위에게도 저주가 없었다면 그는 왕권과 제사장직의 두 배를 모두 받았을 테지만, 창세기 49장 6절에서 아버지 이스라엘이 "내 영혼아, 그들의 은밀한 모임에 들어가지 말라. 내 영광아,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제사장직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이나 혼이 그들의 모임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자신의 영광(즉, 유다 지파의 사자, 곧 주 예수)이 그들의 거처에서 벗어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왕권이 제사장직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를 바꾸셨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시므온은 원래 왕이 될 예정이었고, 레위는 제사장직을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르우벤 자손에 대한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건넌뒤셨을 때, 서열상 다음인 레위가 왕위를 계승할 예정이었지만, 그 역시 유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장로 레위는 제사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직은 왕위보다 낮은 직분입니다. 게다가 그의 제사장직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고 구약 언약 시대에 끝났습니다. 어쨌든,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잃은 시므온은 자신의 유산을 받았지만, 제사장직을 받은 레위는 형제들처럼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유산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증명됩니다.

제사장 레위인들과 레위 지파 전체는 이스라엘과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께서 불로 드린 제물과 그분의 기업을 먹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형제들 가운데서 기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다. (신명기 18:1-2)

이것은 야곱(이스라엘)의 두 아들, 곧 히위 족속인 세겜 사람들과 함께 살고, 결혼하여 한 민족이 되고, 당시 할례를 받은 모든 남자를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신 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으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계획은 그들을 인도할 천사에게 맡겨졌고, 천사는 그들이 순종해야 할 몇 가지 엄격한 지시와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 경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천사를 보내어 너를 길에서 지키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그를 조심하고 그의 음성엔 순종하며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음성엔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네 대적들의 대적이 되리라. 내 천사가 너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페리시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 하지도 말라. 오직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의 우상을 부수라. 내가 네 앞에 말벌을 보내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너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신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를 속여 내게 죄를 짓게 할 것이다. 만일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긴다면 그것은 반드시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23:19-24, 28, 32-33).

그리고 이 지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에 언급된 모든 민족들(즉, 아모리 족속, 히타이트 족속, 페리시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뿐 아니라 그들이 차지할 땅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도 언약을 맺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한편, 창세기 34장 29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사로잡힌 세겜 사람들의 어린 자녀들과 그들의 아내들은 자라서 이스라엘 자손과 결혼하여 번성하여 한 민족을 이루었고, 히위 족속의 땅에 있는 기브온이라는 산지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기브온 사람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신비로운 말씀 속에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지시를 전하기 위해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을 때, 그는 예언적으로 그들의 진영에 나무를 베고 물을 끄는 아방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는 모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라. 너희 지파의 대장들과 장로들과 장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너희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너희 진영에 있는 나그네들, 나무 베는 자부터 물 끄는 자까지 모두 다 나와서 서라. (신명기 29:9-11)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여호수아 사령관의 지휘 아래 나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정복을 계속하여 아이를 멸망시켰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동맹을 맺었습니다. 한편, 기브온 주민인 히위 족속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기브온 조상들이 세겜 족속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실현하려 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자손들이 조상들을 멸망시켰던 것과 같은 교활한 방법(하물, 세겜, 그리고 할례를 받은 모든 남자들)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속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지나치게 열성적인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한 공적으로 자신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여, 여호와께 직접 조연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기브온 사람들을 신뢰하여 자신의 생각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구하는 대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기브온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한 일을 듣고, 피를 내어 사신인 척하며 나귀에 낡은 자루를 싣고, 낡고 찢어진 포도주 병을 묶어서 가져왔습니다. 또한 낡은 신발과 해진 옷을 입고, 식량도 모두 말라 곰팡이가 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의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들이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언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매우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음식을 받아먹고 주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평을 맺고 그들이 살도록 언약을 맺었습니다.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들이 히위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지 삼일이 지난 후에, 그들은 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웃이며 자기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것 때문에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두려워 그들을 살려 두겠습니다.

방백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살려 두되,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고 물을 길는 자가 되게 하라. 방백들이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하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날 그들을 회중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고 물을 길는 자로 세웠으니, 그가 택한 성전에서 오늘날까지 그 일을 계속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9:3-9, 14-16, 20-21, 27)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언약의 수호자이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로잡아 가는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시므온과 레위가 이쁜 야곱의 자손들은 교활한 계략으로 세계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을 뿐 아니라, 죽은 자들의 어린 자녀들과 아내들까지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세계 사람들의 후손으로 다시 태어나 정착한 기브온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속여 깨진 언약을 갱신하고, 자신들(즉,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왕국과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에 다시 포함시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사절이라고 주장하며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의 정복을 축하하러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로운 자들의 마음을 타락시키는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교묘하게 유혹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들과 언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선물로 유혹되어 약간의 심문 끝에 동의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부활의 날인 삼일 후, 묻혀 있던 진실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에 거주하던 히위 족속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여호수아 11:19 참조). 진실이 드러나자 기브온 사람들은 멸망을 면하기 위해 자신들을 종으로 삼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회중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모세의 예언을 성취하여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 이스라엘 회중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길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야곱의 아들들이 히위 족속인 세계 사람들을 죽였을 때,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은 살려두고 포로로 잡았습니다(창세기 1:12).

34:29). 그러므로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젊은이들이 자라서 결혼하고 후에 기브온에 거주했던 히위 족속, 즉 기브온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조상인 세계 사람들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맺었던 언약의 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언약을 파기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아굽뿐 아니라 시므온, 레위, 그리고 다른 족장들의 후손이기도 한 이스라엘 자손과 세롭게 언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이 아굽과 그의 아들들과 맺으려 했던 첫 번째 언약을 막도록 허락하신 것은 세겜 사람들이 언약 후에 아굽과 그의 아들들을 노예로 삼으려는 은밀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창세기 34장 23절 참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집트 외에는 노예가 되지 않고,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이집트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므온과 레위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으려는 악한 계획을 막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언약 백성이 불신자들의 노예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당시에는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불렸음)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영원히 이스라엘의 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땅한 방식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린 저주(여호수아 9장 23절 참조)는 하나님의 행위였으며, 아굽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내린 저주, 즉 아굽 안에서 그들이 나누게 될 것이라는 저주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언약을 맺은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그들의 안녕을 위해 힘써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여호수아 10장 1절~끝 참조).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한 벌은, 그들이 마침내 차지한 땅의 모든 주민을 내쫓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사사기 2:1-8). 이스라엘 자손은 훨씬 후에 회막(뜰)을 기브온에 세웠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다윗의 장막은 시온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언약을 가법게 여겨 어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 전,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지나친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싸워 많은 사람을 죽임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사무엘하 21:1-8).

2)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군대 대부분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삼 년 동안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근의 원인을 알게 되었고, 자신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길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끝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들의 요청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느냐? 내가 무엇으로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와 기업 축복하게 하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사울이나 그의 집안의 은이나 금을 받지 않겠으며,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지도 말라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하리라

그들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어느 해안에도 우리가 남아 있지 못하게 하려고 음모를 꾸민 이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의 아들 일곱 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시오.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기브온에서 여호와께 매달아 바치겠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주겠다." (사무엘하 21:3-6)

사울이 저지른 일이 드러나기 전에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하셨습니다. 그 요구는 사울의 가족 중 일곱 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기브온에서 여호와께 교수형에 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어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 닥친 기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의 머리였고, 기브온과의 언약은 온 이스라엘과 맺은 것이었기에, 온 나라는 진실이 드러나고 해결될 때까지 3년 동안 기근이라는 형벌을 통해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과 기브온 사람들 사이의 연합 언약을 어김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전에 자신들이 노예처럼 여기던 사람들에게 기도와 축복을 부탁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맺은 언약을 어긴다면, 그 사람에게 돌아가 회개하고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 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거나 경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와 맺은 언약 중 어긴 것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는 가장이었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세대가 살아생전에 맺었다가 어긴 언약 때문입니다. 이러한 언약이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전의 언약으로 인한 저주와 형벌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다윗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 쓰임 받아 야곱에게 내려진 레위 지파 분열의 저주를 성취했습니다. 그는 레위 자손을 나누어 기브온에 있던 회막과 시온에 있던 다윗의 장막에서 각각 직분을 맡겼습니다(역대기상 23:6-32 참조). 다윗은 또한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제사장 직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아론이 죽은 후 대제사장이 된 엘르아살은 자기 자손 중에서 시온에 있는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 열여섯 명을 얻었고, 이다말은 자기 자손 중에서 회막에서 섬기는 제사장 여덟 명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언약 관계를 맺지 않은 기브온 사람들과 다른 이방인들을 섬겼습니다(역대기상 24:1-31 참조). 회막에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레위 자손들은 기브온 사람들과 다른 나그네들에게 가르침과 복음을 전하고, 육체와 마음의 할례(즉, 물과 성령 세례)를 통해 회개와 회심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기적과 치유와 축사 등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여호수아의 저주가 성취되어 그들은 나무를 베고 물을 걷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써 그들은 온 세상(즉, 이스라엘, 기브온,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사람들에게 회개와 회심(물과 성령 세례 포함), 치유, 축사, 기적 등을 전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정확히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은 하나님의 산수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숫자이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숫자 8은 새로운 탄생 또는 새로운 세대를 의미하며, 이는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두 제사장을 하나로 합쳐 24 장로로 만드실 것을 뜻합니다. 마치 솔로몬이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료했을 때 두 장막을 합친 것과 같습니다.

제4장

신의 보호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몇몇 인간 또는 수평적 언약들

챔버스 사전(Chambers Dictionary)에 따르면 '인간'이란 사람이나 인류에 속하는, 사람과 관련된, 또는 그 본성을 지닌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람의 자질이나 한계를 지닌, 인간적인, 시기심 없이 우월하지 않은, 온화한, 친절함, 인간적인 존재를 뜻합니다. 제가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과 관련된 몇 가지 언약입니다. 즉, 개인과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거나 깨졌을 때 벌을 내리십니다. 언약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자 전 세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떠올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련과 시험을 겪은 후,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요 은혜로 된 것이니 이는 약속이 모든 자손에게 확실히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 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된 자에게도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니라"(롬 4:16).

이로써 아브라함이 율법 백성이든 믿음 백성이든 언약 백성의 육신적 조상이라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아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즉 사라, 하갈, 이스마엘(이스마엘은 이미 아삭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과 모든 종들은 게라르로 가서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라에게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했을 때의 태도와 같았듯이,

그는 게라르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 "그녀는 제 누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게라르 왕 아비멜렉은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데려간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 의로운 민족까지 멸망시키려 하시니까? 그가 제게 '그녀는 제 누이입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녀 자신도 '그는 제 오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한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네가 내게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네가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어라." 그는 예언자이니,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다. 만일 네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 소유의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것임을 알라 (창세기 20:2-7).

이것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만남의 시작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의 삶에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또한 아비멜렉 왕에게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주신 명령을 통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은 생존과 치유를 위해 아브라함의 기도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을 가져다가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보라, 내 땅이 네 앞에 있다. 네가 원하는 곳에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가진 것은..." 하고 하였다.

네 형에게 은 천 냥을 주라. 보라, 그는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너를 가리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그녀는 책망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고쳐 주었고, 그들은 자녀를 낳았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달아 버리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20:14-18).

하나님께서 꿈에서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신 후, 그는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 남종과 여종을 주었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땅 어디든 그의 가족이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사라 또한 아브라함에게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은 천 냥을 받았습니 다. 그 대가로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와 여종들이 불임에서 치유되어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자신이 겪는 문제의 원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부음 받은 종들을 향해 하는 말, 그들에 대한 악한 생각, 그리고 직장, 집, 사업장, 학교, 길거리, 시장, 법정 등에서 그들을 대하는 방식은 자신의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신비주의 집단이나 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보거나 듣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들은 정교회 사제들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들 대다수가 같은 단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교회 사제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규모가 너무 커져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교회들, 그리고 정교회 사제들이 하는 일의 거의 90%를 따라 하는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거부당한 제자들, 즉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신분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알리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소식을 듣고 자기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멀리하라고 경고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마침내 그가 택한 땅에 정착하라고 했습니다. 파라오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참고).

창세기 12장 10-20절에 따르면, 바로는 아브라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병이 나은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은 아브라함의 인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과학자들이 나이 때문에 평생 불임 여성으로 여겨던 사라가 이삭을 낳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이삭이 장성한 소년이 되는 것을 보았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에서 수많은 기적과 축복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총사령관 피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나와 함께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맹세하여 나와 내 아들, 내 손자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대로 너도 나와 네가 거주하는 땅에 은혜를 베풀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맹세하노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우물을 강제로 빼앗아 간 일로 아비멜렉을 꾸짖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나는 모르노라. 너도 내게 말해 주지 않았고, 아직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것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오늘 처음 들었다. (창세기 21:23-26)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이집트에서 쫓아낸 파라오와는 달리,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그들이 자기 땅에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자신(즉, 아비멜렉)과 그의 아들이나 손자,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대해 친절하게 대하겠다는 언약을 맺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자신에게 한 짓을 꾸짖고 사과한 후에야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어린 암양 일곱 마리를 받아라. 이것들이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곳을 브엘세바라 불렀다. 이는 그들이 거기서 맹세했기 때문이다. (창세기 21:30-31)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 곳일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이 요구한 언약을 맺은 곳이었기에 그들의 언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의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유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 곳에서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경고하신 후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 이삭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26:1-6 참조).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아내에 대해 물었을 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조상신이 그를 공격하여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리브가가 그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7절 참조). 이삭이 게라르 사람들에게 한 거짓말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라오와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한 것의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손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결과를 4대까지 겪게 된다는 것이 당시의 논리였습니다. 이삭이 게라르 사람들에게 리브가가 이삭의 누이라고 말한 후, 이전에도 희생자였던 아비멜렉은 이삭과 리브가를 계속 지켜보다가 어느 날 두 사람이 다정하게 놀고 있는 것을 보고는 급히 불러 그들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오래 머물렀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와 동침하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했습니다. "보라, 저 여자는 분명히 네 아내인데, 어찌하여 내 누이냐?"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저 여자 때문에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우리 백성 중 누구라도 네 아내와 동침할 뻔했는데, 그랬다면 우리에게 죄가 돌아갈 뻔했다."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창세기 26:8-11)

한 번 당하면 두 번 조심한다는 말이 있듯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쓰라린 경험에서 교훈을 얻었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자신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삭이나 리브가를 해치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관계가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공격받거나 살해당하는 것으로부터.

야곱 언약 라반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는 에서의 괴임에 넘어가 그의 축복을 얻어내고 외할아버지 베투엘의 집이 있는 파단아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이삭과 리브가)의 지시에 따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하란에서 살며 그를 섬기고, 나중에는 라반의 딸 중 한 명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라반은 그를 기쁘게 맞아들이고 환대했습니다. 한 달 후,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동생이라고 해서 어찌 나를 위해 아무 대가 없이 일하겠느냐? 네 품삯은 얼마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맏딸은 레아요, 둘째 딸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눈망울이 아름다웠지만, 라헬은 아름답고 용모가 뛰어났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당신의 둘째 딸 라헬을 위해 칠 년 동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라반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낫다. 나와 함께 있어라.”라고 말했다. (창세기 29:15-19)

야곱과 라반 사이에 맺어진 첫 번째 언약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야곱은 7년 동안 라반을 충실히 섬기며 언약을 지켰습니다. 7년이 지난 후,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의 몫으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칼로 죽이는 자는 벌을 받는다”는 속담처럼,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속여 가로챈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보다 더 큰 사기꾼인 그의 숙부 라반에게 야곱에게 똑같이 되갚도록 하셨습니다. 라반은 잔치를 베풀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날 저녁, 야곱이 술에 취했을 때, 라반은 야곱이 섬기던 둘째 딸 라헬 대신 맏딸 레아를 데려와 야곱과 동침했습니다. 라반의 이러한 행위는 야곱과의 언약을 어긴 것이었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싸우시고 라반을 벌하시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레아가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 당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속였습니까?” 라반이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맏딸보다 어린 딸을 먼저 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레아의 결혼 기간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나와 함께 앞으로 칠 년 동안 섬기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것 또한 주겠습니다.” 야곱은 그대로 하여 레아의 결혼 기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딸 라헬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창세기 29:25-28).

라반은 야곱에게 칠 년 동안 자신을 섬기게 한 후 라헬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야곱은 레아를 미워하고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 여섯 아들과 한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 주도록 준 여종 질바도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의 여종 빌하는 아이를 낳지 못하자 주인이 야곱에게 주었는데, 그녀도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 주도록 주어졌습니다. 빌하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 라헬도 임신하여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로써 야곱의 자녀는 열두 아들과 한 딸이 되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은 라반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제가 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섬긴 아내들과 자녀들을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당신은 제가 당신을 섬긴 것을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30:25-26)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고, 라반과의 모든 언약을 이행했으므로, 그는 라반에게 가서 아내와 자녀들을 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부분의 주인이나 상사들이 그렇듯이, 그들이 당신이 자기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쉽게 당신을 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눈에 호감을 얻었다면, 부디 머물러 주십시오.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네 품삷을 정해 주면 내가 주겠다." (27-28절)

이에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자신이 오기 전에는 사업이 얼마나 작았는지, 그리고 온 이후로 얼마나 크게 번성하여 많은 양떼를 갖게 되었는지, 또 주님께서 라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상기시키며, 자신도 자신의 사업을 하여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 묻자, 야곱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라반의 양떼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다고 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오늘 내가 네 양 떼를 다 두루 살피면서 얼룩무늬 소와 점박이 소, 갈색 양, 그리고 얼룩무늬 염소를 모두 골라내겠다. 그런 것들이 내 품삷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 품삷을 받을 때가 되어 내 의로움이 나를 위해 증명될 것이다. 얼룩무늬 염소와 점박이 양, 그리고 갈색 양은 모두 내가 도둑맞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라반이 이르되, 보라, 네 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32절)

34).

이것은 야곱이 라반과 맺은 세 번째 언약이었으며, 야곱은 충실히 그 언약을 지켰습니다. 처음 두 가지는 지켜냈지만 라반은 계속해서 그를 속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예언자 에스겔이 예언하지 않았던 그 예언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관을 벗기고 면류관을 내려놓으라. 이것은 더 이상 같지 않을 것이다.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어라. 내가 그것을 뒤엎고, 뒤엎어 버릴 것이다. 그것이 마땅한 자가 올 때까지 그것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그것을 돌려 줄 것이다 (에스겔 21:26-27).

히브리어로 왕관을 뜻하는 단어는 미츠네페트(mitsnepheth)이며, 발음은 미츠네페트입니다. 이 단어는 왕이나 대제사장의 공식적인 터번, 왕관, 보석이 박힌 머리띠, 왕관의 아치, 왕권, 영광의 상징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행하신 일은, 근면하게 종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습관을 가진 수많은 주인과 사장들에게 큰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주인들은 종들의 임금을 바꿔치기하기도 하고, 어떤 주인들은 종들이 실수하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죄를 짓기를 기다리며 정산 기간을 늘린 다음, 아무 대가 없이 해고하거나 쫓아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습관을 가진 주인이나 사장이라면, 이 책을 읽었거나 읽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 라반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재산을 야곱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라반의 왕권을 박탈하고 사업체를 야곱에게 주신 후, 야곱이 꿈에서 계시로 받은 지혜를 실천하기 시작하자 모든 것을 야곱의 뜻대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은 먼저 줄무늬가 있는 숫염소와 얼룩무늬가 있는 암염소, 그리고 흰 털이 섞인 염소와 갈색 털을 가진 양들을 골라내어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들은 이 염소들을 멀리 두도록 하고,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 떼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푸른 포플러 나무와 개암나무, 밤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흰 줄무늬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흰 줄무늬가 더욱 뚜렷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야곱은 양 떼가 물을 마시러 올 때 물통의 홈에 그 막대기들을 쌓아 두었습니다. 그러면 양 떼가 그 막대기를 보고 임신하여 줄무늬, 얼룩, 반점이 있는 소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어린 양들을 따로 분리하여 라반의 양 떼 중 줄무늬가 있는 양들과 갈색 양들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 떼는 따로 분리하여 라반의 양 떼와 섞지 않았습니다. 강한 양들이 임신할 때마다 야곱은 소들이 물통 홈에 있는 막대기를 보고 임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약한 양들은 낳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약한 양들은 라반의 양 떼에, 강한 양들은 야곱의 양 떼에 넣었습니다. 그 사람은 번성하여 가족과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창세기 30:37-43).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이 신비를 배우는 것은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영화, 음란 잡지 등에서 보는 것들이 자신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꾸는 꿈은 그러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이미지들은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사람들은 생각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임신부가 기형아를 출산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지만, 과학자들은 그 원인을 특정 의학 용어로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잉태에 대한 신성한 계시를 주심으로써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잉태와 출산의 신비가 단지 인간이나 동물의 남녀 간의 상관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다스리시는 4차원을 통해, 사람이 보는 것이 마음속에 환상을 형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함으로써 물리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에게 그러하듯이, 이 차원을 거치는 다른 피조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식 과정. 이것이 바로 어떤 남자들이 무자하게도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이나 아내, 가족 중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를 거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이는 아내가 임신 기간 동안 직접 보거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본 사람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밀을 깨닫고 푸른 포플러 나무와 개암나무, 밤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흰색 물감이나 색깔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어 그 안에 흰색이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라반의 양 떼를 위한 물통이 있는 곳에 그 가지들을 꽂아 두었습니다. 양 떼가 물을 마시러 그곳에 모여들었을 때, 얼룩덜룩해 보이는 흰색 줄무늬와 나무 가지, 밤나무 잎들이 양 떼를 적셨습니다.

얼룩무늬가 있는 소들은 동물들의 마음속에 각인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역인 4차원의 작용을 통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라반의 강한 소떼는 결국 줄무늬, 얼룩, 점박이 소들을 낳았고, 이 소들 또한 강했습니다. 야곱은 언약에 따라 이 소들을 데려갔고, 얼룩무늬가 없는 약한 소들은 라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성한 승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라반의 재산을 야곱에게 옮기셨습니다. 충실히 섬긴 종들을 이렇게 대했던 주인들과 사장들은 야곱과 라반의 경험을 본받아 회개하십시오. 가서 당신의 종을 찾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와 맺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모든 자연에 대한 보상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던 지혜를 그에게 주실 뿐 아니라, 이 4차원의 작용을 통해 당신의 사업과 재산을 그에게 옮겨주실 것이며, 당신의 사업과 재산은 초라해 보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성공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백히 드러났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우리 조상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 모든 영광을 차지하였다.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 이전과 같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과 네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1:1-3).

야곱은 장인 라반과 그의 처남들이 자신의 변명 때문에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알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너희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예전처럼 나를 향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도다. 너희도 알다시피 나는 온 힘을 다해 너희 아버지를 섬겼노라. 너희 아버지가 나를 속여 열 번이나 내 품삯을 바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만일 그가 얼룩무늬 소를 네 품삯으로 주겠다고 하면 모든 소가 얼룩무늬를 낳아야 했고, 만일 그가 줄무늬 소를 네 품삯으로 주겠다고 하면 모든 소가 줄무늬를 낳아야 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의 소를 빼앗아 내게 주셨다. 소가 잉태될 무렵 내가 눈을 들어 꿈을 꾸었는데, 보라, 소 위로 뛰어오르는 숫양들이 줄무늬, 얼룩무늬, 회색털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서 내게 말하기를 “야곱아” 하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 그가 “이제 눈을 들어 보아라. 소 위로 뛰어오르는 모든 숫양들이 줄무늬, 얼룩무늬, 회색털을 가지고 있다. 내가 라반이 너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다” 하셨다. 나는 네가 기둥에 기름을 부은 베엘의 하나님이다.

네가 내게 서원한 곳에서 이제 일어나 이 땅에서 나가 네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헬과 레아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에게 낫은 몫이나 유산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나그네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팔고 우리의 재산도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모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행하라 (창세기 31:5-16).

이곳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반의 재산을 넘겨받도록 계시를 주셨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의 상사나 주인이 당신의 성공이나 발전을 시기한다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때가 떠날 때일지도 모릅니다. 상사 여러분, 종이나 직원들의 임금을 바꾸거나, 이 가게나 저 가게로 전근시켜 비참한 삶을 살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성공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공과 발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해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당신은 그들 대신 멸망할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여성분들, 레아와 라헬이 야곱에게 한 대답 중 밑줄 친 부분을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날의 결혼은 성경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혼 여성들이 결혼 생활을 제2의 집으로 여기고, 첫 번째 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혼 생활을 버리고 친정집으로 돌아가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집을 파괴하고 자기들의 간섭에 저항하는 자들의 원수가 될 것이다. 남편의 두 충실한 아내의 입을 빌려 말하건대,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에게 돌아갈 뉘이나 유산이 남아 있겠는가?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 당신은 아버지 집에서 이방인이 되며, 오직 당신의 생각을 말하라고 요청받았을 때에만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당신의 주인(소유주)이 된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야곱은 아내들과 상의한 후, 가족과 가진 모든 것을 챙겨 장인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사흘 후, 라반은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 야곱과 그의 가족을 뒤쫓았다.

라반이 길르앗 산에서 야곱을 따라잡기 일곱째 날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시리아 사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에게 좋은 말도 나쁜 말도 하지 말라 하시니라 (24절).

이것이 바로 언약의 의미입니다. 야곱은 라반과 언약 관계를 맺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도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라반의 마음은 이미 야곱을 해치려는 생각으로 완악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의 언약과 야곱이 창세기 28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통해 야곱을 구원하셨습니다.

22절은 라반의 진노에서 야곱을 구원한 것이다. 이것은 라반이 야곱에게 하려던 일을 고백한 것이다.

내가 직접 너를 해칠 수도 있지만,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에게 좋은 말이나 나쁜 말을 하지 말라 하셨다.

(창세기 31:29)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야곱과의 언약을 여러 번 어긴 것에 대해 벌을 내리셨을 뿐 아니라, 라반이 자신의 의도를 고백하고 야곱과 평화롭게 화해한 후, 야곱과 새롭고 최종적인 언약을 맺음으로써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43-54절 참조).

라합과 이스라엘 정탐꾼들 사이의 언약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사람을 보내 다음 정복지인 여리고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러서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묵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정탐꾼들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는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그녀의 집에 들어온 정탐꾼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사절이나 군사들이 와서 왕의 명령을 전하기 전에, 라합은 정탐꾼들을 집 지붕 위에 숨겼습니다. 그녀는 지붕 위에 가지런히 쌓아 놓은 아마 줄기로 정탐꾼들을 덮어 숨겼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긴 후, 라합은 사절들에게 정탐꾼들이 정말로 집에 왔다가 성문이 닫히기 전에 떠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왕의 군사들은 정탐꾼들을 추격하여 요단 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용사들이 멀리 떠나자, 그녀는 성문을 닫고 지붕 위의 정탐꾼들에게 올라가서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기적과 그들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마친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내 조상의 집에 친절을 베풀고 진실한 증표를 주어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자매와 그들의 모든 재산을 살리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겠다고 여호와께 맹세해 주시오. 사람들이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만일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발설하지 않는다면 우리 목숨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너희에게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겠다. 하니, 그녀가 창문으로 밧줄을 매어 그들을 내려주었다. 그녀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추격자들을 만나지 않도록 산으로 올라가서 추격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숨어 있으라. 그 후에 길을 가거라.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맹세하게 하신 이 맹세를 어기지 않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당신은 우리를 내려주셨던 창문에 이 붉은 실을 묶어 두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가족을 당신 집으로 데려오십시오. 누구든지 당신 집 문밖으로 나가 거리로 나가는 자는 그의 피가 그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며, 우리는 죄가 없을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당신과 함께 집에 있는 자를 해치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한다면,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맹세하게 하신 맹세를 파기하겠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돌려보냈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창문에 붉은 실을 묶었습니다. (여호수아 2:1-21)

이 성경 구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라합처럼 언약 관계를 맺는 법을 알고,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언약의 맹세에 따른 율법을 지키는 불신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실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여리고에서 유명하고 인기 있는 창녀였던 라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의 멸망은 그녀의 매춘 사업의 종말을 의미했기에, 그녀는 정탐꾼들을 왕에게 재빨리 알렸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는 정탐꾼들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부모님과 형제자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가족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보십시오. 만약 그녀가 정탐꾼들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후에 그들이 발각되었다면, 그녀는 그들과 함께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녀의 아버지 집안 전체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미스터리는 스파이들이 내려진 붉은 실에 의해 구조되었다는 점입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마치 죄인들의 마음과 양심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의 피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안에서 구원받으려면 누구든지 라합의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라합이 이미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으며, 붉은 실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마음과 양심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성령께 자신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피로 덮인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약의 영적인 의미는 라합과 그녀의 조상 집안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그 땅을 정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만 창녀 라합과 그녀와 함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 것이다. 이는 그녀가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기를, “창녀의 집에 가서 그 여자와 그녀의 모든 소유를 데리고 나오라. 너희가 그녀에게 맹세한 대로 하라.” 하고 말했다. 정탐꾼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녀의 모든 소유를 데리고 나왔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친척을 데리고 나와 이스라엘 진영 밖에 남겨 두었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의 집안과 그녀의 모든 소유를 살려 두었다. 라합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보낸 사자들을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6:17, 22-23, 25).

당시 여리고에 살던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오직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셔서 회개하지 않은 수십억 명의 영혼이 지옥불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수십억 명의 영혼이 영과 진리로 회개하고 회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모두 멸망할 것입니다.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가족은 정탐꾼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붙잡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 구절에서 밀줄 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진영과 완전히 분리되어 따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독자들은 또한 두 정탐꾼 중 한 명인 살몬이 훗날 라합의 남편이 되었고, 라합은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는 오벧의 아버지이자 다윗의 조부였다는 사실도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리하여 라합이 정탐꾼들과 맺은 언약은 그녀와 그녀 아버지의 집을 구원했고,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골리앗을 물리치는 승리를 주신 후, 사울은 사람을 보내 다윗을 불러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확인한 뒤, 다윗을 자기 집에 살게 하였습니다.

왕궁에 갇힌 다윗은 더 이상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갑옷지기로서 악령이 들릴 때마다 사울을 위해 하프를 연주하러 왕궁으로 오곤 했습니다(사무엘상 16:18-21 참조). 이는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여 두 사람은 사랑의 언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말을 마치자,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사울은 그날 요나단을 데려가서 다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다. 요나단은 자신이 입고 있던 겹옷과 옷가지뿐 아니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도 다윗에게 주었다 (사무엘상 18:1-4).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십시오. 밀줄 친 성경 구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요나단은 왕위 계승자로서 자신의 왕홀을 다윗에게 넘겨주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을 왕으로 택하도록 기쁨 부으셨음을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이 계약은 그들 각자에게 특정한 책임을 부여했고,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서로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골리앗을 죽인 후에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다윗이 수만 명을 죽였다고 칭찬하며 사울에게는 천 명을 바쳤습니다. 한편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다윗 살해 시도를 계속해서 좌절시키며, 아버지의 비밀 계락을 다윗에게 폭로했습니다(사무엘상 19:1-19, 20:1-42 참조). 요나단은 앞서 사울이 사무엘상 19:6에서 맹세한 대로 다윗에게 사울이 그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7절은 다윗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악령이 다시 사울에게 임하여 다윗의 목숨을 노리기 시작했을 때, 사울은 다윗이 요나단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계획을 요나단에게 숨겼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요나단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획을 숨겼다고 요나단에게 말하자, 요나단은 다윗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일이나 사흘째 되는 날에 내가 아버지께 연락하여 다윗에게 은혜가 임하는지 여쭙어 보고, 만일 내가 사랑을 보내어 주께 알리지 아니하거든, 여호와께서 요나단에게 그보다 더 큰 벌을 내리시되, 만일 아버지가 주께 불진실하거든 내가 주께 알리고 주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듯이 나와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주의 은혜를 내게 보여 주어 내가 죽지 않게 하시고, 또 내 집에서 주의 은혜를 영원히 끊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땅에서 완전히 멸하신 후에도 그러하소서. 그리하여 요나단은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통해 그 은혜를 요구하시리라 하였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에 그에게 다시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을 자기 영혼처럼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상 20:12-17).

요나단은 언약을 갱신하기 위한 맹세에서,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 좋게 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사울이 다윗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울의 마음이 다윗에게 선하고, 악하다면 다윗을 사울의 죽음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마음을 헤아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적들을 멸망시키신 후에도,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그의 집안에도 영원히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8-4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나단은 아버지의 다윗에 대한 음모를 폭로하고 다윗을 궁궐에서 도망치게 함으로써 언약을 지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적들을 멸망시키셨을 때, 다윗 또한 요나단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에 대한 보답으로 요나단의 유일한 생존 아들이자 몸이 불편했던 므비보셋을 불러들여 예루살렘 왕궁에 거하게 하고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사무엘하 9장 1-13절 참조).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집안에서 일곱 아들을 요구하여 그들의 머리를 기브온에서 여호와께 매달아 바치려 했을 때에도, 이는 사울이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 사이에 맺은 형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다윗 왕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 때문에 다시 한번 다윗 왕의 보호를 받았습다.

그러나 왕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살려 주었는데, 이는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맺어진 여호와와의 맹세 때문이었다(사무엘하 21:7).

결국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언약적 합의를 통해, 다윗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요나단을 실망시키지 않았기에 요나단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다윗 앞에서 호의를 얻게 되었다.

제5장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비밀 종교 단체나 결사와 언약을 맺는 것의 결과와 해결책.

네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점을 치는 자, 길흉을 점치는 자, 마술사, 주술사, 신접한 자, 마법사, 강령술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자이기 때문이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런 가증한 일들 때문에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한다.

네가 정복할 이 민족들은 길흉을 점치는 자들과 점쟁이들의 말을 따랐으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신명기 18:9-11).
14).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 중 일부였으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합니다. 점쟁이, 길흉을 점치는 자, 마법사, 요술쟁이, 신접한 자, 마법사, 강령술사 등의 단어들은 모두 사탄의 하수인들과 하나님께서 금하신 점술, 마술 등의 주술 행위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제 오해를 풀기 위해 각각의 의미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통과시키는 행위는 자녀를 우상이나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를 데리고 앞서 언급한 악의 세력의 신전이나 종교 시설로 가서 제물을 바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아이를 그들의 신에게 바치거나, 아이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거나, 아이에게서 악령을 쫓아낸다는 명목으로 행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이의 몸이나 얼굴에 부족의 문신을 새기거나, 허리, 발목, 손목, 목에 구슬을 걸거나,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반지를 끼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합니다. 부모가 알든 모르든 자녀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이며, 아이들을 악마와 계약시키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어떤 악의 세력은 희생자에게 촛불 주위를 돌게 하고, 어떤 세력은 불타는 불 주위를 돌게 합니다. 거의 모든 비밀 결사 단체, 대학교와 전문대학 같은 고등 교육 기관, 사범대학, 그리고 최근에는 일부 중등학교에서도 이러한 의식을 통해 신도들을 입단시킵니다. 이 의식을 통해 신도들은 불을 다스리는 영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되며, 모든 제물과 주문, 의식을 통해 그 영을 숭배합니다.

점술은 초자연적인 수단, 본능적인 예지, 예측, 추측을 통해 과거, 미래 또는 숨겨진 것을 알아내려는 기술 또는 행위입니다. 점술가들은 점을 치기 위해 이미지, 콜라넷, 신비로운 거울, 구슬, 보석 등 다양한 물건을 사용합니다. 시간의 관찰자 또한 점을 치는 사람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역할을 합니다.

구름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점성술사들도 마찬가지로 별을 관찰하고 행성에 깃든 영혼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들은 신문에 매일 게재되는 12궁도 별자리를 바탕으로 운세를 분석하는 예언가들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별자리를 읽거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악마의 활동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법사는 사람을 홀리거나, 매혹하거나, 마법을 사용하거나, 주문을 거는 사람입니다. 마녀는 특히 여성이 악령과의 접촉을 통해 초자연적이거나 마법적인 힘과 지식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주술사란 신비로운 힘을 이용하여 사람을 매혹시키거나, 유혹하거나, 개인적인 매력을 느끼게 하거나, 특히 행운을 가져다주는 것, 예를 들어 부적, 운율적인 문구, 탈리스만, 팔찌에 착용하는 장신구 등을 통해 거부할 수 없이 기쁘게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주술은 마법으로 사람을 조종하거나, 비밀스러운 영향력으로 제압하거나, 즐겁게 하거나, 유혹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령과 소통하는 자'는 복화술을 뜻하는 단어로, 악령에 사로잡힌 마녀나 마법사가 마치 다른 곳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말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 인간의 뱃속에 영을 불러넣어 말을 합니다. 마법사는 마법이나 주술을 행하는 사람, 요술사, 마술사, 기적을 행하는 사람, 전문가, 천재, 점쟁이 등을 가리킵니다. 강령술사는 주문을 외우는 사람, 영매, 강령술사, 또는 죽은 자의 영혼으로 나타나는 악령을 불러내어 과거와 미래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언급된 모든 방법들, 그리고 언급되지 않은 더 많은 방법들, 즉 제물, 헌신, 치유, 보호, 승진, 성공, 권력, 인기 또는 미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신, 우상 또는 악령과 상담하는 모든 방법은 모두 오컬트적인 조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악령을 달래기 위해 바치는 제물을 통해 신, 우상 또는 죽은 자의 영혼으로 나타나는 악령을 불러내어 희생자들에게 말을 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주님께 가증스러운 존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장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비밀'과 '컬트'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챔버스 사전에 따르면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감춰진 것, 발견이나 관찰로부터 보호된 것, 드러나지 않은 것, 확인되지 않은 것, 숨겨진 것, 은둔한 것, 난해한 것, 신비로운 것,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 공개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목적, 방법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컬트'는 종교적 신념 체계, 종파, 이단적이거나 거짓된 종교, 특정 인물이나 사상에 대한 지나친 숭배, 그러한 숭배를 불러일으키는 인물이나 사상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제가 '참된 종교'라고 부르는 것을 세상이 일반적으로 정통이라고 믿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정통'의 의미도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통이란 교리에 있어 건전한, 특히 종교에서 확립된 교리나 의견을 믿거나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등과 같은 개신교 교파들이 가톨릭의 신비주의적 관행에 항의하여 정통 교회를 세우고 건전한 교리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통 교회가 세워진 지 3~4세기가 지난 후, 오늘날 가톨릭으로 알려진 교황청 교회는 자신들의 대리인들을 통해 이러한 정통 교회나 개신교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신비주의적 관행들을 다시 도입했습니다. 오순절 교회나 은사주의 운동도 건전한 교리로 시작했지만, 오늘날 90% 이상이 정통 교회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따라서 비밀 종교는 그 운영 방식이나 관행이 공개되지 않거나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숨겨진 종파 또는 거짓 종교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습니다.

발각이나 관찰로부터 보호되거나, 숨겨져 있거나, 드러나지 않은 등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파의 일원이 되려면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언약 관계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탄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인 것입니다. 제 책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경주 (보좌를 향한 자격)"에서 언급했듯이, 언약이 있는 곳에는 희생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나 영의 영역에서 받아들여지는 모든 희생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선을 행하거나 선한 계획을 시작할 줄 모르는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모든 선한 일의 모조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람들이 그의 비밀 집단에 들어가려면 그와 언약을 맺음으로써 살아 있는 사람의 피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때에 흘려야 할 자신의 피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입니다. 왜 정해진 때에 사람의 피를 흘려야 할까요? 이는 언약에 있는 법칙 때문입니다.

"유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유언자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 효력이 생기고,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16-17)

성경적으로 언약은 유언과 같은 의미이며, 어떤 언약이든 효력을 발휘하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만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이 땅의 육신을 대속물로 사용하여 천상의 육신, 즉 영혼의 몸을 구속하시고, 인류와의 언약을 굳건히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채우려는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인류와의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첫째는 유언자로서 자신의 죽음의 값을 치르시고, 둘째는 사람을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자녀들이 살과 피를 함께 나누었으므로 그분도 또한 같은 것을 함께 나누셨으니 이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평생 종살이하던 자들을 해방시키시려 하심이라. 진실로 그분은 천사의 형체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취하신 것이니라" (히브리서 2:14-16).

하나님께서서는 천사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사들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고, 천사들은 죄를 사하는 데 필요한 피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언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살과 피(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고, 인간의 피는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죽음의 피를 통해 희생 제물을 바치심으로써 죽음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인류를 속박해 온 사탄을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인간을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의 낙원으로 돌아가 창조주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지금 죽음의 피를 바쳐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없으며,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인간에게 구원의 수단이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피의 상징인) 주 예수님께 내려놓음으로써, 그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즉 죽음으로 육신을 버리고 영혼의 몸으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지킬 때까지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원리를 모방하여 악랄하게 자신의 비밀 결사 단체에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밀 결사에 들어가기를 열망하거나 이미 들어간 사람들은 언약을 통해 입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그러한 언약에서는 희생 제물로 인간의 피를 바쳐야 하는데, 이 피는 그들의 비밀 서약을 확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 피는 또한 구성원들의 의례용품, 반지, 목걸이, 옷, 비밀 방에 보관하는 뼈 또는 기타 소지품 등을 봉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또는 대부분의 비밀 결사나 종교 집단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그 피를 마시고, 입회식에 사용되는 피를 제공하는 사람은 비밀 서약을 합니다. 즉,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 자신들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고, 살아 있는 동안 그 물품들을 불태우거나 어떤 식으로든 파괴하지 않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그가 물품들을 태우거나 파괴하면 며칠 안에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비밀 결사나 종교 집단의 구성원이 비밀 서약을 어기면 그 사람은 죽음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비밀 결사나 종교 집단에 입회시키는 악마적인 방법은 이 외에도 많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계약을 통해 서약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서약은 항상 피로 봉인됩니다. 왜 피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심판받은 적이며 불타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질 운명이고,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거처인 천국에 다시 갈 기회가 결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온 세상, 즉 인류가 자신과 함께 지옥에 가지 않더라도 천국보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더 높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성경 구절의 의미를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너희에게 피를 주어 제단 위에 바르게 하였으니 이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려 함이다. 피가 영혼을 속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중 누구도 피를 먹지 말라 너희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도 피를 먹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너희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 중에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으면 그 피를 쏟아 버리고 흠으로 덮어 두라 이는 모든 생물의 생명이고 그 피는 그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 이는 모든 생물의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끊어질 것이라 (레위기 17:11-14)

"그러나 생명이 있는 고기, 곧 피가 있는 고기는 먹지 말라" (창세기 9:4).

레위기 구절을 읽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라고 선불리 결론짓는 사람들의 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창세기에서 이 구절을 인용해야 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구절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당시 인류의 대표자인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사탄은 이 신성한 율법과 그것을 어겼을 때의 결과를 알고 무장하여 온갖 세속적인 선물이나 야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조종하여 율법을 어기도록 합니다.

사탄은 온갖 가증스러운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자신의 비밀 결사단에 속한 자들이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들을 맹세나 서약을 통해 밋에 걸리게 합니다. 어떤 비밀 결사단에서는 새 회원이 사람의 피를 흘리며 입회하거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이때 사탄은 그 결사단을 이끄는 주요 인간 하수인들을 통해 회원에게 희생 제물을 직접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술적인 조작을 통해 희생자의 영혼을 불러내어 주술 거울이나 주술실에 나타나게 하고,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만약 그 희생자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면, 나중에 그 영혼이 육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악마가 저지르는 이 사악하고 가증스러운 행위의 본질은, 먼저 피를 흘렸거나 지금 흘리려고 하는 당신에게, 피를 흘렸거나 인육과 피를 먹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악마는 그의 하수인들을 통해 당신에게 파멸의 표식을 새기고, 영적으로 그들의 마법 감옥에 가두어, 당신이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을 이루도록 다른 악행들을 저지르게 할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파멸이나 죽음의 때에 악마는 당신을 죽일 것이고, 당신을 왕이나 여왕으로 만들거나 그의 왕국에서 중요한 지위를 주겠다는 그의 모든 약속이, 당신이 그의 왕국이 끝나는 지옥에서 이를 갈며 고통스러워할 때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어떤 비밀 결사나 사이비 종교들은 인간의 영혼을 희생시키는 피의 제사를 직접적으로 치르지는 않더라도, 충성 서약이나 주술적인 내용을 피로 봉인하여 당신과 그들 사이의 언약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가 이 행위로 무엇을 이루었는지 보라. "네 입의 말로 네가 밋에 걸렸도다"(잠언 6:2). "밋에 걸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코쉬(yâqôsh)이며, 발음은 야코쉬(yaw-koshe)로, "밋을 놓다"라는 뜻입니다.

챌버스 사전에 따르면, '밋'은 울가미, 함정, 유혹, 얽매임, 도덕적 위험, 밋에 걸리게 하다, 밋으로 끌어당기다, 밋으로 제거하다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신이 악마의 밋에 걸렸거나, 입으로 맹세한 충성 서약으로 악마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고, 악마의 포로 또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당신은 어둠의 왕국을 확장하고 사탄의 제자를 얻기 위한 온갖 악행에 가담하게 되며, 심지어 당신의 조종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당신은 악마가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싸우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세상이 종교적이고 교회에 다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급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물세례(침례)와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 뿐,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비록 많은 불신자나 교회 신자들 중에는 대다수의 신자들보다 더 친절하고, 더 종교적이고, 더 진보적이며, 훨씬 더 나은 행실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근본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하고, 들어가려면 물(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 역시 여전히 죄인입니다. 악마에게 사로잡혀 재물, 승진, 보호, 인기, 권력 등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영혼을 팔아넘긴 자들 중 일부는 원하는 것을 얻은 후 악마를 속이려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이 죽거나 제물로 바쳐질 때가 되면, 겉보기에는 그들이

돈이나 권력 등을 얻기 위해 서약을 하고 수명을 단축했거나, 5년마다 한 번씩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시켜야 하는 의식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은 서약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흰옷을 입은 교회나 오순절 교회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더 큰 어둠의 세력에 의해 조종되는 교회와 같은 어둠의 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가 결국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조종에 시달리게 됩니다. 진정한 오순절 교회를 운영 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도 문제 해결에 실패하는데, 이는 일부 죄만 고백하고 일부는 숨기거나, 일부 주술 관련 자료를 파괴하고 일부는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주술 행위나 조작을 통해 부를 축적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 그 돈이나 지위를 포기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할 때, 악마는 당신이 여전히 그의 돈이나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당신과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악마는 그의 하수인들과 함께 당신을 비참한 삶으로 몰아넣다가 결국 죽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일부 은사주의 목사들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믿거나 인용하면서 재산이나 지위를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린도후서 5:17).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거둬내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이나 피 묻은 돈, 그리고 지위도 모두 없어진다고 믿습니다.

변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모든 재산이나 피 묻은 돈, 기타 소유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거나, 그러한 신비로운 행위를 통해 얻은 지위를 포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새롭고 영원한 언약을 맺지 않는 한,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쓰도록 영감을 주신 것도 같은 성령의 감동 때문이며, 교회가 이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으니 이는 그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라"(롬 8:1).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번역본들은 대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구절을 생략하지만, 1611년에 출판된 킹 제임스 성경(KJV)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성경으로서, 불의를 기뻐하는 무지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행한다면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이 구절을 포함시켰습니다. 바울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갈라디아서에서 교회가 지켜야 할 본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분명히 드러나니 곧 간음, 음행, 더러움, 음란, 우상 숭배, 마술, 미움, 분쟁, 시기, 분노, 다툼, 반란, 이단, 질투, 살인, 술 취함, 방탕함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했듯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5:19-21)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회심 후에도 부정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나 지위 등을 버리지 않고 간직한다면, 당신은 부정확한 행위, 음란, 우상숭배를 통해 스스로 공격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며, 세상적인 욕심을 품기 전에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악한 영들이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당신의 그리스도인 생활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할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악마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박?

사도 요한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며 그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음이라"(요한복음 3:18).

바울과 실라는 간수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들,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받을 것입니다."(사도행전 16:30-31)라고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마귀의 덫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방법은 마귀의 비밀 결사나 단체에 가입하여 마귀와 언약을 맺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가입했다면, 당신은 이미 마귀의 덫에 걸린 것이며, 긴급하고 심각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입니다. 단순히 회개하고 오순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마귀가 당신의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당신이 마귀의 비밀 결사에 가입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피를 흘렸을 때 영적으로 받은 사형 선고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마귀가 당신을 죽이는 데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믿음을 잃게 만들도록 삶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솔로몬의 권면을 따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냥꾼의 손에서 노루처럼, 사냥꾼의 손에서 새처럼 너 자신을 구원하라"(잠언 6:5).

이 사냥꾼이나 새 사냥꾼, 즉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모든 오컬트 관련 자료를 하나님의 기쁨 부음 받은 사람에게 불태우도록 말기고, 사탄적인 과정을 통해 얻은 모든 파나 부정확한 재물을 포기하고, 모든 오컬트 관련 직책에서 물러나고, 주 예수님께 완전히 회심하는 것, 즉 마귀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과 새롭고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며, 그분은 당신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그분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 부음 받은 사람을 통해 당신을 올바른 인도와 훈련 아래에 두실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주 예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그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과 이 언약을 맺고자 한다면, 이 책에서 "우리 주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 사이의 언약"에 대해 다루는 장을 참조하여 지침을 받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주님과 맺은 언약, 서약 또는 비밀 맹세를 어긴다면, 만약 여러분이 이 책의 뒷장에서 설명할 주님과 교회의 언약에 대한 과정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과 새롭고 영원한 언약을 맺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마귀와 직접적인 싸움에 휘말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큼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지배하는 성령의 법칙은 언약을 어긴 자는 모두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희생자들이 자신과 맺은 언약을 어길 때 이 법칙을 들먹입니다. 마귀와 맺은 비밀 언약, 서약, 맹세를 어기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영들의 아버지(하나님)와 새로운 언약을 맺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주(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을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당신을 멸망시키라고 명하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멸망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하나님의 사자이며,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거나 복수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불 속에 숯을 불어서 불을 붙이는 대장장이를 창조하여 그의 일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게 하였고, 또 내가 파괴하는 자를 창조하여 멸망시키도록 하였느니라"(이사야 54:16).

여기서 언급된 대장장이와 낭비자는 악마이며, 악마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에 석탄을 불어넣거나 신자든 불신자든 그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된 그리스도인,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주님과 언약을 어기면 그 사람은 떠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교회에 어떻게 경고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심판과 맹렬한 진노를 두려워하는 마음뿐입니다. 그 진노가 대적들을 삼켜 버릴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업신여기던 자는 두세 증인 앞에서 자비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물며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영을 모독한 자는 얼마나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는 '복수는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압니다.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10:26-31)

바울은 히브리인들과 온 교회를 권면하면서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때에 깨달음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만일 믿음을 저버리면, 다시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4-6)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 회심하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의 말씀(말씀에 대한 신성한 계시적 지식 안에서 행하는 것)과 다른 천상의 축복을 누린 후에, 고의로 죄를 짓거나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배신자, 언약을 어기는 자,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따르던 모든 은총과 자비를 거두시고 여러분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제 주장을 뒷받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경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이 사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가족과 함께 마법부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강력한 마녀였습니다. 그들은 그 남자의 영혼을 조롱박에 가두어 자신들의 영적 법정이나 센터에 가두었습니다. 문제의 남자는 그 마녀들에 의해 파멸의 표식을 몸에 새겼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여러 교파에 다녔지만 결코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마법에 걸려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로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없었고, 자신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보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기초부터 다시 시작했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한 후, 악마와 맺었던 멍에, 줄, 서원, 언약 등을 끊어내는 축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자신들이 여자들로만 구성된 마법 집단에 속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자신이 속한 마법 집단, 혹은 그 중심지에서 3인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제물로 바치거나 죽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수년간 심한 고통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신 남편의 이름, 재산, 사업 정보를 넘겨주었고, 그 정보는 봉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바나 은행 직원이었던 남편은 은행이 재정난에 빠지기도 전에 해고당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가 되어 거의 거지로 전락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옷과 신발에 모두 저주를 걸었고, 평소 머리를 자를 때 쓰는 성냥개비를 리모컨처럼 이용해 남편을 모든 면에서 조종했습니다. 때때로 주술 의식에서 남편의 다리를 불에 구워 죽이는 형벌을 가했고, 남편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1996년부터 자신의 남편을 데려오기 전까지는 다른 구성원들이 배우자나 어머니에게 살해한 남편과 아들의 피를 마시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다리 통증이 심해지자 그를 데려간 영매가 자신도 모르게 남편을 또 다른 마법 의식에 입문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2002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안에 남편을 제물로 바치기로 맹세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하려던 것이었나면, 남편에게 병을 앓게 한 후 피를 뽑아 자신들의 혈액은행에 보관해 두었다가 결국 남편이 죽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2002년 6월 말경 저를 찾아왔고,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된 후 저는 남편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내려진 죽음의 언약과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모든 고백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성냥개비 외에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의식을 행하거나 모임에 참석할 때는 큰 새로 변신한다고 주장하며 파괴에 필요한 재료들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뜻을 구한 후,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주님의 열굴을 구하고 이름을 바꾸라고, 대출로 산 버스의 명의로 기타 서류도 새 이름으로 바꾸라고, 예전 직장 상사에게 가서 그동안 저지른 모든 사기 행위를 고백하여 배상하라고, 그리고 아내가 마음을 바꿀 때까지 아내의 어떤 지시나 조언도 받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진정으로 회심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그와 그의 가족의 구원을 촉진할 다른 조건들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의 조종에 넘어가 자신의 이름과 가족의 이름을 바꾸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용하던 버스의 정보와 다른 서류들을 바꾸기를 거부했고, 이전 직장 상사에게 가서 배상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아내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들을 사역의 형제자매들에게 소개하지도, 제 휘하의 다른 사역자들과 교체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들에게 직접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그녀가 들어와서 제 휘하의 주님의 양들을 파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에게 이제 떠날 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집트(세상) 대신 바빌론(즉, 오순절 교단)으로 가서 교제하라고 간청했습니다. 만약 그가 우리를 떠나고 싶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계략과 남편의 고집 때문에 그는 돌아왔고, 들었던 모든 진리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아내의 조언에 따라 새 이름을 버리고 예전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2002년 11월 중순경에 일어났고, 그때부터 그의 버스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으며 그는 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2003년 5월경, 그들이 돌아간 지 정확히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죽기 3일 전, 친척들이 그를 병원으로 급히 옮겼는데, 그의 몸에 피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죽을 때까지 그의 피를 계속 뽑아내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얻고, 진리를 아는 기쁨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1997년 3월경 한 형제가 강력한 주술을 행하는 여자와 함께 사역에 들어왔는데, 그는 그 여자에게 청혼까지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왔고, 사역 후 저는 당시 제 휘하에 있던 다른 두 형제와 함께 그들에게 물세례를 베풀고 나중에는 성령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에 대해 가르치고 축귀 사역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영적으로 약해지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일어나 기도를 드리곤 했는데, 이제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고 약력이 주변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아내가 딸들이 방문한 후 제가 살고 있던 라고스 마자마 자 지역의 한 주택 마당에서 넘어져 배를 땅에 부딪쳤습니다.

그녀는 일시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그녀를 위해 기도한 후, 그녀는 걷기 시작했지만 절뚝거렸다.

그러나 악마가 그녀를 유산으로 죽이려던 계획은 내가 금식과 기도에 돌입했기에 실패했습니다. 금식 셋째 날 밤, 조용히 주님을 경배하고 있을 때 주님의 영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녀는 나를 파멸시키고 주님의 양 떼를 흩어지게 하라는 명령을 받은 마녀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아내에게 전했지만 아내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소녀를 직접 만나 내가 받은 계시를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시를 받은 지 이틀 후, 그녀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밝히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밤 기도 시간에 그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영적으로 데려가 심판을 내리고, 그 심판이 육신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불안해하며 제발 그러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자신은 마음을 열고 자신의 사명과 정체를 밝히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15명을 살해한 마녀임을 진심으로 고백했다. 그녀는 그들의 모임 장소가 라고스 빅토리아 아일랜드의 바 비치이며, 함께 사역에 들어온 형제는 그녀의 주요 목표를 달성한 후 제거될 운명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녀에게 "그 형제를 어떻게 알게 되었고, 당신네 주술 집단의 주요 목표는 누구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바 비치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지도자가 지팡이로 벽에 걸린 큰 스크린을 가리켰더니 넓은 마당에 있는 방갈로 하나가 나타났다고 했다. 그리고 그 집에 살고 있는 목사가 그들의 살을 찢을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을 통해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셨으며, 그를 잡으려는 모든 노력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어떤 조직적인 활동도 없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녀는 누군가 그들과 합류하여 내부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 순간 그 일을 맡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가 문제의 인물(목사)을 어떻게 아는지 묻자, 그녀와 함께 왔던 당시에는 불신자였던 그 형제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다른 마녀가 학대한 그 형제를 고발했기 때문에 그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곧 거둬나서 그 목사에게 인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사역팀의 일원인 다른 형제로부터 그 형제가 착용할 신발과 손목시계, 그리고 만날 장소를 알게 되었는데, 그 장소는 라고스 페스타 타운에 있는 한 클럽이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그 형제를 만난 날은 페스타 타운의 한 클럽에서였습니다. 그녀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당시에는 아직 믿지 않던 그 형제가 그녀에게 손짓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서로 모르는 사이였기에 무시했을 테지만, 그 순간 그녀는 이전에 보여줬던 사진을 다시 떠올렸고, 그 형제가 바로 그 전에 보여줬던 손목시계와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성이 그녀에게 즉시 가라고 말했습니다.

별다른 애정 표현 없이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되었고, 두 달 후, 남자는 사역팀의 일원인 친구의 복음을 통해 거듭났고, 여자아이 또한 거듭났습니다. 한 달 동안 그들을 섬긴 후, 사역팀의 일원인 남자는 그들을 제게 데려왔고, 그때부터 그녀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저와 제 가족에게 수면 마법을 걸어기도 생활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법은 열흘 동안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고, 저는 불평하면서도 낮에 너무 많이 일한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기에 그녀가 제게 건드린 음욕의 마법은 저에게 닿지 않았고, 저는 아내 외에는 그녀에게도 다른 어떤 여자에게도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자신보다 훨씬 강력한 마법 능력을 가진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가족은 일곱 명의 딸로 태어났는데, 모두 마녀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날 밤 어머니는 온갖 마법을 동원해 내 영혼을 불러내어 나를 없애려 했지만, 갑자기 회오리바람처럼 불이 나타나 어머니의 몸 일부를 태워 심한 고통과 흉터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후 어머니는 그녀에게 정체가 드러나 파멸을 피하기 위해 더 이상 우리를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내가 그녀에게 심판을 내리고 그 심판이 육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을 때 그녀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시기 전에, 그녀는 나를 찾아오기 전 두 달째 임신 중이라고 말했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 형제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는데, 그는 몰랐지만 사실로 밝혀지면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감을 받아 나는 그들에게 부도덕한 결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떨어져 지내고, 당분간 결혼은 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결혼을 포함한 모든 것이 그들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고백을 시작하면서, 임신 문제는 나를 속여 가짜 결혼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속임수였으며, 내가 이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유희과 부도덕의 영이 나에게 옮겨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함부로 손을 대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도 말라. 너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디모데 전서 5:22).

둘째로, 그녀는 이미 영적으로 결혼한 공주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결혼할 수 없었고, 따라서 그녀의 오빠는 72시간 안에 살해당했을 것입니다. 당시 그녀는 일리노이 대학교 학생이었는데, 같은 대학교의 다른 남학생을 살해했습니다. 그 남학생은 그녀와 결혼을 거의 확정 지을 뻔했습니다. 천상교회 신자였던 그 남학생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영매에게 몇 가지 의식을 의뢰했고, 그 후 그녀의 영적 남편이 그녀가 언약을 어겼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위해 간청했고, 당시 라고스 페스타타운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그 남학생이 그녀 대신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현재까지도 추적할 수 없는 경찰 순찰대가 그를 의문의 총격으로 사살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소녀의 악령 퇴치를 진행했는데,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비록 글로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그녀가 파기를 위해 제출한 주술 용품 중에는 정체불명의 검은색 웨딩드레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런 웨딩드레스, 혹은 그와 비슷한 드레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영적인 남편과 결혼할 때 그 드레스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드레스를 입을 때마다 영의 세계로 가서 영적인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그가 이 세상으로 와서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구원받은 후, 어머니는 우리와 교제를 그만두지 않으면 그녀를 없애버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그녀의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그녀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어머니의 위협을 무시하고 주님을 계속 따르라고 격려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다른 신실한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그녀도 보호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그녀의 옛 연인이었던) 오빠와 제 아내,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과 그의 가족을 사랑하시고 충분히 보호해 주신다고 하면서, 오빠에게는 사역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에게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며,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그들의 요원들이 그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그가 신앙을 저버린다면 즉시 죽일 것이며, 그런 일이 생기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그가 영적으로 약하니 성령 안에서 성장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에게 메리 백스터가 쓴 "지옥에 대한 신성한 계시"라는 책을 선물하며 지옥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계시와 경고를 바탕으로 저는 그 형제를 제 아들처럼, 제 동생처럼, 진정한 친구처럼 보살피기 시작했고, 큰 관심과 관용으로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매우 약했지만 육적인 것에는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밤기도와 금식을 싫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공부하기 위해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그를 사역으로 인도한 형제는 돈을 모아 오코코마이코에 방 하나를 빌려주었습니다.

라고스에서 그는 그 전에는 한 형제와 함께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그를 집으로 초대하여 가족과 함께 금식 기도를 드리며 회개하도록 도왔지만, 기도가 끝나면 그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2년 동안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매번 그의 옛 연인이 떠나기 전에 했던 조언과 경고를 떠올리게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전의 불신자 친구들과 어울리며 더럽고 위험한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불신자조차도 감히 따라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여자들과 데이트를 시작했고, 몰래 호텔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행실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지만, 제가 그에게 따져 물을 때마다 그는 항상 부인했습니다. 교회는 그를 계속해서 책망하고, 징직시키고, 여러 차례 처벌을 받게 한 후 회개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를 설득하여 오코코마이코에서 이사 나가게 했습니다. 그가 살던 집은 예전에 사창가로 사용되었고, 그 옆집은 지금도 여전히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페스타 타운으로 이사 가면 제가 그를 감시할 기회가 생길 것이었습니다. 그가 페스타 타운으로 이사한 후인 2001년 12월 25일 세미나에서 주님께서 제 아내에게 "우리 가운데 저주받은 자가 있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은밀히 하고 있는 일을 털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 형제를 포함한 모든 형제들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저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주님께 우리 가운데 있는 저주받은 자가 누구인지 밝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선, 그는 2002년 2월 첫째 주쯤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앞유리에 머리를 부딪친 것입니다. 앞유리는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는 머리와 몸에 경미한 부상만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저지른 범죄로 2주 정학 처분을 받은 후에 발생했습니다. 아내와 다른 형제 한 명과 함께 그를 찾아갔을 때, 우리 셋은 그에게 목숨을 걸고 장난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2년 4월 7일, 예배 후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나가려던 참에 아내가 그 형제를 예고 없이 방문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동의했습니다.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가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잠옷, 칫솔, 비누 받침대 등을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잠자리를 가진 후 먹을 음식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그날 그가 발각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2분 만에 그곳을 떠났고, 저는 남편을 불러 교회에 와서 그 여자아이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주 동안 기다렸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 3-13절의 말씀대로 그를 악마에게 넘겨주고 육체가 멸망하여 마지막 날에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다시 음란한 생활을 하며 예전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마치 옷처럼 여자들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여러 여자들이 그의 집에 드나들었고, 그의 추파를 던지는 행동 때문에 여자들과 끊임없이 다투었습니다.

2002년 12월 세미나에서 그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믿음을 저버린 형제자매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던 중, 주님께서 제게 분명한 음성으로 그를 잊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사탄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즉시 희생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2003년 12월 31일에 이 메시지를 받았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 심판을 뒤집고 그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그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자고 형제자매들에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16일 에...

2003년 6월, 그의 집주인이 내 형이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 준 내 책 중 하나에서 적어둔 내 번호로 전화를 걸어와 간절히 부탁했다.

그가 와서 나에게 형제의 활동을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 형제가 14개월 전에 사역을 떠났고 우리는 그와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그 형제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유일한 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여쭙볼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가서 이 세 가지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 저 자신과 정부 부처가 형제들의 만행으로부터 무죄함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2. 그 형제가 모독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3. 하나님께서 그의 날들을 세어 놓으셨고 그 날들을 다 채우셨으며, 그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행한다면 멸망할 것이라는 마지막 경고를 그 형제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개인 비서와 함께 갔습니다. 집주인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 형제와 약속을 잡은 후,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그의 아내가 알려준 바에 따르면, 그 형제는 두 여자와 동거하다가 몇 달 후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여자, 2003년 1월경에 이사 온 여자는 임신 6개월 정도 되었고, 그 여자와 그녀의 부모는 그 형제가 반드시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저는 집주인 부부에게 그 형제가 영적으로 미쳐버렸고, 사역을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 형제에 대한 모든 것과 그가 어떻게 이런 곤경에 처하게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가 다른 거처를 구하고 짐을 싸서 나갈 수 있도록 조금만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저와 개인 비서는 그를 따로 불러 우리의 충고를 듣지 않으면 파멸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2003년 7월 7일 월요일, 그의 집주인이 다시 저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형제의 사업 친구로부터 그가 나이지리아 동부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가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을 때는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던 그의 친구들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고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은 그가 2003년 7월 1일에 그 마을에 갔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아이를 임신한 지 6개월 된 여자의 전통 결혼식 때문이었고, 결혼식은 2003년 7월 5일 토요일에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주술 단체의 법칙에 따르면, 파멸의 표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노리는 자들의 함정에 빠지면 72시간(사흘) 안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신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구원받는 경우는 예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6년 동안 그를 미행해 온 마녀 재판소나 센터 소속일 가능성이 있는 마녀로 의심되는 불신자와 결혼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악마와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전통 결혼식을 올린 지 이틀, 즉 48시간 만에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위 아내와 동생이 보는 앞에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그의 아내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옥에서 이를 알고 있는 동생의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 만에 라고스로 돌아와 동생의 모든 소지품을 챙겨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에게는 이것이 임무 완수였습니다. 악마는 그녀를 더욱 악랄한 행위를 저지르도록 부추길 것이고, 동생은 결국 회복이나 구원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 이와 같은 사례가 많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불장난을 그만두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며 버린다면 여전히 여러분을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제6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그들의 두 번째 지도자인 다윗과의 언약

그리고 마지막 왕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야곱과 에서의 쌍둥이 형제, 즉 시리아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두 아들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언약을 맺어 그들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막내였는데,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에게 돌아갈 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이는 에서가 붉은 죽 한 항아리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넘긴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5:29-34). 에서의 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그는 장자권을 경멸했을 뿐 아니라 장자로서 받을 상속권까지 잃었고, 그의 영원한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여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을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와 그녀의 둘째 아들 야곱이 에서에게 주려던 복을 몰래 가로채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장자로서 에서에게 주어져야 할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네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네게 절하게 하리니, 너는 네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절하게 하리리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7:28-29)

이삭의 이러한 선언으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고, 그의 형제들과 땅 위의 다른 민족들을 다스리는 군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자손들을 모든 저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를 축복하는 모든 민족과 백성을 축복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치고 있을 때 꿈을 통해 이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져 나갈 것이다. 너와 네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네게 말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창세기 28:13-15)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종 모세를 통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특별한 보물,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구약 또는 옛 언약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있는 동안 요셉의 요청으로 고센 지방에 머물렀고, 이집트인들과 분리되어 지냈습니다. 그들이 목자였기 때문입니다(창세기 46:33-35 참조). 이집트인들은 목자를 가증스럽게 여겨 격리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자들이 영적으로 대표하는 복음의 참된 사역자들은 세상 체계에 의해 격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도 세상 전체 체계에서 분리됩니다. 이제 그들이 얼마나 찾기 쉬운 존재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이 거부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과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며, 그분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그러한 것들이나 사람들로부터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3-25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조건은 출애굽기 20장 1-17절에 명시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권능은 출애굽기 20장 18-26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고,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확증되었습니다.

12절은 하나님과 그분의 택하신 백성 사이의 구속 관계의 형식적인 기초를 이루었으며, 이후 새 언약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설명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을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언약에 흠이 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오리라' 하셨다. 주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첫 언약을 옛 언약으로 만드셨다. 낡고 허물어지는 것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히브리서 8:7-8, 13)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9장 8절과 24장 3절, 7절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목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고 그 위에 모세가 "언약의 피"를 뿌렸다(출애굽기 24:8 참조). 그러나 이 언약은 곧 출애굽기 32:1-35에서 깨졌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된 계기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겪게 될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약속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타국으로 가서 그들을 섬기며 사백 년 동안 그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요 내가 그 백성을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셨도다 사대 후에 그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15:13-14, 16)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깊은 영적 잠에 빠진 후에 그의 후손에게 닥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분께서 친구라고 부르실 뿐 아니라 언약까지 맺으신 사람의 후손에게 그토록 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더러 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창세기 4:29-31 참조).

또한 이사야 48장 10절에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으로 연단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용광로에서 택하였느니라"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극심한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 선택받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쓴 이유이며, 누가복음 14장 21-22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리스트라, 이고니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많은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권면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설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겪고 그들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누구든지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후에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려 하셨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그러한 고난에 빠뜨린 민족을 벌하시겠다는 계획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괴롭혔던 바로 그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재물을 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박해와 시련을 기꺼이 감수하는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시련과 박해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상을 주실 뿐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들을 엄벌에 처하십니다(데살로니가후서 1:6 참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인들,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던 모든 무리가 제사장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로에게 노예로 팔렸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우리와 우리 땅이 당신 앞에서 죽어야 합니까? 우리와 우리 땅을 뺀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와 우리 땅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씨를 주셔서 우리가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이 황폐해지지 않게 하십시오."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땅을 바로를 위해 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심하여 각자 자기 밭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다만 제사장들의 땅만은 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받은 몫을 먹었기 때문에 자기 밭을 팔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희와 너희 땅을 바로를 위해 샀다. 보십시오, 여기 너희를 위한 씨가 있으니 이 땅에 씨를 뿌려라." (창세기 47:19-20, 22-23)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당시 이집트 땅에 살던 이집트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모두 파라오의 노예였음이 분명합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궁궐에서 자랐고,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왕위 계승자로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동족과 함께 고난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만나 이스라엘 자손을 풀어주어 사할 동안 광야로 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요구하라고 하셨을 때 여러 번 반대했습니다. 만약 파라오가 오랫동안 반대하다가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할 동안의 여정을 허락하고, 사할 이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하셨으니, 이는 자기가 원하거나 달려가는 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다. 성경은 바로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 능력을 네게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알리려는 것이다' 하셨느니라" (롬 9:15-17)

그러므로 파라오는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모세와 약속한 삼일을 기다리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창조하신 행위였음을 보여줍니다.

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땅에 갇혀 광야에 갇혔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가 그 뒤를 따르게 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 위에 영광을 받으리라. 그리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출애굽기 14:3-4).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빔월 16일 밤, 곧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정확히 이틀째 되는 날,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진영 뒤로 이동했고, 구름기둥도 뒤로 옮겨져서 바로와 그의 군대가 홍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진영에 더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모세가 주님의 지시에 따라 바다 위로 손을 뻗자, 주님께서서는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켜 바닷물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나고 물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너 아빔월 16일 밤부터 17일 아침까지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집트 군대, 곧 파라오와 그의 말과 병거와 기병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어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병거 바퀴를 빼내자, 파라오와 그의 군대는 병거가 심하게 흔들리며 제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알고 추격을 포기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이집트 군대와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을 덮쳐 모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이집트 군대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신 덕분에 마른 땅 위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모세와 그의 종을 믿었습니다.

아빔월 17 일(또는 4월) 아침에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죽으면 서 노예제도가 종식되었다. 이집트에서 기근 때문에 파라오에게 팔려간 이스라엘 자손과 다른 나라에서 온 수많은 무리의 죽음의 공포가 끝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에서 나와 마른 땅 위를 걷는 것으로 상징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파라오와 같은 악마가 인류에게 강요했던 죽음의 공포를 종식시켰습니다.

(히브리서 2:14-15).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빔월 17일 새벽 무렵에 바다를 건넜다는 점인데, 이는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때와 같은 시기입니다. 바로와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자손은 당시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고, 주님도, 남편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시며, 남편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야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러한 공백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그들을 47일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반항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싸움을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과 야곱의 집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게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출애굽기 19:4-6).

이 메시지는 직접적이고 정확했습니다. 직접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집, 즉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 즉 주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오순절에 시작되어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섞인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과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정확합니다. 그분의 언약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시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자손(모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 교회의 구성원들(참고: 그들 중 일부는 아직 이 땅에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한 보물로 여기실 것입니다. '특별한'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는 '세굴라(Cegullâh)'이며, '세굴라'로 발음됩니다. 이 단어는 '단다', '재산(군계 닭아두다)', '보석', '특별한(보물)', '특유의 좋은 것', '특별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챔버스 사전(Chambers Dictionary)에 따르면 '특별한'은 '자신의', '자기 것', '전적으로 (~에게)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개인 소유의, 전용된, 보존된, 특징적인, 특별한, 매우 특정한 등

여기서 언급된 '보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켄나(mickenâh)'이며, 발음은 '미스-켄-아'로, '창고', '저장소', '보물'을 의미합니다. 챔버스 사전(Chambers Dictionary)에 따르면 '창고'는 창고, 군수품 보관소 등을 뜻합니다. 또한 챔버스 사전은 '보물'을 축적된 부, 재산, 매우 가치 있는 것, 귀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종, 조력자 등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속한, 없어서는 안 될 민족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땅(아랍 국가들이 여전히 점령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 세상이 가지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을 쌓아 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그분의 언약을 지켜 하나님께 제사장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지식, 부, 재산, 그리고 다른 귀중한 것들과 선물들을 저장해 두실, 그분의 귀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종, 즉 제사장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사탄을 둘째 하늘에서 내쫓은 후 이 세상의 통치권을 장악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기 위해 그들이 행해야 할 일을 모두 말씀하신 후,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목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출애굽기 19:8)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을 이틀 동안 거룩하게 지키라고 지시하시고, 셋째 날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옷을 빨고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에 기록된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에 있는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24:3,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산 아래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따라 열두 기둥으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젊은이들을 보내어 번제물과 화목제물로서 소를 여호와께 바치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 앞에서 읽으니,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하더라. 모세가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보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의 피니라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언약이니라 (출애굽기 24:6-12)

8).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맺은 이 새로운 언약 관계는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주님과 그분의 종들 사이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구별되었는데, 이는 그들 자신의 의로움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으신 사람들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 거룩함은 언약의 결과이지 언약의 이유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했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 되어, 또는 부부처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아모스 3:3 참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언약이 성공하기 위한 근거는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불충실과 우상숭배로 인해 출애굽기 32장 1-35절에 기록된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실 권리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즉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다른 모든 인류와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리라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 세상의 끝에 이스라엘과 영원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아내가 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책 31장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오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과는 다르니,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맺은 언약과는 다르니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31:31-32)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약속의 한 조항을 지키셨고, 그 약속을 온 인류에게까지 확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백성, 곧 그분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왕국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 그분께 순종하도록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의 왕과 제사장이 될 것이며, 그분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옛 언약을 맺으신 출애굽기 19장에서 23장을 살펴보면, 그들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이끈 바로 그 언약이 그들 서로 간에도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수직적이고, 서로 간의 관계에서는 수평적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그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언약 백성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은 서로에게 특별한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나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지 않은 다른 민족 구성원들과 맺었던 언약과는 다릅니다. 이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자는 필연적으로 서로 언약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으로 더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또는 신부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연합하게 하는 언약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언약을 맺은 모든 사람과 수평적으로 연합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얻는 혜택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분과 같은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대한 의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며 다른 모든 인류 집단과 구별된 연합된 백성으로 서로 연합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상징은 안식일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하니,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지켜질 표징이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니, 이는 대대로 지켜질 표징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라. 여호와께서 옛날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며 기력을 회복하셨음이니라 (출애굽기 31:13, 16-17).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왕으로 세우신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노인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 넷째 아들 유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며 전통에 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이 칭찬할 자요, 네 손은 네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며, 네 조상의 자손들이 네 앞에 엎드릴 것이다. 내 아들이, 유다는 사자 새끼 같으니, 먹이를 잡으러 올라갔도다. 그가 몸을 굽히고 웅크리니,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우겠느냐?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의 발 사이에서 홀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요, 율법을 주는 자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 백성이 그에게 모일 것이라 (창세기 49:8-10).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 유다에게 베푸신 축복 중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 장로가 베푼 영광스러운 축복 이전에 사탄은 교묘하게 유다의 기록에 흠집을 냈습니다. 사탄은 이스마엘의 탄생을 통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좌절시키기 위해 야곱의 자손들에게 자신의 악을 퍼붓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사탄은 시므온과 레위를 사로잡아 야곱과 그의 아들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깨뜨리게 했습니다. 그들 중 두 사람이 세겜의 할레반은 남자들을 모두 죽인 것입니다. 그 후 사탄은 르우벤을 조종하여 야곱의 첩인 발하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야곱에게 또 다른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이 세 사람은 지도자의 축복이나 기쁨부음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야곱이 요셉을 매우 아끼는 것을 보고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자손에게 팔았습니다. 이스마엘 자손은 다시 요셉을 이집트의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사탄은 유다가 훌륭한 아들이고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굽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유다는 빠르게 집안에 들어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다에게는 에르,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르는 다마르와 결혼했지만, 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다마르는 남편도 자식도 없이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난은 다마르와 결혼하여 자식 없이 죽은 형을 위해 자손을 낳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악행으로 다마르와 동침했지만, 형의 자손이 될까 봐 아이를 낳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마르는 시아버지에 의해 집으로 돌아가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셀라가 장성하면 그를 아내로 맞이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셀라마저 앓을까 두려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탐사에서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며느리 다마르는 변장하고 창녀인 척했습니다. 유다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와 동침하여 임신했고, 쌍둥이 파레스와 자라를 낳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탄은 만족하며 아굽의 계획을 망쳐놓았고, 아굽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흠 없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탄의 비난과 간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굽으로 하여금 그 흠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모든 축복을 선포하게 하신 후, 모세를 통해 그 흠을 씻어낼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생아는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그의 십 대까지도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신명기 23:2).

룻기 4장 18-2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저주는 9 대손인 이새와, 다윗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가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10 대손으로 끝날 예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 때문에 이 모든 세대에 걸쳐 이스라엘에 왕을 주실 수 없었습니다. 이새로 저주가 끝나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시며 저주가 끝나고 다윗이 태어나 목자로 훈련받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마음속으로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일에 개입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겠다.' 그래서 사탄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고용하여 사무엘에게 와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자신들을 다스리고 전쟁을 이끌 왕을 요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다른 사람들을 닮고 싶어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할 때마다, 그러한 요구나 요청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욕망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로 주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네게 하는 모든 말에 귀 기울여라. 그들이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한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모든 행위대로, 그들은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라. 그러나 그들에게 엄숙히 항의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모습을 보여주어라 (사무엘상 8:7-9).

사무엘이 11월부터 18월까지 왕의 성품에 대해 설명한 모든 것을 들은 후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요구하며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파별로 후보를 냈고, 베냐민 지파가 선택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구성하는 가문들을 제비뽑기한 결과, 마트리 가문이 선택되었고, 마침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왕위 계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을 배출해야 한다고 정하신 뜻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또한, 제비뽑기나 투표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 즉 세상 사람들이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임명하시는 방식에 대한 완전한 반역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위이며, 백성을 심각한 문제와 영적인 눈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들처럼 지도자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저주가 끝나기를 기다리셔야 했고, 또한 선택하신 왕은 유다 지파 출신이어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중요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축복하시어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이 다른 지파를 위해 마련된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신 직책을 맡거나,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신 사역을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성공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위에 오르지 못할 것이 분명해지자 이스라엘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왕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었던 첫 번째 계기는 사울이 이기심에 사로잡혀 조금씩 번제를 드렸을 때였습니다. 그 번제물은 선지자 사무엘이 드려야 할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 소식을 듣고 사울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보십시오.

네가 어리석게 행하였도다. 네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주께서 네 왕국을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시려 하였더라. 그러나 이제 네 왕국은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기로 명하셨느니라.

이는 네가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사무엘상 13:13-14).

여기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 맞는 왕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백성이 원하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왕위 계승에서 제외되었다는 선언이 나온 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보내어 그의 여덟 번째이자 막내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왕으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택하시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겠다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막기 위해 보내신 선지자 나단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나단의 메시지를 일부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양 우리에서, 양 떼를 치던 자 가운데서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네 날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에 내가 네 배에서 나올 네 자손을 네 뒤를 따라 세우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내가 그의 왕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로 그를 징계하겠지만 내 자비는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사울에게서 자비를 거두어 네 앞에서 그를 폐위시킨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요 네 왕좌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니라 (사무엘하 7:8, 12)

16).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었으며, 이 언약을 통해 다윗과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위 계승자로 확립되었고, 이는 후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 약속을 하신 지 약 10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있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맺으신 언약, 즉 다윗의 아들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히 세우시고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크게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될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요, 그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요,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눅 1:31-33).

다윗의 아들이자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은 사무엘하 7장 12절의 예언을 성취한 인물이다.

다윗은 육체적으로 영원히 왕국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인해 그의 왕국은 끝났고, 다윗의 많은 후손들이 다윗을 대신하여 잠시 왕국을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 천년왕국과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남을 것이며,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즉위하실 것입니다(에스겔 34:23-24, 37:24-25, 예레미야 30:9 참조). 이것이 바로 제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며, 우리 주님을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번에는 백성들이 직접 선택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신 바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엘리 시대에 아베스 길르앗에 버려졌던 언약궤를 되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사울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옷사가 죽는 사고를 당했지만(이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하여 마침내 언약궤를 시온으로 가져왔습니다(사무엘하 6:1-23). 언약궤를 되찾은 후,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장소를 설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멈추게 하시며, 그가 땅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많은 전쟁을 치렀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차라리 그 땅을 재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역대기상 22:7-9).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주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실 때까지 그 왕좌를 계속 차지했고, 다윗 자신도 주님의 재림 때 땅으로 돌아와 언약의 자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의 표징은 예루살렘이 항상 주님을 위해 보존되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열왕기상 11:31-32, 34-36, 열왕기상 15:4-5 참조).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도시로 불립니다.

제7장

하나님을 유언자로 하여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맺는 결혼 언약

많은 사람들, 특히 불신자들은 결혼을 수평적인 의미(즉, 육체적인 영역에서만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합)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척 관계까지 포함시켜,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결혼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결혼이 그런 식으로 변질되기를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결혼은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제도이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장 신성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유언자로, 남편과 아내가 수혜자로 포함됩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즉 예수 그리스도)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가지 기능을 가진 하나의 존재이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두 가지 기능을 가진 하나의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창세기 1장 26-27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밀줄 친 부분을 통해 인간을 하나의 존재로 창조하셨으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통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하셨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 남성과 여성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이해하는 결혼의 의미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셨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모두가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서 '형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Image)"는 히브리어 단어 '체렘(Tselem)'에서 유래했으며, '체렘(tseh/-lem)'으로 발음됩니다. 이 단어는 '그늘', '환상', 즉 (비유적으로) '환상', '닮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형상' 등을 뜻합니다. 챔버스 사전(Chambers Dictionary)은 '이미지'를 사람이나 사물의 표현, 조각상, 우상,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매우 흡사한 것, 마음속의 표상, 관념, 정신적 그림 또는 감각적 지각보다는 생각이나 기억에서 비롯된 표상 등으로 정의합니다. 요컨대, 성령께서 제정하신 결혼을 통해 남녀가 부부로 결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남녀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형상을 마음속에 나타내는 것, 즉 관념이나 정신적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혼이라는 제도를 연구하고, 그것을 인간관계와 비교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 그는 그것이 "큰 신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의 말을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큰 비밀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합니다." (엡 5:32)

이 위대한 신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가 결혼으로 하나가 되는 것과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에 담긴 신성한 진리를 밝히기 위해,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만큼, 신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어로 신비는 "무스테리온 (mustérion)"이며, "무스테리온"으로 발음됩니다. 이는 비밀이나 신비를 의미하는데, 이는 종교 의식에 입문할 때 요구되는 침묵의 개념을 통해 전달됩니다. 하지만 챔버스 사전은 '신비'를 고대 종교 의식 등에 나오는 비밀 교리, 즉 입문자만 아는 것,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건, 불가사의한 것(즉, 면밀히 조사하거나 탐구하여 이해할 수 없는 것), 수수께끼(즉, 숨겨진 의미를 추측해야 하는 진술), 모호한 것(즉, 어둡고,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불분명하고, 알려지지 않고, 숨겨진 것), 신이 내린 진리 등으로 정의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하고자 했던 것은 '신비'라는 단어가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귀중한 유익을 주는 지식의 한 형태를 나타내지만, 종교적 관습으로 묶인 특별한 집단에만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지식에 접근하려면 이 집단에 입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집단에 대한 비밀스러운 입문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바울이 결혼을 신비와 연결시킨 것은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숨겨진 지식이 있으며, 이 지식은 특정한 시험을 통과하고 특정한 조건을 충족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세 사람의 언약으로 제정하신 이유입니다. 즉, 이 세 사람의 공동체에 들어가 그들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언약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이 짝과 함께 잠자는 동안 아담이 홀로 잠드는 모습을 매일 밤 지켜보시며,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심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창세기 2:18). "돕는 배필"은 조력자, 도우미, 자격을 갖춘 적합한 조력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열두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니,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리라" (창세기 2:23-24)

"떠나다"는 히브리어 단어 *âzab*이며, *aw-zab*으로 발음됩니다. 이는 풀어주다, 포기하다, 허락하다 등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을 헌신하다, 실패하다, 버리다, 강화하다, 돕다, 떠나다(공평하게, 떠나다), 거부하다 등의 뜻입니다.

챔버스 사전은 '떠나다'를 버리거나 사임하다, 그만두거나 떠나다, 유증하다, 결정이나 행동 등을 위해 회부하다, 허용하거나 야기하다, 머물게 하다, 중단하다, 멈추다, 떠나다 등으로 정의합니다. 히브리어로 '불다'는 '다바크(*dâbaq*)'로, 달라붙다, 즉 (비유적으로) 집착하다, 추격하여 잡다, 단단히 붙다, 바짝 따라가다, 결합하다, 달라붙다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리스어로 '불다'는 '프르스칼라(*prskalla*)'로, (비유적으로) 붙이다, 달라붙다, 붙다, 결합하다, 통합하다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문의 의미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단어가 언약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남자가 부모와 친척, 집, 재배권, 영향력, 통제권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서 아내와 언약 관계를 맺어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결혼 언약의 상징이자 표징입니다. 주님께서 아내의 분리해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결혼이 완성되는 순간 아내는 오직 남편의 소유가 되고 자신의 가족과 아무런 관계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허락을 받아 나그네처럼 가족을 방문할 수 있을 뿐이며, 가족을 떠날 때는 가족의 재산에 아무런 몫도 상속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내가 남편의 허락을 받아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다투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어머니가 된 라반의 두 딸의 입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에게 남은 몫이나 유산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는 나그네가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를 팔고 우리의 재산도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모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행하십시오." (창세기 31:14-16)

하나님과 아내와 언약을 맺어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기로 한 남편에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아내가 성경의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내에게 성경의 이 부분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가중스러운 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그것이 절대적인 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진 모든 결혼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이 부분을 지켜야 합니다. 전도서 4장 9-12절에서 주님께서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 결혼이 어떠한지에 대한 분명한 통찰을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이 하나보다 나은 것은 그들의 수고에 대한 좋은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둘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지만, 혼자 넘어진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 화가 있을 것입니다. 또 둘이 함께 자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주님을 섬기면) 따뜻함 (성령의 기름부음) 을 누리지만, 혼자서는 어찌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한 사람 (사탄) 이 그를 이기더라도, 둘 (남편과 아내) 은 그 (마귀) 를 대적할 것이며, 삼겹줄 (하나님과 남편, 아내의 언약) 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을 향한 본래의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수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격을 받을 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기름부음이 쉽게 흘러나오지 않습니다(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적인 기름부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혼자 있으면 마귀에게 쉽게 넘어질 수 있지만, 아내라는 적절한 조력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이시며, "삼겹줄" 안에 있는 활력의 힘이시며, 여자도 맺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싸움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싸움에서 지지 않으십니다. 만약 아내나 여자가 언약의 자신의 몫을 지키지 않는다면, 남편이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굳게 매달리는 것만 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여자를 엄하게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을 통해 우리는 다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댓글 [hrm1]: John 형제님께 stuck 대신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결혼은 단순히 수평적 결합(즉,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합)만이 아니라, 하나님, 남편, 아내 세 사람을 묶는 수직적 결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이 율법을 저버리고 이 신성한 제도를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마치 내일이면 끝나는 일시적인 사업처럼 여기고, 결혼했다가 배우자를 내쫓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행위가 배우자에 대한 불충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라기는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악용하여 아내에 대한 폭력이나 불충실함을 감추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눈물을 원하지 않으시며, 가까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유를 묻자, 말라기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너희는 아내를 배신하고 속여 결혼 제도를 경멸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아내가 너희의 동반자요 언약의 상대임을 기억하지 못하였음이라." 그는 또한 당신의 아내는 당신 영혼의 잃어버린 부분, 즉 발견된 나머지 부분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셔서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언약 관계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결합할 때, 사탄과 그의 권세들을 통해 하늘에서 내쫓을 경건한 자손이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서는 마침내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에 따르면, 사람은 "폭력을 웃으로 가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원을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허가증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말라기 2:13-16).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한 주제이므로, 나중에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결혼 생활에 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결혼을 자신이 원하는 기준을 정하고, 마음대로 시작하거나 끝낼 수 있는 관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결혼은 그분이 제정하신 언약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특히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믿음을 바꾸라고 경고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혼에 대한 자신의 원래 계획에서 벗어난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결혼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덧글 [hrm2]: 덮어야 할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그를 시험하며 이르되, 사람이 아무 이유로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나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태초에 사람을 만드신 이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그러면 모세는 어찌하여 이혼 증거를 주어 아내를 버리라고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모세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처음부터 그러했던 것은 아니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9:3-9)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신 기준이며, 주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상기시켰을 때에도 그 기준을 낮추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먼저 모세를 변호하셨는데, 모세를 보내셨을 뿐 아니라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고 지금도 맺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반역과 완고한 마음 때문에 모세가 그들이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책망하셨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신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이는 모세를 포함하여) 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남편, 아내, 부부의 친척, 친구 또는 법원 등 그 누구도 부부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죽음만이 남편과 아내의 결합을 끝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언약은 회생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생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피 흘림을 수반합니다. 기독교 결혼 언약의 기초가 되는 회생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분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희생 제물이십니다. 기독교 결혼 언약은 십자가에서 맺어지며, 남자와 여자는 인간의 전통, 세상의 초보적인 관념, 인간 철학, 헛된 속임수를 우리 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삶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분의 죽음이 없었다면 이러한 새로운 삶과 관계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결혼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부가 서로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남편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여기고 아내에게 "나는 십자가에서 내 생명(의지)을 내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님과 제 언약의 동반자인 아내를 위해 삽니다. 아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여기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제 생명(의지)을 내어드렸을 때 이미 포기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님과 제 언약의 동반자인 남편을 위해 삽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남편이 가진 모든 것은 아내의 것이고, 아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남편의 것입니다. 어떤 유보도 있어서는 안 되며, 아무것도 숨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관계는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로 합쳐지는 것(즉, 더 크거나 우월한 것에 참여하거나 흡수되는 것, 융합되는 것, 다른 것에 정체성을 잃는 것, 잃어버리는 것, 잠기거나 뛰어드는 것 등)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남편이 자신의 의지를 잃고,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흡수되며, 그의 권위는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종속되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로봇(즉, 기계적인 인간, 기계, 특히 컴퓨터로 제어되는 복잡한 육체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제어된다는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제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내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지를 잃고, 그녀의 정체성은 남편에게 완전히 흡수되며, 그녀의 권위는 남편의 영이나 권위에 완전히 종속되어 남편의 손에 있는 로봇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을 유언자로 삼으신 남편과 아내의 삼겹살 언약, 즉 결혼 언약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큰 신비인 이 결혼 언약 때문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마치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엨 5:22-24)

이 책을 읽는 독자는 잠시 멈춰서 밑줄 친 부분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인 교회에 대해 가지는 관계가, 남편이 자신의 몸인 아내, 자녀, 가정부에게 가지는 관계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주님, 주인이시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구원자이시므로 남편은 아내, 자녀, 가정부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먹이시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똑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내인 당신이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마치 교회가 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당신을 부릅니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예배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고 무릎을 꿇음으로써 그분을 공경합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도 남편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십시오.

할례의 수장 사도인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도 하나님을 믿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며 단장한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그를 주님이라 불렀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사라의 딸들이므로, 선을 행하고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5-6)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제가 이단이라고 결론짓는 사람들 모두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여인이거나 거룩한 여인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을 마치 주 예수님처럼 공경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주님'이라 불러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성공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십자가나 주 예수님 발 앞에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서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내 생명이 주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당신을 통해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20)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은 자신이 주님을 위해(즉,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도 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과 주 예수님 모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성공적인 세 번째 단계는 육체적 결합을 통한 혼인 관계의 완성이며, 이는 곧 자녀를 갖게 되어 두 사람이 기쁘게 함께 나누고자 했던 새로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언약은 생명과 생식을 나누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나누지 않는 생명은 메마르고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 현대 문화나 인간의 전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이 관계를 통해 나와 우리 가족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관계에서 나와 우리 가족이 무엇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내 가족을 버리고 다른 가족에게 가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으로 결혼에 임합니다.

이런 관계는 삼중줄 언약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삼중줄 언약으로 생각한다면, "이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내가 이 관계에 참여하는 두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하나님, 남편, 그리고 아내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듯이, 당신, 나의 아내를 위해서도 내 삶을 바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며,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33, 에베소서 5:25-30, 베드로전서 3:7, 골로새서 3:19, 잠언 5:15-19 참조) 아내 또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듯이, 당신, 나의 남편을 위해서도 내 삶을 바칩니다. 모든 일에 당신에게 순종하고, 당신을 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평생토록 당신에게 선을 행하겠습니다."

(참조: 엡 5:22-24, 33절, 골 3:18, 벤티전 3:1-6, 잠 14:1, 잠 12:4, 잠 31:10-12)

이는 하나님이나 삼중중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육신적이거나 세상적인 결혼에 대한 헛소리 또는 광기입니다. 심지어 일부 은사주의적인 하나님의 사역자나, 예언자 이사야가 그의 책 4장 1절에서 마지막 날 교회의 상태에 대해 예언한 것처럼 결혼을 자신의 수치를 일시적으로 없애는 수단으로 여기는 많은 환각제 복용 여성들조차도 이 글쓴이가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르기를,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귀가 멍멍해졌으며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화개하고 내가 그들을 고쳐 주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 복음 13:14-15).

제8장

언약에 따른 남편과 아내의 서로에 대한 의무

결혼

신약성경에서 남편과 아내의 언약적 의무를 다루는 모든 구절에서 저자는 항상 아내의 특별한 의무를 먼저 언급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아내가 부부 관계의 성공을 지탱하는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남편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배일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22절에 명시된 대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자이며, 하나님께서 남편을 변화시키고 성취할 권위를 부여하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내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결혼 생활은 무너질 것입니다. 남편의 배라는 것은 남편의 모든 재산, 돈, 지식, 지혜 등이 아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내는 순종과 복종을 통해 남편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남편이 사업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의 상품을 운반하는 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남편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삶의 방식과 말에 항상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녀에게는 결혼 생활을 쌓아 올릴 힘도 있고, 파괴할 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지는 언약적 의무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되는 언약적 역할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에 요약되어 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녀의 값은 루비 (붉은 보석, 진홍색; 영적으로는 피)보다 더 귀하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믿고 의지하므로, 더 이상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녀는 평생토록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 (즉, 거룩함을 상징적으로 추구함) 과 아마 (베를 짜는 데 사용되며 의롭게 행함을 나타냄) 를 찾아 기꺼이 손으로 일한다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함). 그녀는 상인 (남편) 과 같다.

그녀는 배를 타고 먼 곳에서 식량을 가져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창고에서). 그녀는 아직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가족들에게 음식 (영적 양식과 육적 양식 모두) 을 주고, 여중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줍니다. 그녀는 밭을 살펴보고 사들입니다 (그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포도원을 심었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순종으로 남편의 사역을 세웁니다). 그녀는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팔을 강하게 합니다 (진리가 그녀의 힘이며, 그녀는 진실로 자녀와 가정부를 강하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품이 좋은지 알고, 밤에는 가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집 안에 보관하는 물건이 좋은지 확인하고, 밤에는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물레에 손을 대고 실을 잣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돌리는 물레와 같으며, 그녀의 관계를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번영하게 합니다). 그녀는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밀고 공평한 자에게 손을 뻗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자에게 축복이며 공평한 자를 돕습니다). 그녀는 온 가족이 붉은 옷 (피) 을 입었기에 눈 (영적인 공격) 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실로 덮개를 만들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그녀의 옷은 비단과 자춧빛 옷(왕족의 옷)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는 성문에서 알려져 있고,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앉아 있다 (남편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나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앉아 있을 때 권위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거나 인정받는다). 그녀는 고운 베를 짜서 팔고 (그녀는 주변 모든 사람을 의롭게 행하게 한다), 상인 (남편)에게 허리 띠 (진리)를 넘겨준다.

힘과 존귀가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장래에 기뻐할 것이다. 그녀는 지혜로 입을 열고, 그녀의 혀에는 친절의 법이 있다 (그녀는 매우 자비롭다). 그녀는 집안일을 잘 돌보고 계으름의 빵을 먹지 않는다 (그녀는 계으름이나 나태함을 믿지 않는다). 그녀의 자녀들은 일어나 그녀를 복되다고 부르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한다. 많은 딸들이 덕을 세웠으나 너는 그 모든 딸들보다 뛰어나다. 은혜는 속임수요 아름다움은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의 손으로 행한 일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어야. 그리고 그녀의 행적 (순종과 사랑으로)이 성문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하라.

이것이아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여성이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책을 통해 구절 하나하나를 살펴 보면서 독자들은 기독교가 얼마나 심각한 기만에 빠졌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현숙한 여인을 찾으시며,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귀중하다고 말씀합니다 (루비는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어떤 무지한 신자들은 "어떻게 이 사람이 현숙한 여인의 값이 예수님의 피보다 더 귀중하다고 말할 수 있지?"라고 물음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의심이 드신다면 저에게 전화나 편지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 '현숙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덕스러운"이라는 단어는 "차일(Chayil)"이며, 발음은 "카일(Khah-yil)"입니다. 이 단어는 힘, 즉 사람의 힘, 수단, 또는 다른 자원, 군대(예: 복종할 때는 하나님의 군대, 반역할 때는 사탄의 군대), 부, 덕, 용맹, 힘, 용감한 사람 등을 의미합니다. 챔버스 사전 (Chambers Dictionary)은 "덕스러운"을 덕을 지닌, 도덕적으로 선한, 흠 없는, 의로운, 순결한 등의 의미의 형용사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명사 "덕(virtuous)"은 탁월함, 가치, 도덕적 탁월함, 내재된 힘(예: 끈질기거나 분리할 수 없는 힘), 효능(예: 호과를 내는 능력), 좋은 자질 등을 의미합니다. "용맹" 또는 "용감한"은 적극적으로 용감한, 영웅적인, 용맹함, 강함을 의미합니다.

군대란 전쟁을 위해 무장하고 군사 지휘를 받는 많은 사람들의 집단,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친 사람들의 무리, 대규모 집단, 군중,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덕스러운이라는 단어의 모든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부여하신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끝까지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덕스러운 아내의 궁극적인 성취는 남편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 외에 그녀가 이루는 모든 것은 부차적인 가치일 뿐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성공 여부에 따라 자신의 성취를 평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은 이제 남편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성공이 곧 그녀의 성공입니다. 남편이 성공하면 그녀도 성공한 것이고, 남편이 실패하면 그녀도 실패한 것입니다.

11절에서 솔로몬은 "그녀의 남편의 마음은 아내를 온전히 신뢰하므로, 그는 재물이 필요 없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온전히"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는 베타흐(betach)이며, 발음은 베타-타크(beta-takh)입니다. 이는 피난처, 안전, 확신, 담대함, 자신감, 희망, 안전한, 확실한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삶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준다면, 남편에게 다른 어떤 확신이나 자신감, 안전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내의 인정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무리하고, 사기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심지어 비밀 결사에 가입하여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아내의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거나 인정받기 위해, 그들은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진정으로 덕스러운 아내를 둔 남자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확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오해하고 심지어 배신할지라도, 그는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그의 아내입니다. 왜 남편은 아내에게 전적으로 의지할까요? 그 답은 12절에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토록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아내는 평생 동안 남편에게 악한 생각을 하거나 악한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의견 차이가 있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갈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관계의 머리인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 결정하신 것이 결국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잠언 19:21). 아내의 인품은 잠언 31:23에서 드러납니다. "그녀의 남편은 성읍에서 유명하며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앉아 있다."

이는 남편이 권위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거나, 자신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인정받는 지도자로서, 존귀한 자리에 앉아 존경받고 성공적이며 자신감 넘치는 인물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이러한 높은 지위는 아내의 성공이 크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아내의 지지가 없었다면 남편은 어떤 존귀한 자리나 권위 있는 자리에도 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내의 큰 업적은 28절과 29절에 나오는 가족들의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이 일어나 그녀를 복되다고 부르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한다." 남편의 칭찬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딸들이 덕행을 행하였으나 당신은 그 모든 딸들보다 뛰어나십니다." 덕스러운 아내가 남편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 중 하나는 칭찬입니다. 만약 당신의 아내가 여기에 묘사된 그런 여성이거나,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다면, 끊임없이 칭찬해 주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녀가 만든 음식이 맛있다고,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칭찬해 주고, 그녀가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말해 주고,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느니 표현해 주는 등, 그녀가 요리하는 모습을 칭찬해 주세요.

아내가 이러한 언약적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까요?

1. 무엇보다 먼저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내로서 당신의 삶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을 영역은 없습니다. 남편이 내리는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다투지 마십시오. 악마가 들어올 틈을 주지 마십시오. 당신은 남편의 율타리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율타리가 무너지면 집은 온갖 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불만이 생기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거나 당신에게서 제거하시려는 것이 있어서 남편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도록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편의 목사/목자에게 남편의 행동을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목자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만약 목사나 목자가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결혼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그는 두 사람 모두에게 어떻게 조언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기준은 매우 어렵지만, 여러분의 순종이 이루어지거나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 여러분의 인내와 겸손을 시험하고 증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기준이나 가혹한 결정들을 완화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비로소 순복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1-12 참조).

(베드로전서 2:19-25, 디모데전서 2:11-15, 잠언 14:1 참조). 이제 그분은 자신감이 넘치시므로 자신의 권한 대부분을 여러분에게 위임하실 것입니다.

2. 둘째로, 아내는 남편을 지지해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는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이나 방향 제시 권한은 머리(남편)에게 있지만, 머리는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머리는 항상 나머지 신체, 특히 목에 의존해야 합니다. 신체의 지지 없이는 머리 혼자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머리(남편)를 지탱하는 목과 같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며, 남편은 반드시 아내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녀에게 의지합니다. 만약 그녀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지지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공한 남자 뒤에는 여자가 있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거기에 한 명의 여자가 아니라 덕망 있는 여성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여성.

3. 세 번째 해결책은 남편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언제나 아내에게서 격려를 구합니다. 제가 "언제나"라고 강조한 이유는, 제가 말하는 격려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나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행동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압박감이나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이며, 그 고통과 실망감을 누구보다 더 크게 느끼는 아내에게는 더욱 어렵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하는 것이 격려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만약 여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안다면, 아내가 남편을 격려하기만 한다면 실패한 결혼 생활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지는 언약적 의무

남편이 아내에게 지는 언약적 의무에 대해 연구하고 가르칠 때, 다른 많은 영역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는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연구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므로 머리를 가릴 필요가 없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7)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dxa"이며, "독사"라고 발음됩니다. 이는 위엄(즉, 인격의 고양), 명예, 칭찬, 숭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챔버스 사전에 따르면, 영광은 명성, 고귀하거나 승리한 명예, 널리 퍼진 칭찬(예: 아내는 가는 곳마다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남편의 이미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녀와 동일시하거나 그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최고의 자부심의 대상, 아름다움, 화려함, 눈부신 광채(달처럼 찬란한), 성취의 정점(최고점), 번영이나 만족(예: 종교적 상징에서), 달 주위의 빛의 고리 또는 빛, 자랑하거나 자화자찬하는 정신(구식 표현), 신의 임재, 천국에서 축복받은 자들의 현현, 열린 하늘의 상징, 자랑스럽게 기뻐하다(즉, 크게 기뻐하거나 승리하다), 기뻐하다 등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아내의 성공과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는 남편의 성공이 아내에게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아내는 남편의 명성, 높은 지위, 널리 퍼진 칭찬, 영예, 번영, 하나님의 임재, 찬란한 광채 등을 반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아내는 남편의 가장 큰 성취입니다. 부부 관계는 "달과 태양"의 관계로 가장 잘 비유될 수 있습니다. 달은 태양의 영광입니다. 즉, 달 자체에는 영광이 없다는 뜻입니다. 달의 아름다움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태양과 달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면, 달은 계속해서 태양의 빛을 반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는 달이고 남편은 태양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남편이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라면 아내가 남편에게서 받아야 할 빛이 흐려지고 아내는 그 빛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완벽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당신의 영적인 모습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약점을 때때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내는 대부분의 경우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든 당신 안의 문제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결혼 서약상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찾아야 할까요?

답은 여덟 글자로 된 한 단어, 바로 "안전"에 있습니다. 아내가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즉 감정적으로(분노, 기쁨, 두려움, 슬픔 등과 같은 감정의 변화), 재정적으로(금전적 지원이나 생계 유지 등), 사회적으로(조직화된 공동체 생활 및 공동체의 복지 등), 영적으로(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비전을 갖고 가족과 함께 그것을 추구하는 것) 안정감을 느낄 때, 이는 남편과의 관계가 좋고 남편이 언약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자주 불안해한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어떤 일이나 누군가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아내가 남편이 주어야 할 것을 받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경우입니다. 남편이 언약적 의무를 다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아내를 "보호하고 부양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어떤 공격이나 압력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을 알 때 행복하고 더욱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아내는 어떤 문제나 위험에서도 자신을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음직한 남자가 필요합니다. 아내는 당신이 도전에 맞서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아내는 당신이 가정에서도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신과 아이들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의 영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육체적인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남편의 또 다른 의무는 아내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가족, 특히 자기 집안 사람들을 부양하지 않는 자는 믿음을 부인한 것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 (디모데전서 5:8).

이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과부를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권면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_____ 이는 디모데전서 5장 3-16절에 언급된 다른 조건들을 충족하는 60세 이하의 과부는 당신의 가족의 일원이며, 성도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러한 과부를 두었다면,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당신의 의무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앞두고 요한에게 마리아를 돌보라고 명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준비하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프론(Prn)이며, 프론-에-오(pron--eh-o)로 발음됩니다. 이는 미리 생각하다, 즉 사전에 준비하다(실제로는 타인을 부양하거나, 신중함이나 경계심을 갖고, 조심하거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를 의미합니다. 챔버스 사전(Chambers Dictionary)은 "준비하다"를 공급하다, 제공하거나 양보하다, 특히 공석이 되기 전에 직책을 부여하거나 권리를 주다, 약정하다, 미리 준비하다(구식), 미래의 사용을 위해 준비하다, 대비하다, 필요한 물품이나 수단 등을 조달하다, (찬성 또는 반대) 조치를 취하다 등으로 정의합니다. 즉, 그녀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떨어지기 전에 그녀와 온 가족의 필요를 위해 미리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녀가 사치스러운 타입이라 중요하지 않은 것에 돈을 펄펄 쓰고 정작 가족에게 필요한 중요한 물건은 사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준 돈으로 산 물건들을 꼼꼼히 관리 감독하고, 개인적인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여분의 돈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남자는...

아내의 필요뿐 아니라 온 가족의 필요까지 충족시키지 못하면 남편의 권위는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됩니다.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즉, 성경 말씀에 따라), 영적, 재정적 필요 등 아내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아내의 눈을 가려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이러한 필요를 다른 곳에서 채워달라고 애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한다면 아내는 물론 아내의 친구와 친척들에게도 큰 존경을 받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당신을 잘 보살피는군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어디에서든 얻어야 할 존경과 자부심은 교육, 돈,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에서 부부의 의무를 요약하자면,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부양해야 하며, 아내는 남편을 지지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두 사람이 엄숙한 언약 관계를 맺을 때에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9장

언약은 지식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 장을 다루기 위해서는 결혼과 지식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남녀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결혼이라는 언약을 맺을 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방식으로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챔버스 사전(Chambers Dictionary)에 따르면 결혼은 남녀가 부부가 되는 의식, 행위 또는 계약, 즉 남녀가 부부로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은 동사 '알다'의 명사입니다. 따라서 '알다'는 히브리어로 '야다(yâda)'이며, '야다'라고 발음됩니다. 이는 관찰, 주의, 인식, 인정, 친숙함, 인지, 알고 있음, 이해함을 의미합니다. 챔버스 사전은 '알다'를 '정보를 얻거나 확신하다', '친숙하다', '배우거나 경험하여 익숙해지다', '인식하다', '주목하다', '승인하다', '지식을 소유하다', (영적으로는 성관계를 맺다) 등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지식 그 자체는 알려진 것, 정보, 가르침, 깨달음, 학습, 실용적인 기술, 확고한 믿음, 친분, 인식(법칙), 성적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결혼, 앎, 지식의 의미를 살펴본 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앎 또는 지식은 서로 성관계를 맺거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구약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은 남녀 간의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성관계와, 결혼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성관계를 구분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성관계의 경우, 성경은 그가 그녀와 동침했다고 결론짓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성관계의 경우에는 그가 그녀를 알았다고 말합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이브가 임신하였다(창세기 4:1).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더라." (창세기 4:17)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셋이라 불렀다."
(창세기 4:25)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하나를 알았더니 여호와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다"(사무엘상 1:19).

"그날 밤 그들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맏딸이 들어가 아버지와 동침하였다." (창세기 19:33)

"그날 밤에도 그들은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고, 둘째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였다."(창세기 19:35)

"히위 족속 하물의 아들 세겜 곧 그 나라의 왕이 마리아를 보고 그 마리아를 데려다가 동침하여 더럽혔다"(창세기 34:2).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오니 그녀가 그에게로 들어와서 그와 동침하였다." (사무엘하 11:4)

이는 남자가 여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러한 종류의 성관계나 관계를 음행 또는 간음이라고 묘사하며, 이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입니다. 주님의 영감을 받은 바울이 이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살펴보십시오.

"너희는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애를 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술 취하는 자, 비방하는 자, 착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6:9-10)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과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6:18-20)

하나님과 부부로 언약을 맺은 남녀 사이의 성관계는 그들의 결합을 육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들은 진정으로 한 몸이 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인들과 한 영이 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참되고 친밀한 예배를 통해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희생합니다. 이는 그들이 서로에게서 얻는 감정적, 육체적 만족감 외에도, 자신들의 피를 예수님의 피, 즉 언약의 피로 교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에이즈를 비롯한 많은 질병이 혈액을 통해 전염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혈액 교환은 부도덕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묘사된 부도덕한 성관계는, 알지 못하는 여러 여자와 동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언약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결혼과 지식을 어떻게 연관 짓는지 설명했으니, 이제 인간적인 관점, 즉 사전적 정의를 통해 지식과 결혼을 살펴보고, 이 신성한 언약을 경멸해 온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첫째로, 챔버스 사전은 결혼을 남자와 여자를 남편과 아내로 결합시키는 의식, 행위 또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_____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존귀한 것이며, 침상은 더럽혀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음행하는 자들은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히브리서 13:4).

'존경할 만한'이라는 뜻의 그리스어는 Timis이며, tim/-ee-os로 발음됩니다. 이 단어는 '귀중한', 즉 (목적적으로) 값비싼, (주격으로) 존경받는, 존중받는, (비유적으로) 사랑받는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소중한', '존경할 만한', '존경할 만한', (더욱이, 가장) '귀중한', '명성이 있는' 등의 뜻입니다. 챔버스 사전은 '존경할 만한'을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탁월한', '명예로운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선한', '정직한' 등으로 정의하며, '명예를 부여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더럽혀지지 않은'이라는 뜻의 그리스어는 amiants이며, am-es/-an-tos로 발음됩니다. 이 단어는 '더럽혀지지 않은', 즉 (비유적으로) 순수한, 더럽혀지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침해되지 않은, 부패하지 않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결혼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하지 않으면 결혼이 아니라고 여겼고, 회심 전에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재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도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불완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유대인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린 소년이 아닌 남자와 어린 소녀가 아닌 여자가 두세 명의 증인이 증명하는 가운데 부부로서 서로를 묶는 데 동의하는 모든 관습, 법, 의식, 계약,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혼외정사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회개하고 회심하기를 거부하더라도 재혼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죽음만이 그러한 결합이나 언약에서 당사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잃을까 봐 두려워 떨어져 지내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재혼하거나 간음을 저지르지는 마십시오(롬 7:1-3, 고전 7:10-15 참조).

바울이 오늘날 기독교 세계와 전 세계에서 행해지는 일들과 관련하여 무엇을 의미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남자가 부부로 살기 위해서는 각자의 마을, 도시, 또는 국가의 전통적인 결혼 관습을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명시된 몇 가지 율법만 지킨다면 그들의 관습은 옳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나라의 관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결혼하기에 적합한 나이가 되려면 다음 성경 구절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 2:24).

이 책에서 여러 관점에서 이 성경 구절을 여러 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그들의 집을 떠나 자신의 집을 빌리거나 사거나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통제나 영향력에서 벗어나 모든 관습과 전통(영적, 결혼, 물질적, 재정적, 사회적, 문화적 등)을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고,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배우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고, 찾더라도 그들에게 온전히 붙들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당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을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맹세하여 자기 영혼을 결박하였으면, 그는 자기 말을 어기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온 모든 말대로 행해야 한다."
(민수기 30:2)

이는 남성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아버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남성은 부모와 상의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출생 국가를 떠나 다른 국가에 귀화할 수 있습니다. 귀화한 국가에서 결혼할 경우, 상대방이 해당 국가의 시민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출생 국가의 관습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녀가 관습을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상의 결혼을 존중하지 않았고, 가족들이 결혼에 참여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모든 전통과 관습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게 공격하고 있으며, 또한 20세 이상의 남성은 원한다면 부모와 헤어지거나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모세의 명령을 살펴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 가족별로, 그 조상의 집안별로, 그 이름 수대로 세어라. 모든 남자는 스무 살 이상 된 자로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그 수대로 세어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별로 계수하여라." (민수기 1:2-3)

성경적으로 이 시기는 젊은이가 아버지의 통제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1장과 출애굽기 30장 11-16절은 이러한 보리 또는 구원의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가 법정에서 결혼을 결심할 수도 있으며, 이것 또한 결혼으로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젊은이가 우리 주 예수님의 제자이고, 전통과 관습, 그리고 세상의 모든 체계에서 분리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제가 언급한 다른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받아들여지고 더 존귀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리의 의미를 이해하고 아브라함처럼, 또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지킨다면 말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그 약속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여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본향을 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나은 본향, 곧 하늘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13-16)

하나님께서서 그를 한 젊은 여인에게 인도하셨는데, 그녀는 분리의 의미를 알 뿐 아니라 것처럼 분리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리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기쁨 부음 받은 사람에 의해 교회나 교제 가운데 결합될 수 있었고, 분리의 의미를 이해하는 두세 명의 증인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바울은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분리된 그릇, 즉 우리 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이며, 따라서 세상의 어떤 전통이나 관습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치러진 대가이며, 그래서 그 피를 구속의 피(분리의 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피는 여러분을 모든 전통과 관습, 그리고 세상의 모든 체계로부터 구속하거나 분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게 합니다. 여성이 어떻게 아버지의 집이나 통제, 영향력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자기 민족의 전통이나 관습에 어긋나지 않고 이러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려면, 구약 시대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에는 가능해졌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쓴 이 서신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27-28)

이 성경 구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하나님의 종들이 이 구절을 자신들의 반역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해, 여성들을 목사, 전도사, 교사, 선지자, 사도, 감독 등으로 안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녀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중대한 영적 오류입니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오직 주님 안에서 성숙하고 나이가 든 여성들만이 교회의 일꾼(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아닌)이나 여집사로 섬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 즉 노예나 여자는 군대에 입대할 수 없었고(오늘날의 제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성막에서 일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출신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입었으므로 제자로 등록하거나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젊은 여성이 스무 살이 되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구원이나 분리의 나이에 이르게 되며, 따라서 자신의 민족이나 국가, 또는 태어난 나라를 버리고 더 나은 삶을 찾아 다른 국가나 나라로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정할 수도 있음을 나타냅니다. 모세는 민수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실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젊은 나이에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여호와께 서원하고 매로 묶으면, 아버지가 그 서원과 매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서원과 매는 효력이 다하고, 만일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듣고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과 매는 효력이 다하고, 여호와께서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하시리니 이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민수기 30:3-5)

만약 어떤 여성이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스무 살이 되어 아버지의 통제, 영향력, 지배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고,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면, 그녀는 원한다면 아버지의 모든 전통과 관습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자유 속에서, 그녀가 살고 있는 국가나 주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마음에 드는 남성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남성과 결혼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결혼 생활에서 아버지의 전통을 따라야 할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 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아버지의 집, 통제, 영향력, 지배에서 벗어난 미혼 여성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약의 배우자를 만난다면, 아버지의 전통과 관습에 얽매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딸이 더 나은 직업이나 사업을 얻어 부모를 부양하게 하려는 욕심에 딸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결국 결혼에 이르러 그 권위를 되찾으려 하는 부모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권위를 잃으면 딸과의 모든 관계에 묶이게 되며, 언제든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남녀가 각각 남자와 여자로 여겨지고, 챔버스 사전에 따르면 부부로 결합하는 결혼 행위나 계약이 가능했던 성경 시대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또는 사전적 정의를 통해 '지식'을 설명하고 결혼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알다' 또는 '지식'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면밀히 관찰하고, 주목하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친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배우거나 경험함으로써 그 사람이나 사물에 익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에게 청혼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결혼은 여성의 성격이나 생활 방식을 면밀히 관찰하고, 주목하고, 이해하고, 알아본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 또한 남성의 행동을 충분히 파악하고 경험한 후에야 청혼을 승낙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거나 파탄 위기에 처한 이유는 배우자들이 결혼 전에 서로를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서로를 알아가고 성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 또는 많은 카리스마적 목사들이 설교하는 이러한 종류의 데이트나 구애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방식은 많은 부도덕을 조장하며, 많은 방탕한 젊은 남성들이 이러한 목사들의 무지를 이용하여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여성들을 유혹하고, 결혼하지도 않은 채 성적으로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혼 전에 약혼자가 젊은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간음이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경에는 이 점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실패하면 남편은 누구를 따라 아내를 떠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재정적, 물질적 이득을 위해서든, 혹은 아무런 이득도 없는 오랜 전통이나 관습 때문엔 자녀를 노예처럼 팔아 영원한 후회와 슬픔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딸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일찍 결혼시키거나, 남편감을 직접 골라주기도 합니다. 이런 결혼은 대개 실패로 끝납니다. 딸들이 장성했을 때, 자신이 그 남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거나, 처음부터 그들의 행동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딸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솔로몬 왕의 입을 통해 잠언 18장 22절에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진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시도를 해보셨지만 성공하지 못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은 하와를 만나게 되어 기뻐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찾는 이 문제를 당사자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자신에게 완벽하게 맞는 짝을 찾으려 하고, 젊은 여성들은 조용히 기도하며 자신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거나, 인내심을 갖고 서로를 살펴보는 서로에게 맞는 짝인지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부모는 자녀의 배우자를 정해주거나,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으로 자녀에게 걸림돌을 놓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같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고 같은 대학교에 진학하여 9년에서 10년 넘게 서로를 알아가며 오랜 관계를 결혼으로 맺어간 남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부모가 자녀가 약혼자와 결혼하는 것을 막고, 자녀가 알지도 못하고 평생을 함께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결혼시키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계약에 넘어가는 젊은 남녀에게는 이것이 바로 슬픔이나 파멸의 시작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진정으로 또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람들, 즉 시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중매결혼이나 계약결혼(즉, 부부 간의 결혼)이 아닌 경우, 그리고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와 재혼하는 경우(재혼은 본국 시민일 수 있음)에는 간통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서 멸망할 것입니다(마태복음 19:3-11 참조). 간음하는 자들이 이 교훈을 통해 회개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말을 한 가지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미국에서 오랜 세월을 살다가 나이지리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만난 유럽 출신의 여성과 결혼했고, 슬하에 아들과 딸,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아직 미국에 있었지만, 남편은 나이지리아에 정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이지리아로 돌아온 후, 그는 주님을 영접했고, 때는 1989년경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이 아직 나이지리아로 올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목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가 축사 사역자 중 한 명이었기에, 담임목사님은 우리에게도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담임목사를 포함한 모든 교인들은 아내가 나이지리아로 오기를 거부한다면 남편이 재혼할 수 있다고 무지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a) 남편은 불신자였을 때 결혼했지만, 주님을 영접한 후 주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으므로 이제 주님 안에서 재혼할 수 있다는 것. (b)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는 것.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떠나가면 떠나가게 하십시오. 그런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구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화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당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는 바가 적었지만, 오직 죽음만이 부부를 갈라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간음이나 남편의 새로운 믿음도 이혼이나 재혼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홀로 주님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아내가 다시 돌아오도록 인도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료들이 "아내가 아직 남편과 함께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어떻게 간음을 피하거나 막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만약 남편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할 수 없다면, 미국으로 돌아가 아내와 아이들과 재혼하되,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정해진 때에 그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 의견은 동료들에게는 근거 없는 것이었고, 결국 남편은 재혼하라는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사역에서 불러내어 따로 구별하여 훈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전 세계뿐 아니라 기독교 세계에도 수백만 건에 달하며, 많은 목사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 존경받는 언약 제도를 파괴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 어느 곳에서든 남자끼리, 또는 여자끼리 부부가 되는 전통, 관습, 의식, 행위, 계약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존귀하며 존중받을 만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소년이나 간음하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안 되며,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는 간음하므로 혼외정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처럼 다른 남자를 낭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남편 또한 이성으로부터 그러한 시선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또한 그러한 시선으로 이성을 바라보아서도 안 됩니다. 이는 유혹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창세기 20:1-16).

제10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사이의 언약

하나님과 교회의 언약은 아담이 아내 하와와 부추김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언약을 어기는 데 가담한 모든 자들을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그녀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5)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조상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여주시실 낯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의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 온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창세기 12:1-3).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던 후 롯과 헤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살고 있는 땅의 북쪽, 남쪽, 동쪽, 서쪽으로 그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과 헤어지기 전까지는 그의 후손에게 상속받을 땅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많은 신자들, 특히 가족에 대한 애착 때문에 점차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잃어가는 이혼한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창세기 13:14-17 참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 사라를 통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셨고,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창세기 17:16-21).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이 남았습니다. 이삭이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직 곁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예비로 두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조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2장 1-14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이 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을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을 행하고 네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여 네 자손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요 네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였음이라"(창세기 22:17-18).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 부르심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이스라엘과 많은 아랍 민족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바닷가의 모래알"이라는 표현의 의미처럼), 전 세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성도들의 아버지이기도 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기 전후에 그에게 겪게 하신 일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언약 전후에 겪게 하신 일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시내산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출애굽기 24:1-8 참조)은, 주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거처야 할, 아브라함이 모든 일에 복을 받았듯이(창세기 13:2, 24:34-36 참조) 복을 받고, 영적인 땅 가나안을 상속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겸손해진 후에 물리적인 가나안 땅을 상속받은 것과 같습니다(신명기 8:1-5).

덧붙여 말하자면, "가나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 나에 안"인데, 이는 "카나"에서 유래했으며 "카우나"라고 발음됩니다.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 굴복시키다, 정복하다, 낮추다, 복종시키다, 겸손하게 하다, 굴복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영적인 땅(즉, 위의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겸손해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9장과 11장, 그리고 예레미야 33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그의 어깨 위에 통치권이 놓일 것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통치와 평화는 끝이 없을 것이며, 다윗의 시대와 그의 왕국 위에 세워져 공의와 정의로 영원토록 다스려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사야 9:6-7)

이새의 줄기에서 한 지팡이가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날 것이며, 여호와와 영이 그 위에 임하시리니 곧 지혜와 명철의 영, 모략과 용맹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라.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명철하게 하시리니, 그는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의로 가난한 자를 재판하고 공의로 땅의 온유한 자를 책망하며 그의 입의 지팡이로 땅을 치고 그의 입술의 숨결로 땅을 치리도다

"그는 악인을 멸하시고, 그의 허리에는 의가, 그의 허리띠에는 신실함이 따르리라"(이사야 11:1-5).

"보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약속한 좋은 일을 이루는 날이 오리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과 그 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라. 그가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리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거하리라. 그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의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 집의 왕좌에 앉을 자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도 내 앞에서 번제물을 바치고 화목제물을 태우고 제사를 끊임없이 드릴 자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 하셨느니라 (렘 33:14-18).

다윗의 가지이시며 아브라함의 씨이신 주 예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손이시며(마태복음 1:1-17),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이어가시도록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초대 사도들을 통해 교회와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와 다시 맺으실 새로운 언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맺으실 유일한 언약은 육신의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실 새롭고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계획을 주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고자 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의를 따르는 자들아, 여호와를 찾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나온 반석 (그리스도 예수) 과 너희가 파낸 구덩이 (지옥 또는 세상과 그 체계) 를 바라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바라보라. 내가 그를 홀로 불러 복 주고 번성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시며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시고 그 광야를 에덴동산처럼, 그 사막을 여호와와 동산처럼 만드시리니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래 소리가 넘치리라"(이사야 51:1-3)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언약을 지키고 의롭게 행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사셨을 때 오직 아버지(하나님)의 뜻에만 귀 기울이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등지고 세상 체제에서 자신을 분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헌신하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지옥의 권세와 세상 체제를 움직이는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에서 주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분이 이미 내려놓으신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듣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요, 내 판단은 공의롭다. 이는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5:30)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습니다." (요한복음 6:38)

"이제부터 나는 너희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는데, 그는 내 안에 아무 힘도 없다." (요한복음 14:30)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요한복음 17:16).

이러한 성경 구절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더 많은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하늘에 두고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그분께서 "세상의 통치자가 오지만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문맥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ch'이며, 'ekh/ -o'로 발음되는데, 이는 (문자적으로든 비유적으로든) 붙잡다, 소유하다, 능력, 인접성, 관계를 의미합니다. 챔버스 사전은 '붙잡다'를 '유지하다', '가지다', '붙잡다', '소유하다', '지키다', '권력', '지탱하다', '성공적으로 방어하다', '유지하다', '권한을 갖다', '생각하다', '믿다', '점유하다', '권한을 넘겨주다', '묵다', '포함하다' 등으로 정의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에게 속한 것이 아무것도 자신 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교육 체계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지혜를 전혀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제도에 따른 결혼에 관여하지 않으셨지만, 하늘에서 그분의 신부(교회)와 결혼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유대교나 세상 제도의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일상적인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선포하는 일에만 전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문화와 사회생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이후로, 그분은 세상의 어떤 조언이나 지시에도 귀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한 누구에게서도 그런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흠 없고 책망할 데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그분과 언약을 맺었을 뿐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기로 동의한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과 친척과 고향을 떠나 자신을 하나님의 섬김에 헌신하고 죽을 때까지 그분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일에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선거에 출마하려면 먼저 현재 맡고 있는 공직을 사임해야 하는 것처럼, 제자도 새 예루살렘에서 선거에 출마하려면 기존 체제를 버리고 나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42 대손이시며,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새 언약의 기초가 되실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대까지 기다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수 체계에서 42는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 오실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첫째,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을 모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초기 사도들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 그들을 온 기독교 세계를 대표하여 신부로 삼으시고, 그분은 그들의 신랑이 되십니다. 둘째, 두 번째 오심은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신 모든 나라에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친신부로서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신 바와 같습니다. (참고문헌)

(렘 31:31-34, 렘 32:37-42, 히 8:8-13). 하나님께서 창 3:15에서 사탄에게 내리신 저주, "내가 네 자손과 그녀의 자손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자손이 네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를 성취하시기 위해,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쓰임 받기로 하고,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말씀을 잉태하여 훗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때가 차매 (즉, 장성했을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처럼 양아버지의 집과 친족,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나이는 서른(30)세라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른은 피를 상징하는 숫자이며, 피는 구속 또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께서 양아버지의 집과 고향을 물리적으로 떠나지 않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지한 신자들과 세상은 예수께서 젊었을 때 양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종했을 뿐 아니라,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민족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의 부모는 매년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살 되셨을 때, 그들은 명절 관습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어린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일행 중에 계산 줄 알고 하루 길을 가서 친척과 지인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를 찾았습니다. 사흘 후에 그들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고 질문하는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과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순종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눅 2:41-51).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순간부터 이러한 모든 관습과 전통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러한 관습들을 배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리된 새로운 지위에 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모, 형제자매, 친척, 온 세상과 그 모든 체계를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섬김에 헌신하였으며, 자신과 같은 일을 할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침내 열두 제자, 곧 사도들을 택하신 후, 그들을 따로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율법과 원칙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은, 시온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자들만이 제자로 택함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난의 용광로(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겪게 될 극심한 고난을 의미함. 이사야 48:10 참조)에서 택함 받았습니 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교회의 모형)에게 하나님의 율법뿐 아니라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도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은 하나님의 율법뿐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원수를 대적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율법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시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남짓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시며 거룩함과 성결의 의미를 가르치시고, 자신의 행실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을 신중하게 계획하셨습니다(마태복음 25:20-29, 누가복음 22:1-22, 요한복음 13:1-13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이 마지막 만찬에서 사도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은 온 인류를 대표하며, 인류는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처럼 세상의 모든 체계에서 분리되어 자신을 하나님의 섬김에 헌신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감으로써 그분께 순종할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후, 유다는 예수를 떠나 배신했습니다.

"배신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단어는 "파라디드미(Paradidmi)"이며, 발음은 "파라디드미"입니다. 이 단어는 항복, 즉 굴복, 말기다, 전달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신하다, 드러내다, 던지다, 저지르다, 넘겨주다, 내주다, 위험에 빠뜨리다, 투옥하다, 추천하다 등의 의미가 포함됩니다. 챔버스 사전은 배신을 "적에게 배신적으로 또는 기만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다", "신뢰를 저버리고 누설하다", "순진하거나 신뢰할 만한 사람을 속이다", "유혹하다", "희망을 저버리다", "의도치 않게 드러내거나 보여주다", "징후를 보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반면 "전달하다"는 "보내다", "전달하다", "전파하다"는 "전달하다", "소통하다", "라디오, 신호, 프로그램 등을 보내거나 방송하다", "전송하다", "통과를 허용하다", "매개체 역할을 하다", "라디오 신호를 보내다"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유다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적들에게 주님에 대한 배신적인 정보를 누설했습니다. 그는 그분에게 걸었던 희망을 저버렸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같은 지파 출신이었기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불신자들의 사주를 받아 우리 주 예수님과 그분의 참된 제자들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데 가담한다면, 아마도 불의 시련(믿음)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유다의 영을 행하는 것이며, 스스로에게 재앙을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제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겪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이나 싸움은, 믿음을 저버리고 여전히 여러분의 믿음을 지지하는 척하는 가까운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친척들로부터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유다가 떠난 후, 예수님은 나머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르치신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즉 새 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3:34-35)

을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새로운 계명, 즉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5-17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곧 죽음을 통하여 이전 언약 아래 있던 죄인들을 속량하시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기쁨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유언자의 죽음이 있어야 함이니라.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 효력이 있고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15-17)

성경적으로 언약과 유언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구약과 신약, 즉 언약의 체결 과정을 담은 책들을 흔히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언약이 맺어질 때, 언약을 맺은 사람이 죽어야 그 언약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두 집단이나 두 당사자가 언약을 맺을 때, 주요 당사자가 죽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값을 치르도록 허락하신 대리인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언약에서 이삭이 죽을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대속 숫양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들이 언약을 실제로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인 전 세계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도들 사이의 언약이었기에,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양쪽에서 누군가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제자들 쪽에서는...

한편, 멸망의 아들은 다른 제자들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이 포도주 잔은 제자들을 예수님과 수직적 관계뿐 아니라, 서로 간의 수평적 관계로도 맺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교회의 성찬식의 중요성을 권면하시면서, 한 떡과 한 잔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존재해야 할 형제애를 더욱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어 먹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여럿이지만 한 빵이요 한 몸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16-17).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성찬식이 형제애의 언약이 있는 곳에 존재해야 할 일치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한 덩이의 빵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 즉 일반적으로 진지한 마음을 가진 언약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더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타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에 합당하지 않게 먹으면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시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많은 사람이 죽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1:26-30)

성찬식은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 곧 형제 언약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헌신적인 형제들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언약 형제들에게 불명예를 안겨줄 만한 생각이나 말,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후에,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는 형제자매를 비방하거나 악행을 저지르면, 그 성찬(곧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한 죄를 범한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는 자들이 주의 떡과 포도주를 함당하지 않게(즉, 악의나 죄악된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악행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약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거의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으로 인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죽거나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언약을 맺는 순간,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죽음의 영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언약을 어기는 자들을 멸망시키려고 덮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형제자매들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거나, 헌신적이고 진지한 마음을 가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며, 성찬식을 통해 서로의 일치를 나타내거나 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할 기회를 갖는 사람들은 서로를 배신하거나 주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믿음을 매우 신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저버리기 시작하면 결국 형제자매들을 배신하게 되고,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배신과 신성모독으로 직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서신에 따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어둠에서 불라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신 이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베드로전서 2:9-1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은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이전 언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언약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교회와 맺으신 언약을 통해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의 제사장으로서 삼으셨고, 또한 그분께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신 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록된 것처럼 길고도 친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세상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세상의 모든 체계에서 분리되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끝까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 언약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모두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 되고, 주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는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와 같은 본질과 속성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언약의 본질과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주 예수님의 역할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영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에 따르면, 영생이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분을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그분과 친숙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며, 이는 주님과 의 길고도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많은 박해와 환난, 비난, 기근, 고난, 밤샘 기도, 금식 등을 견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6절,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것이었으나 당신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었으므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이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곳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신 제자들을 주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 제자들은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세상의 체제와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의 체제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그 체제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 언약의 형제로 주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체계에서 분리되거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의 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9절과 20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크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게 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제도에서 자신을 분리하여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 않고 세상 제도에서 나오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주님께서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심판의 때에 그들은 세상 제도와 함께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17-19)

"성결"이라는 단어는 기독교계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성결이 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소수의 목회자들조차도 성도들을 잃을까 두려워 설교나 가르침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성령께 자신을 내어 성결하게 되기를 결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결이란 세상과 그 체계로부터 자발적으로 분리되어, 그분의 사역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당신을 기쁨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래에 두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 또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마침내 당신은 날마다 주님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추거나 세상의 체계로 돌아가는 순간, 당신은 거룩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절들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그분(예수님)은 거룩하게 되셨고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삶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님께 순종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배우게 될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하게 하지 않은 사람을 세상에 보내어 그분의 말씀을 전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을 받지 못한 채 길을 가거나 가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에서 모든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 되기를) 간구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오직 "거룩함"이라는 열네 글자로 된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언어, 부족, 국적, 피부색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거룩해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사람들을 흠으시기 전의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그분이 계신 곳에 함께하여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22절에서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과 그분과 언약을 맺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4:26-33, 마태복음 10:32-42, 막상막하 10:17-31, 누가복음 12:49-53, 히브리서 13:11-14, 디모데후서 2:3-4 등에 나오는 이러한 기준들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그분이 요구하시는 다른 기준들을 깨닫게 해 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눅 14:26-27,33).

기독교인 대다수,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중요"라는 단어를 듣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왜곡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러한 무지한 신자들이 하나님은 감정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진실이며, 인간의 감정과 상관없이 성령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도록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그분과 다투느냐? 그분은 자신의 일에 대해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으신다."
(욥기 33:13)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그분은 아직도 책망하시는가?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했던 말인가?"
그러나 오 인간아, 네가 어찌 하나님께 대답하느냐? 지음 받은 것이 지음 받은 자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드셨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진실을 알려주어 제때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자신을 따르라고 간청하거나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만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지 여부는 각자의 선택이며, 만약 제자가 되기로 했다면 그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워하다"라는 말은 그들의 전통, 관습(예: 사회적, 영적, 문화적, 결혼, 장례 등)이나 부모, 형제자매, 아내, 자녀, 심지어 자신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극심한 혐오 또는 폭력적인 혐오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들을 버리거나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버리는 것은 악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연결고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언약을 맺었거나 맺었다고 믿으면서도 희생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과 그 쾌락을 포기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섬김에 헌신하며, 그분께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 준비가 될 때까지는, 당신은 아직 그분께 합당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에는 반드시 박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해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맺으신 언약은 그들을 세상의 체계에서 구원해 내는 것이지, 일부 고집 센 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을 세상 체계 안에 가두어 두어 체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속죄 제물로 흘려졌고, 그것을 "구원의 피(분리의 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마땅히 드릴 예배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롬 12:1-2)

"Conform"이라는 단어는 suschmatiz이며, soos-khay-mat-id-zo로 발음됩니다. 이는 "비유적으로 똑같이 만들다", "같은 패턴에 따르다", "~에 순응하다", "~에 따라 자신을 형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챔버스 사전은 conform을 "같은 형태나 유형으로 만들다", "채우다", "준수하다", "복종하다"로 정의합니다. 챔버스 사전에 따르면 "transform"은 "모양을 바꾸다", "특히 근본적으로 또는 완전히 다른 형태, 외관, 물질 또는 특성으로 바꾸다", "형태를 바꾸다" 등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주님과 오랫동안 함께 일하면서,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의지나 연약함을 강요하는 것을 주님께 책망받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자신 휘하의 사람들에게 가서 일해서 먹고 살도록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제자들에게 증언을 통해 그들의 구별을 온전히 지키고 그 제도에 더럽혀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풀려난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사도는 이 예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태어남으로써 육신의 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도 결혼하여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며, 그리하여 그분께서도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12장 1-2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즉, 제단 위에 죽은 짐승처럼 아무런 의지나 욕심 없이 바쳐진 생명,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가짐)을 드리려면 육신의 법과 같이 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모형을 따르거나 세상 체계에 순응하거나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마음과 외모, 성품 등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체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기도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입니다.

"여호와와 비밀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며, 그는 그들에게 그의 언약을 나타내 보이시리라."
(시편 25:14)

이는 전 세계 대다수 신자들이 주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직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그분의 비밀을 알 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역사하실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장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와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그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에게 자비와 진리이니라."

이 두 성경 구절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비밀 문서에 담긴 그분의 비밀을 오직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계시하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자비와 진리로 여깁니다. 주님께서 시편 50편 5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천사들에 의해 그분께로 모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의 휴거는 모든 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께서 교회와 맺으신 언약의 상징은 그분의 신부가 안식, 곧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는 히브리서 4장 1-11절에서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안식 가운데 있지 않거나, 안식을 위해 애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그분께로 모여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제11장

언약 관계에 있는 제자 또는 성도의 책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에게

이 책 6장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그들을 한 민족으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서 그들이 서로에게 저야 할 책임들을 명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으로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지 않은 다른 민족 구성원들과는 다른 특별한 책임들을 서로에게 저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은 세상 어디에서든 그리스도 예수와 새 언약을 맺은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 형제자매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책임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은 서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계하실 때 이 점을 여러 번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의 왕들은 백성을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혜를 베푸는 자라 하나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작은 자처럼 되고 으뜸가는 자는 섬기는 자처럼 되라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더 크겠느냐 섬기는 자가 더 크겠느냐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아니냐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섬기는 자와 같이 있느니라"(눅 22:25-27).

"내가 너희 주이며 스승인데도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분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행해야 한다."
(요한복음 13:14-15)

세상 사람들은 섬기는 자를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로 여기지만, 성경적으로 가장 위대하고 으뜸이 되는 가장 간단한 길은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며 본보기를 보이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자유를 얻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 다만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데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갈라디아서 5:13). 서로 발을 씻겨 주거나 서로 섬기는 것은 주님께서 높이시는 방법 중 하나이며, 성도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점을 지적했을 뿐 아니라, 디모데에게 과부를 진정으로 알아보고 그 짐을 교회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는 조건 중 하나로 이것을 지시했습니다(디모데전서 5:10 참조).

b.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며, 이는 다른 모든 책임의 근본입니다. 사랑은 나무의 뿌리와 같고, 다른 책임들은 가지와 같이 때문입니다. 사랑이야말로 다른 책임들이 가능하게 하는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사랑을 유일한 계명으로 주신 이유도 바로 그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3:34-35)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12).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각 상황에서 서로를 대하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 돕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과 같은 영역 외에도, 형제자매가 음행이나 간음을 저지르거나 무질서하게 행할 때, 주님께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그 사람을 출교하거나 징직시키도록 인도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러한 조치는 그 사람이 결국 회복되었을 때 같은 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교정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c. 서로를 세워준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교화하고, 믿음과 거룩함을 향해 영적으로 강하게 하며,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를 세우고 굳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음 두 구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힘쓰도록 합시다."

(로마서 14:19)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데살로니가전서 5:11).

바울이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를 믿음과 거룩함으로 이끌어주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그들은 이기심이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피해야 합니다.

d. 성도들은 서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몸 안으로 받아들이고, 권위나 진리로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그리고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 사이의 간극을 메웠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되었고, 또한 할례받은 자였지만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시민권을 갖도록 인도하도록 파송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 이방 민족에서 오랜 사도적 사역을 마친 바울은 자신이 감독하던 교회 중 하나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영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영접하라."

(롬 15:7)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막론하고 많은 신자들이 할례와 무할례 때문에 서로 차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 성도들의 행위가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물세례를 받지 않으면 교제하거나 함께 기도하지 않고,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설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지상에 계실 때, 즉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지시하신 마태복음 28:19-20의 예를 듭니다. 그들은 이어서 예수께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 또한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회심한 후에 정통 교회나 흰옷을 입는 교회가 아닌 곳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또 다른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단이며 기만입니다. 유아세례가 아닌 물세례(침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이 구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분을 알고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충분하리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립아?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가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요한복음 14:7-10)

다만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부활 후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셨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계시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한 후에 글을 쓰거나 설교해야 합니다. 이는 기독교계에 만연한 이러한 속임수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탄이 전 세계의 일부 하나님의 종들과 다른 신자들에게 속삭인 이러한 거짓말과 다른 수많은 거짓말 때문에, 그들은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대부분 주님께 거룩하게 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자가 된 이 신자들은 큰 속임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e. 우리는 서로를 기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기쁨을 주고, 만족시키고, (무언가를) 행하도록 의지하거나 선택하게 하고, 즐거움을 주고, 좋아하고,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우리는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하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 안 됩니다."

우리 각자는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바와 같이 "너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임하였다"(롬 15:1-3)라고 하셨습니다. '~을 지탱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나르다, 가지다, 운반하다, 지탱하다, 견디다, 용인하다, 받아들이다, 의도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들(즉,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연약함을 용인하고, 지지하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주님의 일에 굳건히 서도록 돕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배교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f.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권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권면이란 경고하고, 온유하게 책망하고, 주의를 주고,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 형제들아, 나도 너희를 확신하노니 너희도 선함으로 충만하고 모든 지식으로 충만하여 서로 권면할 수 있다"(롬 15:14).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함으로 충만하고 그분에 대한 모든 지식으로 충만하여 서로 경고하고, 책망하고, 조언할 수 있기를 기대하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나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잘못을 저지른 형제자매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g.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짐이란 무거운 짐, 감당하기 힘들거나 억압적이거나 어려운 일, 의무, 사람이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이나 제약 등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서로의 의무를 나누어 지도록 권면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밑줄 친 것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되는 율법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기를 위함입니다.

h.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자신을 절제하고, 삼가고, 인내하거나 자제하며, 자발적으로 피하고, 아끼거나 보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받은 은혜로 바울은 교회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포로 된 나 곧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평화의 띠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힘쓰라"(엡 4:1-3).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고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한다면 누구도 성령의 하나됨을 지킬 수 없고, 하나됨이 없다면 평화의 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i. 서로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스트롱 성경 사전(Strong's Exhaustive Concordance of the Bible)에 따르면 용서는 보내다, 내보내다, 버리다, 내려놓다, 떠나다, (혼자 있게 하다, 있게 하다, 가다, 가지다) 내버려 두다, 생략하다, 치워 버리다, 사면하다, 견디다, 포기하다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챔버스 사전(Chambers Dictionary)은 용서를 사면하다, 간과하다, 빛이나 죄를 용서하다, 포기하다, 자비나 동정을 보이다 등으로 정의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서로 친절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십시오."(엡 4:32)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쉽게 간과하실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자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용서에 있어서는 자신이 얼마나 많이 잘못했는지 기억하거나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놓아주고, 내려놓고, 떠나보내고, 버리거나 보내는 것 등을 의미하며, 이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처럼 그 사람과의 관계나 호의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더 이상 당신과 교류하기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누렸던 모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십니다.

j.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해야 하며, 이는 서로에게 자신의 의지를 양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파와 무할례파의 사도였던 베드로와 바울은 교회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젊은이들아, 너희는 장로에게 순종하라. 너희 모두는 서로 순종하고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베드로전서 5:5).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엡 5:21).

서로에게 복종하는 이러한 행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도 합니다. 마치 민주주의 정부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모든 사역자, 아니 형제자매들은 우리 구주 예수님 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오류를 바로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1장 11-14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베드로의 이방인에 대한 차별적인 행동을 바로잡았습니다. 베드로는 몇몇 유대인들과 함께 안디옥에 가서 그곳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보고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형제들이 방문했을 때,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피하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온 다른 유대인 형제들도 그를 따라 이방인들을 피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의 이러한 위선적인 행동은 안디옥뿐 아니라 바울과 함께 여러 이방 나라에서 사역했던 바나바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바울은 일어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여 그들의 악한 행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하나님의 권위를 공격하려는 교회 내 반역자들에게, 바울이 왜 그토록 담대하게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두 사람 모두 사도였기에 영적인 장로였습니다. 둘째,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영역에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지역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기쁘게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목사, 교사, 전도사 같은 젊은 사역자들에게 사도와 선지자 같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특히 사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교회의 기둥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와 선지자 같은 장로들에게는 서로 순종하여 모두가 겸손해지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르치는 데 능숙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아는 분야에서 서로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라"(골로새서 3:16).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는 계시로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면, 다른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1. 일부 목회자들은 속임수를 피하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와 때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17절에서 이에 대해 가르쳤을 뿐 아니라 18절에서는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15-17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하늘로의 들림에 관해 말한 모든 것을 진심으로 의미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곧 주님과 함께 하늘로 들림받을 소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때 위로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 위로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도록 권고받습니다.

m. 우리는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스트롱 사전(Strong's Exhaustive Concordance)에 따르면 '권면하다'라는 단어는 가까이 부르다, 즉 초대하다, 간청하다, 애원하다, 부르다, 탄원하다 등의 의미를 지니지만, 챔버스 사전(Chambers Dictionary)에서는 '강력하고 간절하게 촉구하다', '서로에게 조언하거나 충고하다'로 정의합니다. 성경은 "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악한 자가 있지 않도록 조심하라."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불신앙의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에 서로 권면하십시오. 죄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히브리서 3:13)

14) 모든 성도는 서로 날마다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도 죄나 불신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져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며,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24-25) '격려하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나 욕망 등을 불러일으키거나 자극하는 것, 부르거나 부추기거나 도전하는 것, 흥분시키거나 행동하게 하는 것, 자극하거나 선동하거나 초래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행이나 선한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거나 본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참되고 헌신적인 성도들과 교제하며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등의 활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우리의 잘못이나 죄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주 예수님과 육신으로 형제였으며,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 말년에 그는 교회에 야고보서를 썼는데, 이 책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실제적인 거룩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치유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효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16) 사도 야고보의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적 존재에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또는 고집스럽게 이 메시지를 무시해 왔고, 그 결과 멸망하여 지금 지옥에 있거나, 큰 속임수에 빠져 파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은밀히 저지른 죄를 주님께만 고백하고, 형제자매들에게 고백하여 기도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밀한 죄를 짓게 하는 악령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언약을 맺은 형제자매들에게 자신의 죄나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주 예수님을 대신하여 교회로부터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라면, 고난을 겪은 후에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교회로부터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죄라면, 다른 형제자매들은 당신의 문제나 잘못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각자 기도실에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해 줄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그 공격의 배후에 있는 악령들을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은 당신의 문제 뒤에 있는 악령들을 드러내고, 모든 형제자매들이 함께하는 연합적인 기쁨부음으로 그 악령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는 또한 여러분 안에서 교만과 자기 고집을 없애기 위해 겸손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로마인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에 순종하면 사망에 이르고, 의에 순종하면 의에 이르느니라" (롬 7:16).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주신 이 권면을 통해, 여러분이 마귀에게 굴복하여 은밀한 죄를 짓고, 회개하고 기도를 받기 위해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악령들의 종이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하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와 행동을 계속 유지하도록 부추기는 악령들에게 직접적으로 순종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죄를 숨기는 것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는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마귀의 노예가 되어 새로운 주인인 악마와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계명을 노골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믿음을 잃었고, 어떤 이들은 믿음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악마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없거나, 구원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믿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은밀한 죄를 짓고 있거나, 과거에 그러한 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나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벌을 내리든, 받아들이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악마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도 이러한 은밀한 죄에 연루된 자는 소속 기관의 요구에 따라 장로, 집사, 교회 봉사자, 나아가 교회 전체에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친절이란 서로에게 상냥하고, 환영하며,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서로에게 아낌없이 환대하십시오"(베드로전서 4:9)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왜 하필 "아낌없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노년에 접어들어 이 편지를 쓸 당시, 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명하신 사랑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제자들을 알아보는 표징입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 대부분에서 거짓 사랑, 즉 가장하고, 흉내 내고, 상상하고, 허구적이고, 위선적인 사랑에 대해 경고한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진실한 것에서 거짓된 것으로 돌릴 때, 세상의 악은 더욱 만연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믿는 자들이 참된 빛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부유한 사람이나 중요한 인물이 방문하면 극진히 환대하며, 심지어 그들을 접대하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까지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털어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접대하지만, 가난한 사람이나 가난한 형제자매가 찾아오면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한 형제자매에게 재정적, 물질적 도움은커녕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친절과 관대함을 베푸는 대상은...

친구, 가족, 그리고 그들과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사람들만 대하십시오. 그러나 이는 주님께서 언약의 형제자매들에게 다른 낯선 사람들을 포함하여 서로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성도들은 서로에게 겸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챔버스 사전에서 겸손은 낮음, 비천함, 겸손함, 꾸밈없음, 자신이나 자신의 주장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리는 것, 비하됨, 땅으로 끌어내리다, 낮추다, 굴욕감을 주다, 모욕하다, 격하시키다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스트롱 성경 사전에서 겸손은 낙담한, 즉 (비유적으로) 굴욕을 당한 (상황이나 성향에서) 비천한, 몰락한, 겸손한, 낮은 신분의, 비천함을 의미합니다. 명망 있는 집안이나 부유한 집안 출신이거나 스스로 부유하거나 학식이 높거나 더 나은 처지에 있는 많은 신자들은 겸손하지 못한 태도를 보입니다.

다른 이들과 세상적인 성향을 가진 이들은 종종 세상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와 다른 형제자매들을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자리 잡도록 허락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치를 당하거나 낮아지거나 낙담한 형제자매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를 꺼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겸손한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 높여질 것이며, 교만한 자들, 즉 자신을 높이 여기는 자들은 낮아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마태복음 23:12).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사용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낮은 지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겸손히 다가가 그들과 동행하며, 정해진 때에 높임을 받게 하시기 위해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또는 제자들이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더 많은 책임들을 이행하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교회, 또는 서로 간에 맺은 새 언약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책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으로 죽어 모든 인간적인 의지를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할 뿐 아니라 그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입니다. 9장 16-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유언자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언약은 사람이 죽은 후에 효력이 생기고,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와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함으로써 죽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를 버려야 언약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 또는 희생의 일부입니다. 만약 그들이 여전히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를 따른다면, 언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위해 내려놓는다는 것은 주님과 형제자매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죽어야 언약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해 죽음의 표시로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형제자매들과 함께 일합니다.

제12장

키니아, 빛 가운데서 걷는 것의 이점 코버넌트 파트너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어 '코이노니아'(발음: 코이노니아/-아)는 '킨스'(kins)라는 형용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동업, 즉 참여, 사회적 교류, (금전적, 즉 돈과 관련된) 자선, 소통, 교제, 분배, 친교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그리스어 '킨스'(코이노스)는 공통된, 즉 모두 또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간단히 말해 공동으로 무언가를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공통된 것을 가질 때 코이노니아가 존재하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초기 제자들이 어떻게 코이노니아 안에서 살아갔는지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서로를 위해 진정으로 생명을 내어주는 헌신이 없는 불가능합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설명한 것은 바로 형제자매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진정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진 자가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요한일서 3:16-18).

사도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언약 형제자매가 소홀히 해서 안 될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나 형제자매에게 닥치는 고난이나 박해를 함께 나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내어준다는 것은 언약 형제자매와 우리의 존재와 소유를 기꺼이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이 세상의 재물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이며, 물질적인 재물, 재정적인 재물 등을 가리킵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언약 형제자매에게 자신의 세상 재물을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언약에 대한 당신의 헌신은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제자들은 가진 모든 것을 서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들의 무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행전 4:32).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간단히 말해, 그들 모두가 하나의 비전, 하나의 믿음, 그리고 하나의 주님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체제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거나 내어주었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코이노니아 초기 제자들의 행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믿는 자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떡을 떼고 집집마다 다니며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도행전 2:44-46)

그들 가운데 부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팔아 그 값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더니,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사도행전 4:34-35)

그들은 모두 같은 것을 믿었기에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놀라운 일치가 있었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기에 모든 사람의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따랐습니다.

보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나! 그것은 머리에 부은 귀한 향유와 같으니라.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옷자락까지 닿았도다. 헤르몬 산(팔레스타인 산 또는 시온 산)의 이슬과 같고, 시온 산들에 내리는 이슬과 같으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영원한 생명, 곧 복을 명하셨음이니라 (시편 133:1-3).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 다윗 왕은 광야에서 사울과 그의 군대의 맹렬한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다윗을 돕기 위해 따로 모인 충성스러운 용사들과 갓 지파 사람들과 함께 요새 안에 거할 때 이러한 축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형제자매들이 하나 되어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즉, 형제자매들이 하나 되어 함께 사는 곳)에서 축복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명하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비전이 없고 반항적이며 게으르고 헌신적이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함께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와도 하나 되어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13-16절을 진정으로 믿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에서 왔는지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즉, 진정으로 고향과 세상을 버리고 더 나은 천국을 찾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고, 언약 형제자매들과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에, 그들의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이르기를 기다리셨던 영역, 그 영토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언약을 맺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 신실함이 증명되었고, 주 예수님 발 앞에 자신의 마지막 의지를 희생하고 형제자매들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해 그 자리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시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 되어 함께 거할 준비가 된 이 언약을 지키는 형제자매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133:1-3에 따르면, 그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고에서 직접 필요한 모든 자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이노니아는 참된 연합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정확하고 정밀한 생명이며 기독교에서 가장 높은 영역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영을 불러들이려 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죽이신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 임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막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코이노니아의 완벽한 예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0:30)라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가 내 것을 받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가 내 것을 받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요한복음 16:14-15)

"내 것이 다 네 것이요 네 것이 다 내 것이니 내가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리라"(요한복음 17:10).

이 구절들과 성경에 언급된 더 많은 구절들에서 주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일 뿐 아니라, 아버지와 연합(코이노니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자신에게 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정확히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깊이 연구한 후 고린도 교회에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풍성해졌고,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풍성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서 확증되었으므로, 여러분은 어떤 은사도 부족함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 없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므로, 그분께서 여러분을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에 부르셨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노니, 너희 모두가 한결같이 말하라."

이는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고린도전서 1:4-10).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그들 안에 확증하셨으므로 그들에게 어떤 은사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분께서 마침내 그들을 끝까지 확증하셔서 주 예수의 날에 흠 없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같은 말을 하도록 힘써서 그들 가운데 분열이 없고,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하십시오. "끝"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telos*이며, *tel-*으로 발음됩니다. 이는 특정한 지점이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즉 어떤 행위나 상태의 결론(종료)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챔버스 사전(Chambers Dictionary)에 따르면 "끝"은 마지막 지점 또는

부분, 끝, 종료, 죽음, 결과, 결론, 끝나다, 중단하다, 파괴하다, 종결하다 등. 바울이 실제로 의미한 것은 그들이 모든 면에서 풍족해진 후에, 코이노니아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지 확증해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계시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흠 없는 자로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코이노니아는 여러분의 모든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 최종 지점, 결론 또는 종착점입니다.

코이노니아에 들어가 그 안에서 완벽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늘과 하늘의 위계질서를 이 땅에 가져온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요한일서 1:3-4).

요한이 그들이 보고 들었다고 선포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코이노니아에서 함께 살고 일할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 또한 코이노니아에서 서로 어떻게 함께 살고 일했는지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고,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참된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다니고,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일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빛 가운데 행하여 아버지와 서로 교제(코이노니아)할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렇게 행하는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코이노니아를 실천하기 위한 단계 코이노니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다른 헌신적인 형제들과 맺은 언약에 대한 전적인 헌신.
2. 성경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부르는 영원한 삶의 방식.

코이노니아 안에서 살아가려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언약 관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의 유보도 없이 온전히 언약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님 사이, 부부 사이, 주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전적인 헌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연합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6-7 절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교제하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기꺼이 그분께 순종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빛 가운데 행하는 그분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인이거나 그분의 기준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불경건한 신자를 위해 자신의 기준을 낮추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한 이 말은 코이노니아 안에서 함께 행하는 형제들 사이에서도 나눌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모든 것, 모든 법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간의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덕률이며, "빛 가운데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나, 부부가 아닌 남녀 간의 성관계는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납니다. 또한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어둠 가운데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코이노니아에 속한 모든 사람들 사이의 절대적이고 완전하며 지속적인 개방성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한 언약적 관계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됩니다. 코이노니아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것도 숨기거나 왜곡하거나 감춰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부부 관계처럼, 각자의 인격을 완전히,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관계여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즉, 당신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격을 열어 보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빛 가운데 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다른 형제자매들과 주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교제)를 누리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비밀스러운, 부정직함, 진실성 부족, 그리고 이기적인 거리낌 속에 머물러 있는 한, 당신의 빛은 계속해서 희미해져 결국 완전한 어둠 속에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엢 5:1-13 참조). 그리고 당신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당신에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당신을 책망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이노니아는 현재의 진리(건전한 교리)와 완전한 정직성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빛이 어떠한 방해나 제한 없이 밝게 비춰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이노니아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 안에서 행하는 구성원들에게 어떤 방해물이나 어둠이 있다면, 그 방해물이나 어둠이 제거되거나, 그 구성원이 정직되거나 출교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배가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빛 안에서만 축복을 나타내십니다.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면 더 고운 은을 담을 그릇이 나올 것이다."
악인을 왕 앞에서 제거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움으로 굳건히 세워질 것이다(잠언 25:4-5).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 걷는 자들이 빛 가운데 걷는 자들 가운데로 옮겨지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면서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려 하지 않는 자들은 영적인 음행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마치 성적인 관계를 원하면서도 결혼의 조건을 충족하려 하지 않는 남녀와 같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져 있는 이러한 잘못된되고 헌신 없는 관계는, 앞서 말했듯이, 잘못된 성적 관계에 빠진 남녀 사이에서 발전하는 관계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대개 쓰라림, 상처, 미움, 깨진 관계, 충족되지 못한 욕망, 그리고 지켜지지 않은 약속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의 모든 교파나 단체에서 코이노니아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고, 영적인 음행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한 이유입니다.

빛 속에서 걷지 못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이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악령을 쫓아내고, 여러 하나님의 종들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해결책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이나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지름길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이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북쪽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배교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진노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자비로우니 영원히 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죄악을 인정하여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있는 이방인들(악령들)에게 너희 길을 훔쳐 버리고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여라.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있는 이방인들(즉, 하나님의 일꾼이나 신자라는 가면을 쓰고)에게 너희 길을 훔쳐 버리고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여라. '배교한 자녀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각 성읍에서 한 사람씩, 각 가족에서 두 사람씩 택하여 시온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렘 3:12-15) 많은 무지한 사람들은 이것이 교회와 신앙생활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물을지도 모릅니다. 빛 가운데서요? 제 대답은 둘 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기대를 걸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확증하시기 위해 코이노니아 가운데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코이노니아 가운데 행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교회와 언약을 맺으셨기에,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 활동이 끝까지 확증될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의 연관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교제 가운데로 돌아오는 길의 기준이,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빛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그 가운데 행하는 참 성도들과 교제하는 길의 기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인정하고 고백한 죄에 대해 회개하고,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고, 서로에게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어 기도를 받고 치유와 구원을 받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 가운데 행함으로써 언약에 대한 헌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임스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의미한 바입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서로에게 허물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치유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효력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진리에서 벗어난 길을 갔을 때 누군가가 그를 돌이키게 한다면, 그 죄인을 그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은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 주는 것임을 알게 하십시오.

(야고보서 5:16, 19-20)

만약 당신이 형제자매들에게 당신의 죄나 허물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고백은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사제에게 하는 고백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이교도 바빌론 사제들이 채택한 제도이며, 후에 로마에 정착하여 교황이 보편 교회의 지도권을 장악했을 때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더 이상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며, 치유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죄를 고백하지 않거나, 회개하기 위해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받지 않는다면, 당신은 죄에서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단계를 거쳤다면, 이제 당신은 가족처럼 살거나 빛 가운데 행하거나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삶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삶'이란

챔버스 사전에 따르면, '삶'이란 출생과 사망 사이의 기간, 경력, 현재의 존재 상태, 생활 방식, 도덕적 행위, 생동감, 활력, 생기, 살아 있는 듯한 모습, 특히 인간을 포함한 살아있는 존재, 사회적 상태, 사회적 활력, 인간사, 삶의 이야기, 전기, 영원한 행복, 생명을 주는 원리, 지속적인 존재의 근거 등을 의미합니다. 저는 '삶'이라는 단어의 심오한 의미를 적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언약 형제자매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주에서 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진정한 영적 만족을 얻을 수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속임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체계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헌신한 다른 사람들과 헌신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2-27절에서 설명했듯이, 몸의 어떤 부분도 홀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한 몸처럼 거룩함 가운데 날마다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든, 노동 속에서든, 모든 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기뻐하거나 존경하는 것.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행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교제하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_____

그러므로 여기서 '만약'이라는 조건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동안 서로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빛 가운데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서로 교제할 때 비로소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발견하고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의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지속적인 정화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 즉 코이노니아를 찾는 데 방해가 되는 유일한 장애물은 바로 여러분 내면의 교만, 이기심, 고집, 악한 추측 등입니다. 이러한 벽과 장벽을 허물고, 마지막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유익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십시오.

연락처

사도/목사 존 A. 다니엘, 우편 사서함 537,
새틀라이트 타운,
라고스, 나이지리아.

전화/팩스: 01 7943450, 0803 3476693, 08035719805, 08034430659

사도/목사 존 A. 다니엘, 주소: 나이지리아
라고스 페스타크 타운 4 번
가 D 클로즈 2
번지.

www.harmabitrac.org

저자 소개

사도적 소명을 받은 존 A. 다니엘은 1989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이 속한 종교 체계(세상이 조직한 종교 시스템), 직장, 친척, 친구들과 떨어져 성령의 권위 아래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옮겨져 혈육이 아닌 사람들과 교제했던 것처럼, 저자 역시 1989년 4월 22일 주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후 (이사야 59:21 참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이지리아 에누구 아크푸오가-에메네에 있는 광야 또는 아라비아 사막과 같은 농장 정착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기 위해 많은 환난, 기근, 고난, 공핍, 매질, 투옥, 철야, 금식, 위험 등 온갖 고난을 겪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의 육체를 불로 태우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이 모든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1992년에 훈련을 마친 그는 언어, 민족, 인종에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대의 진리를 전하도록 권능을 받은 사람으로, 성령께서는 지금도 그를 통해 말씀을 찾는 거룩한 이들의 마음에 이 진리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는 현재 나이지리아 라고스 페스타 타운에 있는 도움과 화해 사역 및 성경 훈련 대학의 감독이자 학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남녀를 무료로 훈련시키고 전 세계에 무료 기독교 서적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주님의 귀한 선물인 메리 블레싱스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녀는 저자의 언약적 동반자로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큰 은총의 진정한 비결입니다.

이 부부는 사랑스럽고 순종적인 세 아들, 즉 티모시 존(주니어), 벤자민 사무엘, 데이비드 조셉을 두었습니다.